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해방공간 수필의 사회·역사적 연구

- 1945년에서 1950년을 중심으로 -

2006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김 성 리

문 학 석 사 학 위 논 문

해방공간 수필의 사회·역사적 연구
- 1945년에서 1950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남송우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김 성 리

목 차

I. 서 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5
II. 본론	9
1. 해방공간 수필의 사회적 인식과 그 특성	9
1) 해방의 기쁨과 좌절	9
① 해방의 환희	10
② 정책의 혼란으로 인한 불안	12
③ 농지개혁의 실패로 인한 빈곤	18
④ 가난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23
⑤ 난민의 절망적인 삶	33
2) 교육의 허와 실	36
① 기독교 선교 중심의 획일적인 유아교육	37
② 일관성 없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42
③ 교사의 자질 문제	45
④ 문맹 퇴치의 방법과 문제	48
3) 일제 때와는 다른 문화의 양상	51
① 특권의식의 발로 - 기독교	52
② 인습의 벽을 넘은 문화 - 여성의 삶	56
③ 문인들의 사랑방 - 다방	65
④ 선망의 신흥예술 - 만화	68

4) 미군정과 일제잔재	71
① 한국인에 대해 비하적인 미군인식 비판	72
② 일제 잔재 청산의 문제	76
2. 해방공간 수필의 문체와 표현의 특징	81
1) 논설적이며 사실적인 문체	82
2) 문예적인 표현	87
VII. 결 론	91
참 고 문 헌	95

A Socio - historical Study of Essay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1945 ~ 1950)

Kim Seong - l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thesis surveyed the essays written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 in the social and historical ways, and the research was made in the following aspects; joy and frustration of the liberation, the true and the false in the education, different cultural phases from the period of Japanese colony, remains of the American military rule and Japanese colony, and the style of literary compos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in expression. In addition, under understanding that literature has social and cultural meaning and effect, I studied daily life of the public by analysing the essays. Literature is closely related to the cultural elements and the society where the literature is written, because a writer's ideology and philosophy are contained in the texts. Literature is a tool by which we can look into the past.

First of all, two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essays written during the period of liberation were hope and frustration. Gladness from the liberation didn't keep long and the nation's misfortune began with the liberation. The policy was confusing, and that caused people to feel uneasy and to stay in extreme poverty. The policy in that period was far from people's basic rights of life. Continual poverty and distrust in the government brought changes in the criteria of the people. The traditional conception about family collapsed down and fraternity was put aside as

the people pursued material values. Refugees to South Korea were in very bad conditions, and the sudden influx of refugees caused shortage of goods in South Korea. The essays of the period tell us about the situations of the people in misery. That is to say, the essays show that all the pain and troubles in realities of life are related to the past and everyday affairs have financial problems at the bottom.

Second, I studied the education system in the aspects of the quality of teachers, illiteracy, and the systemic problems in kindergartens, elementary schools, and junior and high schools. The primary problem at that time was that the realities couldn't be reflected in education system because the educational policies were set up under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The main body was not our nation, but the American military administration and the people who were co-operated for them. They made all the decisions of the educational policy. The essays directly brought up these educational problems. Moreover, the essays didn't only raise the problems but they gave the solutions. These essays were society-participated, and we can recognize interrelations between the essays and educational problems.

Third, the culture at that time showed different phases from Japanese imperialism as Yankeeism flowed in. Christianity authorized in political power is notable. But the biggest change was that women organizations were founded resolutely, and women themselves refused regulations and began to look for beauty. Tea-rooms changed from the place merely where they enjoyed beverages into meeting rooms for writers and poets. Causerie cartoons which was limited to the small group of people changed into the comic strips about current events. A class of readers was enlarged and applicants for cartoonists increased. Inner desires oppressed during Japanese colony were spouted out by the influence of Yankeeism which came with the American military. The fact that such cultural areas were developed meant that Capitalism started to appear. The essays showed which direction the culture in the time of revolution could turn to, and we can see the stream of the changes of the times through the essays.

Fourth, the essays identified the American military as foreign influence. At that time, the American military looked down upon Korean. To the eyes of the American military, Korean was not the independent nation who has long history and tradition, but just the colonial people who had been once under the control of Japan. The reactions of the intellectual were divided into two parts; one group supported the American military and the other detested them. Here, the problem is

1 reality recognition of some writers who were supporting the American military, because this is not the problem which can't be solved by understanding or tolerating. It was true that remains of Japanese imperialism existed in our language and daily life unconsciously. Thirty-six years of colonization was not short. During that time, Japanese culture and language was mixed with ours. The essays show two faces of the intellectual at that time through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fluence, and make us think about society recognition and responsibility which they should have had in the time of revolution.

Finally, as I looked through the style of compos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I found that the essays were logical rather than emotional. It can be said that they were accusing of the society rather than working at literary field because the social problems were made to appear directly in them. The essays have the characteristics that the theme appear directly and there were few parables in the works. This is because in the society that is changing very fast, writings that reflect the real life can win more sympathy than writings emotional. In addition, even pure literary works couldn't reach the high level due to immature in expression, and as a result, they became personal stories without literary qualities.

During the time of disorder, writers couldn't maintain objective distance from the reality. As the result of that, even though they knew the meaning of the liberation well, they failed in expressing literarily in the works. We can find the reason in the fact that they generally recognized the reality in negative perspective. That was because the hopes which they expected in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y, the liberation from the poverty, and the liberation from the feudalism changed into frustration in the real life. However, the essays showed realistically the many aspects of society at that time by describing the real life in concrete way.

I.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역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해방공간¹⁾은 희망과 좌절이 공존하던 시기였다. 자주주권국가 수립의 희망은 외부세력의 개입에 의해 좌절되고, 그 과정에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문단도 좌익과 우익으로 분열되었기 때문이다. 또 이 시기는 식민통치권력이라는 사회의 중심적 지배질서가 급격히 붕괴된 공백기에서,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두 개의 국가가 한반도에 자리잡게 되는 체제선택기이기도 했다. 해방기의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한 사회적 상황뿐만 아니라, 급변의 시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대중은 한 사회, 나아가 한 국가를 구성하는 하부토대이기 때문이다.

해방공간에서는 자연적으로 사람의 삶이 세상과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해방공간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념은 생존 너머의 문제였다.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인간이 과거의 사회를 이해하고, 그 사회를 살았던 인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사회·역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문학의 진정한 가치라고 믿는다. 우리는 오로지 현재의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조망할 수 있고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시대에서 과거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문학작품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문학의 창작은 미묘하고 신비스러운 무엇이 아니고 경험과 상상의 조직화이며, 조직화에는 일정한 원리

1) 김윤식은 「해방 후 남북한의 문화운동」에서 해방공간을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병순은 자신의 박사 학위 논문인 해방기 소설연구에서 정치사회사적 시대구분론에서 해방기라는 용어를 1948년 8월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문학계에까지 시대단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당대의 소설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볼 때, 1945년 8월15일을 기점으로 이후 소설들에서 차별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외적인 요인보다 문학내적으로 커다란 변모를 보인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삼는다고 밝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병순이 주장하는 1945년 8월 15일부터 민족의 큰 변란이었던 1950년 6월 25일까지를 해방공간으로 설정하였다.

가 있고, 조직화된 작품은 일정한 역사적 이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²⁾

해방은 일제의 압박에 움츠려 있던 문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넣었으며 근대 문학 이후 처음으로 당국의 검열 없는 창작의 자유를 주었다. 시와 소설, 수필 가릴 것 없이 일제 말기에 미처 발표할 수 없었던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고, 유능한 젊은 작가들이 등장하여 새로이 모색되고 의욕적으로 시도되는 개성적인 문학세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학은 좌익이나 우익이나로 문단의 골은 형성되었지만, 내용이나 추구하는 가치에 상관없이 식민시대 문학에서 탈피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현대수필문학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해방공간의 수필연구는 1930년대와 1950년대의 수필연구를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한국 수필문학사를 살펴보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수필은 어느 정도 연구되었으나 1940년대에 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1920년대에는 수필이 장르적인 독자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감상, 상화, 단상, 잡상, 단문, 만필 등으로 혼용되고 있었다.³⁾ 1930년대에는 수필이라는 명칭으로 장르적인 특성을 확립하며, 수필이 문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제조건에 대한 토론이 활발했다. 김광섭은 인간과 생활을, 김진섭은 인간과 지식, 이태준은 문장과 감정, 김기림은 비판적인 측면, 임화는 사상적인 측면에서 수필이 가지는 문학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1930년대에는 수필이 문학의 한 장르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본다.⁴⁾

그러나 1941년 『문장』이 일제의 탄압으로 폐간⁵⁾되는 조선어말살정책으로 문학은 암흑기를 맞으며 수필은 붓이 꺾이게 되었다. 1940년대에 들면서 일제는 그들의 전쟁에 협력하는 내용이 아니면 작품활동을 할 수 없게 문인들을

2) 조동일, 『문학연구 방법』, 지식 산업사, 2002, p.54.

3) 정주환, 『韓國 近代隨筆의 文學史的 研究』,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1.

4) 김현주, 1930년대 ‘수필’개념의 구축과정, 민족문학사학회, 2003, p.4.

5) 1941년 4월 폐간될 때까지 『문장』은 매월 8편 정도의 수필 고정란을 두었다. 이윤희, 이양하 수필 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1. 『문장』지가 폐간되었다는 것은 수필을 고정적으로 기고할 공간이 사라졌으며, 이로 인하여 수필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박탈당했음을 의미한다.

탄압했다. 신문들은 폐간되고 우리글로 된 많은 서책의 발행이나 판매가 금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말로 된 문학작품은 발표지면을 잃었고, 작가에 대한 제약과 압박으로 문학작품의 창작활동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⁶⁾ 수필도 이러한 상황에 머물러 있다가 1945년의 해방으로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⁷⁾ 실제로 해방공간에서 수필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집을 출판하였으며, 수필의 성격에 대한 이론적인 논쟁보다 창작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한국 현대수필사의 연구를 위해서는 해방공간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⁸⁾

지금까지 수필에 대한 연구에는 박향옥⁹⁾, 오창익¹⁰⁾, 장기순¹¹⁾, 오병일¹²⁾, 정주환¹³⁾ 등이 있으며, 작품론으로 보면 거의가 피천득, 이양하, 김진섭 등에 국한되어 있다. 오병일은 韓國現代隨筆文學 研究 에서 수필의 명칭과 수필문학관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193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수필 변천사를 살피고 있지만, 1940년대는 수필게재 잡지와 수필집의 제목을 살펴보는 데에 그치고 있다. 오창익은 1920년대 韓國隨筆文學 研究 에서 1920년대 수필의 전형을 살펴보았다. 정주환은 韓國 近代隨筆의 文學史的 研究 에서 근대수필을 개화기에서 1920년대로 규정하고, 작품이 게재된 일간지와 문예지를 중심으로 수필의 변천과정과 양상을 다루고 있다.

6) 신동욱·조남철, 『현대문학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1992년, p.316.

7) 오병일, 韓國 現代隨筆文學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p.38.

8) 최승범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서 해방공간 수필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른바 해방 공간의 수필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방 공간이란, 이른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압제에서 해방된 날로부터 1950년 6월 25일 남북전쟁이 일어난 직전까지의 약 5년 간을 일컫는다.’ www. naver.com. 최승범은 해방공간 문단의 특수성에 비해 볼 때, 수필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해방공간에 발행된 수필집과 활동했던 수필작가들의 작품과 이름을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 목차집. (김근수, 한국학 연구소, 1975)』을 참고하여 밝히고 있다. 또, 수필작품의 내용을 크게 14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품분석이나 작가론적인 접근은 없었다. 내용도 분류만 되어 있을 뿐 분석은 없는 상태이다.

9) 박향옥, 한국현대 수필문학의 주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10) 오창익 1920년대 韓國 隨筆文學 研究,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5.

11) 장기순, 한국 현대수필문학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2) 오병일, 韓國 現代隨筆文學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13) 정주환, 韓國 近代隨筆의 文學史的 研究,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945년에서 1950년까지의 수필을 다룬 논문으로는 한국언어문학회에 실린 오현봉의 解放空間隨筆의 社會現實研究¹⁴⁾가 있다. 오현봉은 자신의 논문에서 해방공간의 사회현실을 빈곤, 현실의 비탄과 고뇌, 뿌리 뽑힌 삶, 일제잔영과 회한, 잔학한 식민통치의 규탄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서론에서 해방공간 수필을 문학사회학적 방법으로 주제별로 분석하여, 당대 민중이 지향하던 세계관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그 시대 인간문제를 분석하고, 당대 대중이 어떻게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지가 수필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자의 논문은 저자가 시도하는 8·15 해방시대의 문학장르 별 연구의 일환으로 시도되었음도 밝히고 있다.¹⁵⁾ 오현봉이 직시한 해방공간의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은 옳았다. 해방공간은 빈곤이라는 단어로 집약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절대빈곤에 시달리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현봉은 해방공간의 빈곤에 집착함으로써 각 장 별 주제는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경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즉, 당대 대중이 겪었던 사회현실을 빈곤과 식민통치의 잔재로 이분화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빈곤의 원인을 주로 일제식민통치의 결과로 보고 있다. 해방공간 빈곤의 원인은 일제착취와도 상관관계가 있으나, 더 큰 원인은 해방공간의 정치와 미군정의 농업정책 실패에 있다. 해방공간에 발표된 작품 40여 편을 사회현실과 접목하여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작품소개에 그치고 있으므로, 당대 수필의 사회적 의미는 연구되지 못하였다. 결국 해방공간이라는 특수한 사회현실과 당대 사람들의 문제를 연계하여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방된 지 60년이 지나도록 해방공간의 수필을 통하여 당대 사회상을 살펴보는 본격적인 연구는 없었다. 그리고 해방공간에서 활동했던 작가는 커녕 작품의 연보도 완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단행본마저도 보존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수필가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전무하여, 그들의 약력조차 알려져 있지 않고 많은 자료들이 유실되어 찾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14) 오현봉, 解放空間隨筆의 社會現實研究, 『한국언어문학』제 8집, 한국언어문학회, 1990.

15) 오현봉, 앞의 논문, p.2.

같은 시대 같은 사회에 사는 사람은 각자의 경험에 따라 동일한 문제에 대하여 심리적·행동적인 반응이 다를 수 있다. 수필도 작가의 개인적인 체험에 의하여 제재를 선택하고, 그 제재를 주제로 형상화하는 것이므로 작품에 나타나는 인간문제는 매우 현실적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현실인식과 수필의 창작과정을 접목시켜 수필을 분석해 보면, 해방공간의 사회주역은 대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수필 속의 인물은 도시빈민, 가난한 지식인, 월남 난민, 여성 등 일반 대중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한 사회의 상부구조는 하부구조에 의해 규정되고 지탱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수필 속에 있는 대중들의 삶이 해방공간 사회의 모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해방공간이 지니고 있는 사회·역사적인 의미를 일반 대중의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해방공간을 살았던 작가의 삶의 체험에 토대를 두고 창작된 수필을 분석하여 그 시기 사회상을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그 이유는 수필의 특성에 있다. 수필은 소설에 비하여 분량이 길지 않고 구성이 단순하며, 시에 비하여 언어의 압축이 심하지 않아 일반인이 접하기에 쉬운 문학 장르이다. 반면 타 장르의 문학 작품이 가지기 힘든 관조의 미학으로 작품 속에 응축된 의미가 독자에게 바로 전달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 사이에 창작된 수필을 분석하여 당대의 사회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다른 문학 작품에 비하여 관조의 미학이 뛰어난 수필의 장르적 특성이, 작품 속에 내포되어 있는 작가의 정신을 통하여 살아 움직이는 당대 사회의 생활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

연구 대상으로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 6월 25일까지 창작된 수필을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창작 시기가 정확하게 해방공간으로 표기된 수필을 최종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방공간에 간행된 책에 수록되어 있어도 창작 연

대가 표기되지 않았거나 위의 시기에 창작되지 않은 작품은 제외하였다. 또, 해방공간이 아닌 다른 시기에 간행된 책에 있는 수필 중에서 창작 시기가 해방공간으로 정확하게 표기된 것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개인 작품집은 가능하면 최초로 출간된 초판본을 원전으로 하되, 원전이 소실된 경우에는 가능하면 초판본을 그대로 재 발행한 책을 선정하였다. 월간지인 『문예』와 『백민』에 실린 수필들은 모두 <수필>이라는 고정란에 실린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간지에 실린 수필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것을 선택하였다.¹⁶⁾

위의 선정 과정을 거친 결과 모두 331편¹⁷⁾이 해방공간에 창작된 수필 작품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56편¹⁸⁾을 분석하였다. 331편의 작품은 개인 수필집에 실린 작품 184편¹⁹⁾과 『문예』 1949년 8월 창간호부터 1950년 4월호까지에

16) 그 이유는 현재 해방공간의 신문자료가 <조선일보>만 전산화되어 있어 수필 작품의 내용을 직접 인쇄하여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17) 수필 작품 331편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의 문제 8편, 문화·예술에 대한 제언 46편, 정책의 문제 제기 15편, 사회상(혼란의 양상, 새로운 풍속) 71편, 빈곤으로 인한 문제 49편, 외세인식 12편, 자아실현(사색, 관조) 52편, 문학에 대한 제언 16편, 가정사 12편, 과거 회상 18편, 기타 32편이다.

18) 해방공간에서 창작된 수필 작품들 중에서 해방의 환희 3편, 교육의 문제 8편, 정책의 문제 15편, 사회상 71편, 빈곤으로 인한 문제 49편, 문화·예술 46편, 외세인식 12편을 먼저 선정하였다. 그 중에서 논설적이며 주제가 뚜렷하고 사회성이 강한 수필 56편을 분석·연구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사색과 관조의 과정을 거쳐 자아를 은유적으로 드러낸 문예수필과 문학의 성취동기나 창작방법론을 제기하는 작품, 주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작품들은 마지막 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는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인 사회·역사주의 비평방법론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편수에 상관없이 작품의 주제가 사회현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거나 제재가 해방공간 민중의 삶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해방의 환희에 대한 작품은 세 편이지만, 해방공간을 알리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논하였다. 교육에 관한 수필이 8편으로 가장 적으나 수필 속에 제기된 문제의식이 당대의 사회문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논하였다. 문화·예술에 관한 수필은 46편이지만, 실제로 사회의식이 강하게 드러난 작품이 많지 않은 관계로 나중에 다루었다.

19) 마해송의 『편편상(사회와 인생, 1954년)』에 실린 27편, 정래동의 『북경시대 (평문사, 1949년)』에 실린 36편, 이문희의 『들장미(청구 출판사, 1955년)』에 실린 1편, 진현중의 『두뭇집(청우 출판사, 1954년)』에 실린 6편, 김용준의 『새근원 수필(열화당, 2004년)』에 실린 36편, 김진섭의 『생활인의 철학(선문사, 1949년)』에 실린 7편, 『인생예찬(현대문화사, 1947년)』에 실린 8편, 『백설부(범우사, 2003년)』에 실린 1편, 최영수의 『困憊의 畵(덕여 서림, 1949년)』에 실린 16편, 계용묵의 『상아탑(우생 출판

실린 52편, 『백민』 1945년 12월 창간호부터 1950년 5월호까지에 실린 70편, 조선일보에 1947년 4월 2일부터 1950년 6월 19일까지 주로 <문화>면에 실린 25편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방공간 민중의 삶을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역사적 비평방법론으로 위의 수필 작품들을 분석하였다. 사회·역사주의 비평은 작품의 원전을 신뢰하고, 그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간과 장소에 작용했을 때 작품의 언어를 의식하는 특징이 있다.²⁰⁾ 즉 예술의 창조는 역사적인 계기와 연관이 깊으므로, 문학작품은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비평 방법은 문학이 현실을 반영해내는 장치라는 전제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현실이 변동해 가는 과정이나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변동법칙의 세계를 그려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정적인 현실 자체를 변혁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데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문학의 본령이라고 보고 있다. 다른 비평과 달리 특히 현재적인 문제의 진단과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속성도 갖고 있다. 문학의 표현 수단인 언어가 사회적 산물이며, 문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사회 안에서 영위되고 있는 인생이며,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체험은 일정한 가치와 사회 의식을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체험이란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사회·문화적 조건과 관련짓지 않고서는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다. 이때 일반적인 사회생활상인 관습·풍습·가치·표준 등 한 시대, 한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양식은 작품 속에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수필의 창작시기와 사회·역사적인 사건 발생 시기를 정밀하게 대조하여, 수필작품을 중심으로 그 시기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작품을 연구하였을 때, 급변하는 해방공간의 사회상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사람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 변혁기 사람들의 삶은 정치적, 사회적 제도에 영향을 받고 변화한다. 변화된 사람들의 삶은 문학에 반영되거나 굴절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을 통

사, 1950년)』에 실린 7편, 홍영의의 『사라수초(동국 출판사, 1952년)』에 실린 5편, 전희복의 『거울 앞에서(문예사, 1950년)』에 실린 34편 등이다.

20) 이선영,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2003, p.17.

하여 당대의 사회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문학작품이 창작되었던 당대의 문화와 사회성·윤리성을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이런 선상에서 볼 때 해방공간의 시대적, 사회적 초상은 혼란과 갈등의 역사로 새겨져 있다. 해방공간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는 벗어났지만, 미군정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큰 변화에서 시작하여 6·25라는 큰 변란을 겪기 직전까지 앞날을 예상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해방된 그 날부터 한국민은 크게는 민족적 아이덴티티, 작게는 각 개인의 자기 동일성의 회복과 확립이라는 과제에 맞서 싸워야 했다.²¹⁾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 해방공간은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로 들어서는 전환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비록 이 전환이 우리 스스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외세에 떠밀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민의 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갑자기 다가온 해방과 미군정의 신탁통치, 예상하지 못했던 분단 등으로 인한 외부 변화는 작가들에게 현실적 고뇌와 이상 사이의 갈등을 함께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해방공간의 현실 속에서 수필은 제재의 특성상 고립된 개체가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에 의하여 창작된 것이다. 그래서 수필이 지니고 있는 경험적 제재의 특성을 생각하여, 해방공간의 사건들과 수필을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비교·대조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역사적 방법으로 해방공간에 창작된 수필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방의 기쁨과 좌절, 교육의 허와 실, 일제 때와는 다른 문화의 양상, 미군정과 일제잔재라는 주제 하에 당대 사회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주제들을 작가와 작품, 그리고 독자라는 상관관계에서 볼 때, 그 시대를 살았던 민중들이 어떻게 삶의 뿌리를 내렸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방공간 수필의 문체와 표현의 특징을 통하여 당대 수필의 전형도 살펴 볼 것이다.

21) 이우용, 『해방공간의 문학연구』, 태학사, 1990, p.34.

II. 본론

1. 해방공간 수필의 사회적 인식과 그 특성

해방공간은 한국현대사에서뿐만 아니라 현대문학사에서도 하나의 지평을 이룬 시기이다. 역사적으로 큰 변혁인 해방이 당대 사람들의 생활을 어떤 양상으로 변모시켰는지 알아보는 것이 이 장의 고찰목적이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양상이든 부정적인 양상이든 해방이라는 큰 변혁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그 변화의 방향은 당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해방은 외형적으로는 일제라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한다. 반면 내면적으로는 인간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해방이 민중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해방의 기쁨과 좌절, 교육의 허와 실, 일제 때와는 다른 문화의 양상, 미군정과 일제잔재라는 주제로 수필을 분석해 볼 것이다.

1) 해방의 기쁨과 좌절

해방이 되자 기뻐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계층은 민중들이었다. 그러나 해방이 모두에게 ‘열려진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단지 역사적 진실의 일면만을 의미할 뿐이었다. 오히려 해방은 분단, 또는 해방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에게는 비극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다.²²⁾ 사회구조전체가 격심한 과도기인 현실 속에서, 일제 36년이라는 기존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변혁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확립은 국가체제의 정비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는 기존의 고정화된 관념이나 생활양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것이

22) 김윤식, 해방직후 소설의 현실인식문제, 앞의 책, 한울, 1988, p.149.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욕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방은 외세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로 완전한 자주독립국의 틀을 갖추 수 없는 요건을 지니고 있었다. 해방정국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민주당과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로 나뉘었다. 그리고 안재홍과 여운형의 중도세력과 박헌영의 남조선 노동당이 가세하여 각자의 이익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좌·우 대립의 골은 깊어지고, 민중의 생활은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있었다.

당대의 이러한 사회·역사적 사실을 기본전제로 하여 해방의 기쁨, 대중의 불안, 빈곤과 그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월남 난민의 생활고라는 소주제로 작품을 분석한 후, 해방의 기쁨과 사회적 불안과 빈곤으로 인한 대중의 삶을 살펴볼 것이다.

① 해방의 환희

일제 36년은 일왕의 항복 선언으로 막을 내렸다. 전 일본열도는 광기에 휩싸여 통곡하였지만, 조선은 감격과 환희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우리 一行은 那人波사이를 헤저으며 同胞들을차저 驛頭가까이로 닥어갔다. 아! 그때였다! 驛舍아래 높히 바람에 펄럭이는 여러폭의 흰기빨! 그것은 日本軍國主義下에 입박조차 내지못하던 太極旗가 아니었던가! 나는 太極旗를 멀리바라보다가 나도 몰으게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새어흐름을 억제치못하였다. 먼 北方의異郷에서 지금 虐殺과 〇套의 悽慘한 소용도리속에서 民族解放의 이 偉大한 世紀의 아침을마저 新京驛頭에 太極旗를 볼줄이야! 아! 오래 억눌렷던 〇〇이 一時에 스르르 풀리며 새로운 힘이 솟아올르는 複雜한 感動의 一瞬間이었다. 朝鮮獨立萬歲! 나는 無心中에 힘차게 외치며 두팔을 空中에 빼뻗었다. 판同僚들도 큰소리로 和唱하자 여기저기서 同胞들의 萬歲소리다. 中國人들이 바라보며 빙글빙글 웃는다. 나는 총망중에 赤旗만 만들고 태극기준비를 이룬 것을 內心後悔하였다.²³⁾

23) 왕명, 新京驛頭의 太極旗, 『백민』, 1945년 12월, pp.27~28.

八・一五日 - 거리거리에 ○에 넘치는 太極旗가 휘날린다. 모퉁이마다 潮水를미듯 사람들이모여 四十年동안 참여왔든 울분을 吐○하는 듯 제각기○○○○○○드리 내는가하면 또 群衆가운데서 그한사람이 목이터지게 愛國歌를 불으니 群衆은 제풀에 따라한다. 그瞬間 또 우렁차게 네활개를 뻗치고 웨치는 萬歲소리...²⁴⁾

일본제국주의의 야만적인탄압으로 四년간 중지되었다 해방후 처음의 거식이니 많지 시간전에 장내는 빈틈없이 초만원을 이루고 식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듯한 애국가의 합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어서 장지영씨가 훈민정음서문을 엄숙히 봉독한후 흰두루매기를 입은 리극로간사장이 일짜로 다문입에 강렬한 투혼을 빛이며 등장하여 열열한 식사를 하자 만회의 박수는 끈질줄을 몰랐다.²⁵⁾

작가 왕명은 이국 땅 만주의 신경역에서 태극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해방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많은 동포들이 이국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동포를 만나고, 해방군으로 입성하는 소련군을 맞이하러 간 신경역에서 본 태극기가 해방이 사실임을 알려 주었다. 적기는 준비하였지만, 미처 태극기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작가에게서 일제 36년의 상흔을 읽을 수 있다.

일제는 36년 동안 태극기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36년 간 빼앗겼던 태극기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일장기에 푸른색을 칠해 만든 태극기, 푸른색도 없어 일장기의 빨간 부분 중 절반을 먹물로 색칠한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거리를 휩쓸었다. 애국가도 기억하지 못해 각기 다른 가사의 애국가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기도 했다.²⁶⁾

박연희는 거리마다 넘치는 인파와 태극기의 물결을 40년 동안 참여왔던 울분이 터져 나온 것이라고 표현했다. 일제 36년 동안 억압되고 압축되어 온 울분은 비로소 태극기와 자유로운 집회의 형식을 띤 인파라는 형태로 터져 나오

24) 박연희, 삼팔선을 넘어서, 『백민』, 1945년 12월, p.12.

25) 한글기념일과 한글노래, 『백민』, 1945년 12월, p.30.

26)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권, 인물과 사상사, 2005, p.30.

기 시작했다. 한번 터진 감정은 온 거리를 사람의 물결로 메우고 있었다. 태극기만이 아니라 한글날 기념식도 해방을 실감나게 하는 것 중의 하나였다. 애국가를 마음껏 소리 높여 부르고, 한글창제를 축하하는 것도 환희와 기쁨의 표현이었다. 자유롭게 외연화 할 수 있는 우리말과 우리글, 우리나라 노래에서 해방을 기정사실화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방의 환희는 전국을 휩쓸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 라디오가 거의 없던 어느 마을에선 동네 어른들이 소문만 듣고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려는 젊은이들의 경거망동을 꾸짖기까지 했다.²⁷⁾ 비록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해방은 아니었지만, 일제의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온 국민은 기쁨과 희망에 들떠 있었다.

해방의 환희에 휩싸여 거리로 나온 군중들에게 현실은 기쁨과 희망만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는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대중이 원하는 것과는 너무 달랐다. 이미 나라는 분단되어 소련과 미국에 의해 신탁통치가 시작되었다. 해방군으로 입성하는 소련군을 맞기 위해 적기를 만들어 갔지만, 그들은 해방군이 아니라 또 다른 점령군이었다. 사정은 남한도 같았다. 미군은 1945년 9월에 서울로 입성하였으며, 본격적인 미군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은 이런 사실들을 감춘 채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36년 간의 식민통치는 온 국민들에게 복잡하게 얽혀 들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을 마비시켰던 것이다.

문학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통로와 같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수필에 나타난 해방의 풍경은 희망과 환희였다. 비록 이역만리 타향에서 태극기를 보고 눈물 흘리지만, 해방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해방이면에 숨겨진 민족의 불행은 해방의 기쁨에 가리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② 정책의 혼란으로 인한 불안

1948년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이 되었다. 이때 나라는 우익과 좌

27) 강준만, 앞의 책, p.31.

익으로 나뉘어 서로를 비방하고 있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동고동락했던 동지가 우익과 좌익으로 나뉘어 서로 밀고하고,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공포하여 무차별적인 좌익탄압을 감행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민중이 보이는 불안의 양상이 다음과 같이 작품 속에 나타나 있다.

해방이후 『나는 무엇이나 못믿겠다』는 것이 누구나 하는소리다. 해방전에 서로 친하고 비밀한말이라도 주고받고하던 사람이 그리고 어던 비밀한 사명까지 할수있든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게 되었다. 웨이렇게 못믿게 되었을까? 웨친하든 사이가 이렇게 버러지게 되었을까? 이유는간단하다. 방종하리만큼 사슬이틀린것이고, 또사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때문이다. (중략) 모두가 다각기 영웅이되라했고 또 어느쪽에벗터야 자기가 출세케할까하고 그릇된 판단을 해갖이고 본의아닌 방면으로 흘러가기도 했든 것이다. ○전하는 세태는 눈치만 보는사람, 이로울 대로만 향해 쫓아다니는 사라들이 따라다니기엔 넘우도 급속도로 변전무상하였다. (중략) 혁명의 오랜 역사를가진 귀한 지도자들이 헛되이 욱만 보고 민중의 신뢰를 잃게되었다. 그래서 조선사람은 국제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있다. 이어찌 슬픈일이 많이라.²⁸⁾

우리는 民主建國의 途上에 있다. 아무러케나 建國하는 것이 아니라 民主主義的으로 建國하자는 것이다. (중략) 主權이 國民에 있다는 것은 이評價의 自由가 어떠한 個人에 있는 것이 아니라 國民에게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換言하면國民이 어떠한 實踐을 높이 評價하고 그實踐을 支持할때에 비로소 그 實踐에權威가 發生하는 것이다. (중략) 오히려 이權威가 正當히 評價되고 確立되어야만 그社會가 한 개의 軌道에 오르리라는것에 想倒하매 民主建國建上에 있는 이나라의 權威가 重大한 危機에 逢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수없는 것이다.²⁹⁾

더욱이 任期延長問題를 契機로 憲法이 무시되려하고 法律이란 權力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左右할수 있는것과 같은 印象을 받은 一般이 民主主義란 自己

28) 함대훈, 信, 『백민』, 1948년 5월호, p.132.

29) 김삼규, 權威, 『백민』, 1949년 3월, p.154. 김삼규는 1949년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을 지낸 언론인이다.

마음대로 하는것이라는 幻想을 품게 된것도 無理가 아닐것이며 自己 마음대로 하는대 道義心이 무엇이며 先輩니 後輩니하는 것이 무엇이나. (중략) 이 나라 民主主義의 混亂이 실로 良心의 痲痺와 喪失에 있다는 것과 良心이 喪失되었기 때문에 眞實한 民意가 存在할수 없는 苦悶상이란 것을 이해할수 있으리라.³⁰⁾

인(仁)과 의(義)로써 한다면 전쟁도 정의를 살리기 위하여만 생길 의의가 있고, 또 정의로 나선 편이 반드시 이길 것이요, 정치도 인의(仁義)로 나서는 편에 인민은 가담할 것이니, 우리 같은 범용한 사람의 생각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야 무엇보다 먼저 기도(基道)의 정신을 체득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³¹⁾

장단은 그러므로 친구나 적이나를 물론하고 다름 사람을 정당하게 고려하는 가치있는 예술을말함이니 장단은 공동의 생존을 위하여 불필요한 가시 넝쿨을 옆으로 배제하고 유해무익한 정 열을 파 해침이 없이 진정시키며 또 모든 원심력을 위압하는 한 좋은 요령이요 교량이요 조정기요 개혁자인 것이다.³²⁾

위의 글들에서 알 수 있는 민중의 불안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과 본연의 모습을 잃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일제 때에는 사상이 달라도 조국의 광복이라는 하나의 목표가 있었기에 동지였으나, 그 목표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서로의 사상에 따라 적이 되었다. 해방공간에서는 모두가 영웅이 되고싶어 했으며, 그것을 악용한 권력에 기만당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구를 배신하고 동지를 밀고하는 혼란이 시작되었다. 우익과 좌익의 반목은 서로를 밀고하는 선을 벗어나 친일파에 대한 반응에서도 알 수 있다. 전 국민의 염원이었던 친일파청산마저도 양진영의 대립 속에서 힘을 잃고 있었던 것

30) 김삼규, 良心, 『백민』, 1950년 5월. p.79.

31) 김용준, 기도(基道) 강의, 『새근원 수필』, 열화당, 2001년, pp.160~161. 김용준은 일본 동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으나 동양화로 전신한 화가이다. 해방 후 서울대의 미술학부 초대 교무과장을 겸임한 동양화 교수로 이론과 미술사를 주로 담당하였다. 그는 ‘근원’외에도 ‘검려’라는 호를 사용했다. 수필집인 『근원수필』과 미술사인 『조선미술사대요』를 펴내었다.

32) 김진섭, 건국의 길, 『生活人之哲學』, 전문사, 1949년, 24.

이다. 이러한 정치 상황이 민중들에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불안을 양산시켰다.

작가는 국민의 생활에 안정을 주는 것보다 불안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이승만의 정책들이 ‘구테기’같은 존재들에 의해 추진되었다며 한탄하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이 잘 살아야 제대로 된 나라가 선다는 사실을 그 ‘구테기’들은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시원한 가을바람이 그 ‘구테기’들을 날려버리기를 작가는 기원하고 있다. 비록 배고프게 살지언정 서로 돕고 믿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라의 권위는 저절로 서게 되고, 이름을 팔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은 그 이름을 떨칠 수 있다고 작가는 믿었다.

그러나 이승만은 대다수 국민의 소망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의지대로 정부를 이끌기 위하여 개헌까지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런 현실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일반 국민이 민주주의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했음을 작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대통령이 나서서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법률을 마음대로 만드는데, 어느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작가는 한탄한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니 선패도 없고 후패도 없이 사회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었다. 이는 정당하고 올바르지 못한 정권 아래에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함을 개탄하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수립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상통제와 ‘보도연맹’이니 ‘학도호국단’이니 하는 헌법 밖의 법률³³⁾이 시행되고 있었다. 작품이 말하는 대로 이승만은 헌법 초안이 의원내각제인데도 대통령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³⁴⁾ 헌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남겼다.

수필가들은 이러한 정책의 혼탁함에 대하여 나름의 방안을 제시한다. 작가

33) 이승만은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학도 호국단, 대한 청년단, 국민회라는 유사 국가기구적 대중조직을 만들었다. 이들의 임무는 관제국민대회 청중 동원, 공산주의 잔재 일소, 사상통일 등이었다. 특히 국민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18세 이상의 모든 남녀는 가입해야 했는데, 가구당 200원의 회비를 내어야 했다. 국민회비를 내지 않으면 식량배급통장이나 물자의 배급을 중지한다고 위협하였으며, 청년단비를 내지 않으면 38선에 보낸다고 위협했다. 이 모든 조직의 총재는 이승만이었으며, 어느 하나도 법률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강준만, 앞의 책, pp.215~217 참조.

34) 강준만, 앞의 책, p.140 참조.

들은 작품을 통하여 정치지도자들이 이성을 되찾기를 바라고 있다. 먼저 김용준은 仁과 義를 버린 정치권의 행태를 기도에 빗대어 말하고 있다. 일제 36년의 고통을 애써 외면하고,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반대진영을 제거하기 위하여 친일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의롭지 못한 정치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진섭은 장단을 맞추어 나라를 위해 일하자고 제안한다. 공동의 생존을 위하여 주위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불필요한 가시넝쿨은 옆으로 배제하고, 서로를 파헤치지도 말며 앞으로만 가자고 한다. 이는 오직 국가의 재건을 위하여 정치권이 욕심을 국민과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시기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부수립의 주도권이었다. 반면 대다수의 국민은 해방 후 새 국가는 자주적인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³⁵⁾ 이런 생각은 사회주의 세력이나 민족주의 세력이나 같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법에는 생각이 달랐다. 이들은 친일파의 청산, 일본인 소유의 재산분배, 통일정부 수립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그리고 한반도를 자신들의 점령국으로 인식하는 미국과 소련의 미·소 공동 위원회에 의한 신탁통치와 남한의 단독 정부수립으로 인하여 좌·우익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남한 단독정부수립의 길을 택한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정책부재에서 오는 불신의 벽은 높았다.

이러한 정부에 대하여 작가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때 정치권은 좌·우익의 민족적인 이데올로기 논쟁이 가열되고 있었다. 우익은 좌익을 신탁통치를 받아들인 사대주의자로 비난하였으며, 좌익은 외국 군대의 즉각적인 철수가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우익과 좌익의 대립은 깊어갔고, 갈등은 ‘총성 없는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갔다.³⁶⁾ 그러나 미처 준비되지 못한 상황³⁷⁾에서 급하게 진행되는 미군정 주도 하의 민주주의와 내부의 좌·우익 갈등은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인정과 권력 강화의 하나로 나온 게 일

35)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2, 휴머니스트, 2002년, p.167.

36) 전국역사교사 모임, 앞의 책, p.169.

37) ‘남한 사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적 물질 토대를 가진 현실적인 주체세력도 없었고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본래의 의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기초 역시 결여되어 있었다.’ 한준상·정미숙 앞의 글, p.348.

민주의와 강압적인 권위였다. 그러나 그 권위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다.

해가 바뀌어 1949년이 되자 나라는 더 어지러워진다. 이승만도 일민주의³⁸⁾를 앞세워 자신의 우상화에 전력했다. 49년부터 이승만의 귀환일과 생일은 국경일처럼 경축되었다. 이승만의 생일엔 중앙청 광장에서 정부 주도로 공식적인 ‘대통령 탄신 경축대회’를 열었다. 그의 생일은 탄신일로 불렸으며, 군경함동의 육해공군 삼군 사열까지 받았다. 모든 국민은 집집마다 국기를 달아야 했다.³⁹⁾

이승만 대통령이 억지로 권위를 세우려 할수록 민심은 멀어져 갔다.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생에 주력하기보다는 나라를 우익과 좌익으로 나누어 권력유지에 혈안이 되었던 정부에 국민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국민을 지배하고자 했던 정부는 국정교과서에 실린 좌파 문인의 글들을 아이들로 하여금 먹칠하게 하였다.⁴⁰⁾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쓰던 어휘들마저 북조선에서 쓴다는 이유로 완전히 배제되었다. 조선, 동무 같은 낱말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조선 옷은 한복으로, 조선 기와집은

38) 일민주의는 지도자와 신종자로 구성된 사회를 전제로 했으며,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 통치되며 국민은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걸 전제했다. 이는 일민주의 보급회가 49년에 펴낸 이승만의 『일민주의 개술』에서 이승만이 말한 ‘하나가 미쳐 되지 못한 바 있으면 하나를 만들어야 하고, 하나를 만드는 데에 장애가 있으면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에서 그 의도를 알 수 있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2권, 앞의 책, pp.218~219 참조. 안호상이 일민주의를 ‘이승만의 이성적 판단과 양심적 반성과 굳센 의지의 결정으로서 단군 할배검의 홍익인간 정신과 신라 화랑도의 사상을 이어 받아 현대의 모든 이념체계를 종합한 가장 깊고 가장 큰 주의’라고 자찬하는 데에 대해 지식인들은 조소를 보냈다. 한준상·정미숙, 1948~53년 문교정책의 이념과 특성, 『해방전후사의 인식』4, 한길사, 1997, p.349.

39) 강준만, 앞의 책, p.255 재인용.

40) ‘부임해 온 지 얼마 안 되는 국어 과목의 최선생이 다음날 국어 시간에 교과서와 함께 먹과 붓 그리고 벼루를 준비해 오라고 일렀다. 우리는 그대로 하였다. 국어 시간이 되자 최선생이 먹칠을 해서 지워야 할 글의 제목과 책장의 숫자를 철판에 적었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진한 먹물로 자기 교과서의 지워야 할 곳에 먹칠을 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정복 차림의 경관 한 명이 들어와서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갔다. 좌파 문인들의 글은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교과서는 이미 그 전에 제작되어 있었다. 그래서 과도적인 조치로 먹칠하기를 결정한 것이다. 유종호, 앞의 책, pp.264~265.

한옥으로, 조선 사람은 한민족으로 쓰게 되었다. 또, 동무란 말은 적절한 대체어가 없었지만 친구란 말이 대신하게 되었고, 어린이 사이에서도 쓰이게 되었다.⁴¹⁾

이상의 작품을 살펴본 결과 해방공간을 살았던 대중이 겪었던 불안은 일상 생활에 많은 제약을 가져온 정책과 민의를 저버린 정치권에 그 원인이 있었다. 정권을 잡고 싶었던 국가지도자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시행된 정책들은 대중의 생활에 불안과 불만을 동시에 주고 있었던 것이다. 생활고를 겪는 대중들에게는 정치권의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이데올로기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많은 대중들은 혼란의 시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의 염원과는 상관없이 정치권은 권력 투쟁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해방공간에서 대중은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 그 결과 대중의 생활은 불안과 불만이라는 벽에 갇혀 출구를 잃고 있었다.

③ 농지개혁의 실패로 인한 빈곤

미군정은 출범직후 전체 남한 재산의 80%에 달하는 구 일본인 재산을 모두 군정청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단행하였다.⁴²⁾ 미군정청의 일본인 재산 접수가 모든 생산공장의 가동을 중지시켰다고 볼 수는 없으나 우리경제에 미친 영향은 컸다. 미군정청은 귀속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하여 접수 후 관리 차원에 머물렀다. 그 결과 사회적인 혼란과 더불어 모든 공업생산이 격감하기 시작했다.⁴³⁾ 공업생산의 격감으로 물가는 계속 올랐고 중간 상인들의 물품독점 현상이 나타났다.

어찌하여 우리 朝鮮에 昔日에는 볼수 없었던 憎惡와 角逐이 문득 솟아났는지
알수 없거니 와 事實은 이미 있었든 그와 같은 心的要○가 建國의 基礎工事

41) 유종호, 앞의 책, p.267.

42)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개, 1988. p.65.

43) 이종훈, 미군정경제의 역사적 성격, 『해방전후사의 인식』1, 송건호 외, 한길사, 1995, p.500.

를 契機로 하고 表面에 滲透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략) 文字 그대로 畵中之餅이라 할까. 目豐口凶이란 感想을 지니지 않고 길거리에 벌려 놓여 있는 雜然한 百貨속에서 단한가지 物件인들 흥정할 수는 없을것이니 彼此에 敵이 아니고서야 朝鮮에서 生産되는 物件을 그렇게 비싸게 팔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流行性精神病의 性格을 띠우고 憎惡에 의한 市民戰爭이 오로지 自己一個人의 利益을 위하여 모든 秩序와 모든 道德을 無視하고 마치 中世紀의 黑死病처럼 猖獗을 機하고 있는 反面에는 雪上加霜으로 어느때 이 곳에 큰 地震이 일어났다는 것인지 모든 사람은 (중략)⁴⁴⁾

다행히 쌀한말값은 손에넣었으나 인근 쌀전 할것없이 속속히 뒤흔었으나 팔 도리는 없었다. 그래 그의안해는 비오든첫날 윈종일 서울시내 시장을 헤매었으나 급기야 쌀은 사지못한채 물귀가되어 여섯시 거이돼서야 돌아왔다. (중략) 그도 잘안다면 다행이려니와 밀가루 옥수수 밀보리로 형용할수없는 것을 맨들어 풀칠해가며 황달병이든양 누-렇게 생기가 없어 허들허들하고 덴기는 판에 서로 도리어 산다는 것은 엄두도 못낼 말이였다. (중략) 그는 광화문 네거리가 나서자 문득 머리를들고 마포행 전차를 잡어탔다. 한강나루로 쌀이 들어온다는말을 들은 때문이다. 막상 당도하고보니 나룻가에 목선떼가 있으나 인적좃아없었다. 제방텐넬 구멍 아래에서 새우젓 장사가 소조한 장을펴고 있을뿐이였다. (중략) 다음순간 못견딜만한 시장기를 누끼며 걸어간다. 비는 여전히 계속해오는꼴이 쌀은 애시당초에 단념하는수밖에 도리가 없었다.⁴⁵⁾

시적 시적 일손을잡아봐야도 헌데 三四月간긴해 먹이 때문에 탈났쇠라. 윤○ 방도 올해 正月 에 땅을산것이다. 土地改革은 ○다니 대○ 물리듯 밀려가고 臨時僮○법도 ○○가 되고보니 달구치는 地主의 強賣威脅에 견디어날 재간이 없어서다. 소 잃고 오양 곧치게 되길 말아얄텐데! 農民 잃은 土地改革이 되지않기를 비는마음 비록 나뿐이라.⁴⁶⁾

土地改革은 必然的으로 있고야 말 모양이나 말이 난지는 오래도 아즉 實現에

44) 김진섭, 市民戰爭, 『人生禮讚』, 현대문화사, 1947. p.170.

45) 박연희, 쌀, 『백민』, 1946년 11월, p.45.

46) 이○○, ○○○ ○○○, 조선일보, 1949년 3월 24일.

까지 이르지 못할 것이니 약빠른 地主層은 이틈을 타서 土地強賣에 寧日이 없다. 이제 地主對小作人間의 土地強賣法에 대한 不文律을 알아보면 地主는 처음에 土地를 耕作하는 小作人을 相對로 一定한 期間을 정해서 土地를 사라고 言明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럴 能力이 있는 小作人은 農牛를 팔고 家屋을 팔아서라도 土地를 사게 되든지 또 그럴 能力이 없으면 親戚에게나 自己와 親分이 있는 사람에게 紹介를 하든지 兩端間 하게 되는데 만일에 그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貧農이면 이걸 하느수 없이 小作人에 대한 自退書를 地主에게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一旦 明文으로 自退한 다음에야 아모리 怨痛하기로 地主에게 대한 發言權은 없다. 土地改革 斷行이라 패니말만 앞서고 實施가 뒤졌으니 그중에 골코 죽는것은 貧農層뿐이다.⁴⁷⁾

위의 글들을 통해 해방공간의 물가상승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눈으로 보는 것은 풍족하나 너무 비싸 살수가 없는 것이다. 서로 도와가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위기 속에서 자신의 영리만을 꾀하는 이기심을 김진섭은 ‘시민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유행성정신병의 성격을 띠었을 정도로 물품부족으로 인한 서민의 생활고는 심했다. <조선일보> 1946년 8월 31일자는 하지에게 보낸 공개장에서 “한국인들은 지금 일본 식민지 시대보다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썼다.⁴⁸⁾ 이러한 생활고 앞에서 이익을 위해서는 질서도 도의심도 없이 생존본능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시민전쟁’으로 보아도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할 이진투구의 원인을 작가는 높은 물가에서 찾고 있다.

쌀이라는 작품에서 박연희는 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울의 모습을 담고 있다. 돈이 있어도 쌀을 살 수가 없어 돈을 쥐고 굶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 계속되었다. 이웃에 사는 사람도 배급받는 밀가루나 옥수수가루로 겨우 연명해 가는 처지니 곡식을 팔겠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한강나루에 쌀이 들어온다는 헛소문이 나돌 정도로 쌀은 귀했다.⁴⁹⁾ 너무 비싸서 살 수

47) 최인욱, GOSSIP 程度, 『백민』, 1949년 6월. p.159.

48)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 인물과 사상사, 2005, p.171 재인용.

49) 실제로 이때에는 모리배 상인들이 목포에서 한강을 따라 쌀을 운반해 왔었다. 굶주린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앞 다투어 쌀을 샀다. 쌀을 살 수 없었던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강준만, 앞의 책,

없는 생필품과, 돈은 있으나 없어서 못사는 쌀을 생각해볼 때 해방초기의 민초들의 삶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미군정은 식량을 수집하여 배급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없었다. 도시민들은 배급 식량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쳤으며, 그렇다고 농민들이 이익을 본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에서의 식량부족은 극심해졌다. 미군정이 식량을 수집하기에 앞서 시행한 것이 군정법령 제9호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에 의하여 소작료의 ‘3·1제’⁵⁰⁾에 의한 소작료 제한 조치였다. 일제시대 때에도 지주제는 지속되었으며, 특히 일본국내의 식량확보를 위하여 소작료의 인상이나 미곡공출제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미군정에서는 일제 때와 달리 고율 소작료를 제한하여 소작인의 경제적 지위를 높인다는 취지로 ‘3·1제’가 선포되었으나, 지주 측의 반발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예상외의 쌀 품귀현상이 빚어졌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45년 10월 5일자 미군정법령 제 9호에 의해 실시된 소작료 조정 등은 농민들로 하여금 토지개혁의 실시를 당연한 요구로서 제기할 수 있게 했다.⁵¹⁾ 비로소 농민들은 자신의 권리에 눈을 뜨기 시작하며, 일본인 지주와 친일 한국인 지주들의 땅을 몰수하여 무상으로 분배하라⁵²⁾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땅을 가진 지주들의 반발도 조직적으로 일어났다.⁵³⁾ 지주들의 이러한 노력은 권력층에서도 호응하여 미군정의 토지개혁을 몇 년이 지나도록 주춤하게 만들었다.⁵⁴⁾ 어설픈 토지개혁의 결과로

p.204 참조.

50) 미군정법령 제9호 1조에는 소작료 3·1제에 대하여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토지 기타 자신 점유 또는 사용에 따른 소작료는 현존계약 여하를 막론하고 또한 현물, 금전 등 여하한 형식으로 납입하든지 토지 기타 자산의 점유 또는 사용으로 획득되는 생산물 총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황한식, 미군정하 농업과 토지개혁정책, 강만길 외, 『解放前後史의 認識』2, p.270 참조.

51) 유인호, 해방 후 농지개혁의 전개과정과 성격,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1, 한길사, 1995, p.405.

52) 전국역사교사모임, 앞의 책, p.178.

53)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방법을 취하거나(이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었다), 아니면 토지개혁의 논의가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토지를 방매함으로써 토지개혁으로 인한 사실상의 피해에서 모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토지개혁의 입법과정에서 법률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무의미한 토지개혁이 되게 하는 것이다. 유인호, 앞의 글, p.415.

가장 피해를 본 계층은 농민들이었다.

정책의 부재에 의한 경제적인 문제는 대중의 삶에 고통을 더해 주었다. 해방직전까지 일제 총독부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한국인들에게 생활물자를 최소 수준으로 공급하는 통제 정책을 펼쳤다.⁵⁵⁾ 해방이 되고 일인이 물러가자 통제되었던 공급과 수요정책은 무너졌다.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공장은 일본인 기술자들이 돌아가고 중요한 설비는 파괴되면서 가동을 멈추었다. 남북 간의 물자교류도 38도선이 그어지면서 중단되자 생산설비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귀향민이 속속 귀국하면서 생필품은 극도로 부족하였으며, 식량난도 심각했다.

그러나 전국적인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실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생활고에 시달린 농민들의 불만이 더해지자 미군정은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토지개혁이 어쩔 수 없는 대세임을 안 지주들은 그들의 소작지를 빠르게 매도해 나갔다. 지주들은 소작농들을 감언이설⁵⁶⁾하였고, 땅을 가지지 못한 소작농들은 전 재산을 털어 땅을 매입했다. 자연히 땅의 가격은 오를 것이며 그 차익은 뽕땅 지주들의 몫이었다. 이마저도 안 되는 빈농은 소작인에 대한 자퇴서를 제출하여, 그나마 소작하던 기회마저도 뺏기고 생계가 막막하게 되었다.

전 재산을 털거나 빌려서 땅을 매입한 농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

54) 1946년 3월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개혁에 주목한 미국무성은 남한에서도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군정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남한에서의 반대 세력이 미군정의 주요지지 기반인 지주들과 한민당이었던 관계로, 몇 차례 시도하긴 했지만 지주출신 의원 중심인 입법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2, pp.92~93 참조.

55) 전국역사교사모임, 앞의 책, p.177.

56) 지주의 토지강매현상에 대하여 당시의 농정관계자의 농지개혁법 제정을 위한 여론조사(1948년 10월경)에서 얻은 증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농촌에서는 농지개혁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농토를 강매하는 경향이 심했습니다. 지주들은 “당신이 부치고 있는 기름진 땅을 딴 사람에게 팔아야 할 모양인데 기왕이면 당신이 사가라”는 식으로 소작인을 구슬러댔고 세상물정에 어두웠던 소작인들은 농우나 가재도구를 팔아 땅을 사는 사례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주들의 토지강매술법에 대하여 공통적인 점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정부에서 토지를 몰수해서 재분배를 할 것인데 그러면 땅을 뺏기고 만다. 이 땅을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는데 그렇게 되면 당신은 개혁할 때 배분받을 땅이 없게 된다.’ 유인호, 앞의 책, p.418 재인용.

이 토지의 소유권을 가졌긴 하지만 다른 생산수단을 가지지 못했으므로,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생활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당장 기거 할 곳이 힘들거나 소가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므로, 땅이 있다고 해도 생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쉽게 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농민들 사이에서도 계층 간의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땅을 매입하여 새로이 지주가 된 농민과 소작권마저 강제로 내놓은 빈농사이에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어 반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토지개혁은 토지는 있으나 농민은 살기가 더 힘들어지고 이농현상을 빚게 되는 근원이 되었다. 땅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 고향에 남아 있는 농민들도 지주의 요구대로 농사를 짓게 되고, 빈농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해방공간에서 대다수의 국민은 가난했다. 쌀이 주식인 나라에서 쌀값이 폭등하고 쌀의 품귀현상이 계속되었다는 것은 대중들의 일상이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매우 곤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미군정의 토지개혁 실패와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 정책으로 국가 전체가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 농지를 잃은 농민은 빈농으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오르는 쌀값은 도시 빈민을 양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빈곤층이었으나, 그들은 정책의 배려대상이 아니었던 관계로, 끝없는 빈곤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④ 가난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지 빈부의 격차는 있다. 그러나 해방공간과 같은 혼란기에서의 빈부격차는 민초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 가진 것 없는 민초들의 생활고는 내일을 향한 희망도, 오늘을 살아갈 의욕마저 꺾어 놓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하는 절대빈곤은 절망과 함께 가치관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도 그리 늦은 편은 아니었건만 언제들 이렇게 펼쳐났는지 아직 午正도 멀었을텐데 山은 사람으로 왔다. 아니, 곳에 따라선 벌써 沼沼한 醉興에 허리를 부러치고 뽕당춤〇에 남비 장단이 한참인데도 있었다. 우리 一行도 물이 흐르는 골짜기의 한곳을 擇定하고, 짐을 풀었다. 소고기, 닭고기, 鷄卵, 菓子, 술, 쌀 거기에 이것 들을 料理할 道具一襲이 自轉車로 하나이 실리어 왔다. 논다는 것은 결국 먹는다는 意味가 아닐른지 모른다. 제 아무리 名勝景概를 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享樂으로서의 本意였다면 반드시 먹는 一項이 따라야 그 意義를 지니게 되는 것 같다.⁵⁷⁾

마치 무슨 잔치나 하는것같은 豪華 로운 饗宴의 준비가 버려지고 있었다. 흰 떡이 마루 한편에 山데미 같이 쌓여있고 藥食 시루떡, 엿, 그밖에 나로서는 얼핏보아서는 內容도 모를 飲食物들이 豐盛하게 차려져 있었다. 同行이던 P先生 K先生 역시 모다 놀라서 멍-하고 서있었다. 나오자니 안되었고 더벅더벅 들어가자니 그 亦是 거북한 노릇이었다. 나는 아직 젊은 편이지만 五十이 넘은 P先生도 처음보리만큼 훌륭한 설준비라 했다. 차례를 지낸다니 그 宅先祖들은 얼마나 滿足해 하일까. (중략) 비로소 설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설넝탕집이라도 없는가 하는 一行의 合意로 桂洞골목을 두리번거리며 지나오다가 문득 P先生的 친구의집을 不時에 습격하기로 했다. 三男 一女의 어머니로서 젊은 青春을 홀로 지내는 과부의 집이 었다. 사랑하는 아들은 三八接境에 軍務를 띠고 나가고 며누리와 딸만 데리고 孤獨과 寂寂을 忍耐하는 女性들만의 家庭이었다. 별안간 달려드는 客들은 저녁밥을 내라그 법석을 해서 김치 깎두기와 김 밖에는 아모것도 없는 主人은 당황했으나 그래도 즐거움은 거기 있었다.⁵⁸⁾

있는 사람은 더 있어도 살고 그만도 살지만, 要是 없는 사람이 살아야만 나라도 살판인데, 配給날짜라면 祖上님 祭祀날 보다도 더 역역히 기억하는 헐벗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一般配給 停止라니 晴天 霹靂도 分數가 있지 이래서야 쓸것인가.

57) 계용목, 貞陵一日, 『상아탑』, 남조사, 1950, p.54.

58) 전희복, 舊正所感, 『거울 앞에서』, 문예사, 1950, p.99.

돈냥 가진분은 역시 눈치도 빨리 가만니쌀을 대문간 안으로 실어 들이는데
눈 뜨고도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속만 탈뿐이니 糧穀自由○入解除란 것도 惠
澤을 입는 사람이나 입지 貧民에겐 解除나 禁止나間에 別無影響이다.
밀가루 配給탄것을 간직해 둘데가 없다는 핑계로 시장에다 내는 아주머니는
핑계나 좋지만, 하로에도 한끼씩은 꼭 밀국수로 사는 사람은 돈이 必要해서
내고 싶어도 먹기가 바빠서 못내는 形便이다.⁵⁹⁾

위에 인용된 글들은 빈부격차에 의한 생활양상이 계층별로 어떤 차이가 있
었는지를 나타내고있다. 해방공간이라고 모두가 힘들었던 건 아니었다. 일제
36년과 미군정을 거치면서, 부를 지니고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
들의 부가 사회악은 아니었지만, 정도를 넘은 그들의 소비형태는 사회 변혁기
를 열심히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삶의 의욕을 꺾어 놓을 수 있기에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해방 후 4년이 지나면서 빈부격차는 사람의 생활 모습도 변화시켰다. 여유
가 있는 사람들은 계곡으로 숲으로 나들이를 가서 자연의 정취를 즐기기도 했
던 것이다. 자전거로 소고기, 닭고기, 과자, 술, 쌀까지 싸들고 가서 먹고 마시
며 즐겼다. 좋은 정치도 먹는 것이 있어야 제대로 즐긴다는 이면에는 동족의
고통에 대한 몰인정이 깔려 있었다.

1948년은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토지 개혁으로 나라의 정세는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의 선포로 좌익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이 이루
어지고, 물자 부족으로 밀수가 성행하며,⁶⁰⁾ 산이 적화되어 가는 시기에, 설날
맛이를 시끌벅적하게 한다는 사실에서 해방 후 부유층의 생활실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두 가정의 설날맛이 양상은 부자와 빈자 사
이에 있었던 생활상의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준다. 한 민족이라는 자
금심 아래에서 서로 어깨를 맞대고 살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웃의 굶
주림은 가진 자들의 의식 속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작가는 하층민들의 빈부격차에 의한 불만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위

59) 최인욱, 앞의 글, p.166.

60) 이 시절엔 밀수가 성행했는데, 48년엔 경찰청 후원의 밀수방지를 위한 영화가 많
이 제작되었다. 강준만, 앞의 책, p.137.

의 글들을 살펴보면, 도시 빈민이 겪는 가난의 차이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쌀을 가마니 짚 들이는 부자는 제외하더라도, 배급받은 밀가루를 쌀로 바꾸는 경우는 경제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밀가루도 없어서 굶주리는 도시 빈민의 입장에서 쌀을 구하기는 요원한 해방공간이었다.

일제 말기에 전쟁물자 조달로 대중들의 생활은 곤궁했으며, 해방 후 정책부재와 사회혼란으로 가난은 끝없이 이어졌다. 실제로 해방 직후 사회적 생산액은 엄청나게 격감하였다. 공업의 경우는 75.2%가 감소(1939년 대비 1946년 현재)하였으며, 농업생산도 최소 10~30%가량 감소하였다. 물론 그 이유로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기술상의 공백, 적산기업체와 토지의 운영·불하의 공백, 원료·자재의 격감 등 식민지 경제 단절의 단기적 여파와 사회적 과도기의 영향력 등을 들 수 있다.⁶¹⁾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다. 생산설비가 파괴되거나 가동이 중단된 사회에서 대중을 떠난 정책은 국민의 대다수를 절대 빈곤층으로 만들었다.

미군정의 토지 개혁 이후 농지면적도 줄었으며⁶²⁾ 수확량의 4내지 6할에 이르는 강제공출 기타 각종 세금 및 납부금, 군정이 새로 창출한 하곡 공출은 농가 경제의 영락과 이농, 농업생산의 급감⁶³⁾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5년부터 시작된 미군정의 자유시장 정책은 쌀의 품귀 현상을 가져와 46년 미곡 자유시장을 폐지하고 강제로 미곡을 수집, 즉 식량을 공출하여 쌀 배급을 했는데, 배급량은 일제 치하 전시 중 총독부가 준 배급량의 절반인 1일 1홉이었다.⁶⁴⁾ 그 결과 대중에게는 쌀이 턱없이 부족하였지만, 돈을 가진 일부 계층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나마 배급으로 받은 밀가루라도 팔 수 있는 가정은 그 돈으로 쌀을 구할 수 있었지만, 밀국수로 끼니를 때우는 가난한 서민에게 쌀은 꿈 같은 일이었다. 결국 미군정이 제도를 어떻게 바꾸든 어떤 정책을 실시하든 빈민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61) 백일, 해방 전후 사회경제사의 관점, 박명림 외, 『解放前後史의 認識』6, 한길사, 1996, p.249.

62) 1945년 말에는 농지 면적이 2,226,000 정보였으나 1946년 6월에는 2,071,000 정보, 1947년 말에는 2,193,000정보였다. 전국역사교사모임, 앞의 책, p.178 참조.

63) 황한식, 앞의 글, p.288 재인용.

64)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 p.201 재인용.

우리는 사회변혁기에 나타나는 기존과는 다른 사회계급의 양상을 수필에서 볼 수 있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산해진미를 만들어 설맞이를 하는 자본주의 계층과 사회의 규범에 따라 아들을 군무에 보내고 빈한한 설을 맞는 사회 하부 계층은 이 시기 사회구조의 모순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들의 서로 다른 조건에 의해서 같은 민족 내의 구별짓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⁶⁵⁾ 같은 사회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계층 간의 구별짓기가 문제시되는 이유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고자 애쓰는 하층민에게 의욕상실과 현실에 대한 원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품 속에는 가난 때문에 겪는 문인들의 고초가 자주 나온다. 극심한 가난은 문인들에게 생활고와 함께 자괴감을 가져다 주었다. 농사를 지을 땅도 없이, 길거리에 앉아 좌판이라도 펼쳐 놓을 용기도 없이 오로지 글만 쓸 줄 알았던 문인들에게 가난은 혹독한 형벌과도 같았다.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현실 속에서 문인들의 일상은 무너지고 있었다. 거대한 사회적 변화는 습관적이고 본능적인 모든 생활의 리듬을 파괴하여 일상성을 붕괴시키기 때문이다.

겨울이 닥쳐와 食口를 鄉歌로 보내고 獨居過冬에 火氣없는 房에서 떨며 起居하는동안 고만 風蘭이 얼었다. 어느 집에 맡길 겨를도 없이 零下十九度四分의 猝寒으로 고만 風蘭이 얼어버렸다. 이것은 그대로 내마음의 凍傷이 되어 입김을 쏘이고, 술을 메기고(枯渴될때는 술을 뿌려주면 蘇生한다는 섬사람의 부탁에 의해서)별짓은 다 해봤으나 終乃 百藥이 無效로 風蘭他界의 悲境을 겪고 만 것이다. ⁶⁶⁾

零下 十五度の 猝寒에서도 나는 煖氣조차없는 아파-트三層의 寢臺에서 起居했고 十里나 가까운 길을 걸어서 社를 出退하여도 속바지하나 안입고 건디어 보려든다. 이것도 젊음의 強氣일까. 건디면 건딜상 싶다. 그렇다고 해서 조금 만치도 내生活의 窮相을 남에게 보이고싶지 않다.⁶⁷⁾

65) 양은경 외, 『문화와 계급 -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동문선, 2002, p.24 참조.

66) 최영수, 風蘭, 『困備의 書』, 덕여서림, 1949, p.57. 최영수는 해방 후 경향신문사 문화부장을 역임하였던 언론인이다.

세간을 팔고 서책을 팔아서도 하루 이틀이요 한 달 두 달이다. 집집이 식구들은 영양불량으로 병이 생기고 아침 저녁 빈혈로 쓰러진다. 낫살이나 먹은 사람들은 그러다가 죽어 버리면 그만이겠지만, 2세니 3세니 하는 어린이들이 오이꼭지처럼 굼아드는 데는 무심히 보아 넘길 수 없다. (중략) 남들이 모두 정치를 한다면 우리 같은 못난이는 그뒤에 앉아 소위 문화니 도깨비니 하는 것을 붙들어 가 보자고, 교단에도 올라 보고 그림 쪽도 그려 보고 글줄도 써 보았으나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산다. 죽을 판 살 판 허덕거리도 야미 쌀 한 말 사려면 허리가 휘청거린다.⁶⁸⁾

작가 최영수는 혹독한 겨울나기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여 문인들의 생활난을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김용준은 현실적인 대책없이 빈곤을 온 몸으로 대하는 문인의 모습을 보여 준다. 작품을 쓰는 창작 활동이 경제활동의 하나로 인식될 때, 문학작품이 생산과 유통의 과정을 거쳐 소비가 되어야 재화가 된다.⁶⁹⁾ 작품을 들고 허덕거리 보아도 돈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은, 작가들의 창작 행위가 최소한 해방공간에서는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더 이상 하위 계급에서 문화나 예술은 관심사가 아니었다. 예술 작품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은 일상에 필요한 가재도구를 구비하는 것과는 다르다. 예술작품을 진정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금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상징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르디외는 ‘구별짓기’에서 경제적 필요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 두기가 가능한 사람만이 예술을 창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조된 예술작품을 이해하고 즐기으로써 진정으로 그것을 전유할 수 있다⁷⁰⁾고 했다. 그러나 당장 생존을 위협하는 가난 앞에서 문화나 예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느끼는 혹심한 추위를 견디며, 작가는 자신의 궁핍함을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았다. 비록 살은 엘 듯이 추운 날씨 속에서 소중한 난을 잃고, 가

67) 최영수, 歲暮記, 앞의 책, p.73.

68) 김용준, 털보, 앞의 책, p.57.

69) 조동일, 앞의 책, pp.183~184.

70) 양은경 외, 앞의 책, pp.96~97 참조.

죽과도 헤어져 지내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꺾이지 지켜나갔다.

이 시기에는 북한으로부터 전력을 송출 받고 있었다. 김일성은 남한에 전기를 계속 송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은 1948년 5월 14일 낮 12시부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동안 남한에 계속 공급해 오던 전기를 일시에 중단해 버린 것이다.⁷¹⁾ 전력 난은 곧 연료 난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장작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모든 연료를 나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시골에서는 나무를 구하기가 서울보다 나은 관계로 가족을 귀향시켰으나, 서울에 남은 작가의 일상은 궁핍하였다.

전국을 휘몰아친 전력 난이 계속 되자, 남의 집으로 가는 전선에서 전기를 훔치는 식의 도둑질이 기승을 부렸다. 이 때의 정황을 오기영은 “산이라는 산마다 모두 새빨갳다. 봄이 되면 그래도 잔디가 돌아나서 그야말로 억지로나마 푸르르나 해가 갈수록 산이라는 산은 점점 새빨개 간다.”⁷²⁾라며 한탄했다. 연료로 쓰기 위해 나무를 베어낸 산의 모습에서 경제난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還進甲을 다넘기신 늙은 어머니를 벌써 三年이나 二層다다미 越冬에서 免케
해들이지 못한 無能이 自嘲해 봐야 소용 없는 일일뿐더러 그러면 煖房裝置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六疊 넓이에 다 큰 사람 넷이 다리를 뻗자
니 煖爐놓을 자리도 없거니와 그보다도 燃料를 당해낼 재주가 없는 것이다.
(중략) 까닭없이 놀기만 하든 兄이 달라붙어 시골서 가져온 세간이 들어차
방은 六疊으로 줄어든 것이다. (중략) 不勞徒食하는 兄이 나에겐 눈에 가시인
것이다. 나는 그의 運命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로 말미암아 집에
들어서기조차 싫은 때가 많다.⁷³⁾

내집 한칸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三八의 死線을 겨우 넘어오신 六
十老母에게 서울서 房한칸을 못얻어 드리고 시골로 가시게한 불효의 죄는 어
이할 것이며 내가 해야할일은 못하면서 분주하다니.....(중략) 요즘 形便으로

71) 강준만, 앞의 책, p.131.

72)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2, p.133.

73) 조○○, 天與의 財物과 惡運, 『문예』, 1949년 12월, p.161.

세간을 팔지않고 살어나갈 수 있는 이들이 奇異하고 부럽다. 나는 도저히 그러한 安定과 幸福을 바랄 수 없는 까닭이다. 紀念반지를 판 것은 이미 옛일이요 이제는 結婚때에 어머니께서 받은 양단周衣한감이 남았으니 이것마저 없다면 그후에는 팔래야 팔물건이없다.⁷⁴⁾

그의 종알거림과 찢어진 신발을가리키는태도는 조고만가삼속에서 진정으로 새어나오는 가장 긴급하고절심한 問題에 대한 呼訴이며 ○○인 것이다. 신을 벗겨보니 果然 바닥이 창이나서 발가락으로 땅을 드릴정도로 해져있다. 父性 愛의 發露라고 할까 가엾고 안타까움이 一瞬間 내가슴을 앞으게찌르는것이였다. (중략) 事實나는 이어린○○의 運動靴所願을 이날처음듣는것이아니라 一週日前부터 들어온것이다.⁷⁵⁾

이제 가난은 생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도 불가능하게 했을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을 위의 작품으로 알 수 있다. 형이 가족이 아닌 하늘이 내린 원수로 여겨질 정도로 가난은 일상을 압박하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양단 옷감 한 감마저 팔아 버리면 남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도 작가 앞에 놓여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가진 것을 모두 내다파는 작가의 주변에는 살림살이를 팔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이 부럽기만 하였다.

40년대 후반에 들어서도 생필품 부족에 따른 물가 폭등이 계속되자 뇌물이나 매수 등을 뜻하는 속어인 ‘사바사바’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가장 심한 영역이 영어 통역이었다.⁷⁶⁾ 지식인들뿐만 아니라 굳이 영어를 배우지 않았던 사람들도 영어를 몇 마디만 하면 통역관의 흥내를 내며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⁷⁷⁾

74) 전희복, 徒勞의 辯, 앞의 책, p.33.

75) 송호생, 거짓말, 조선일보 문화면, 1950년 6월 19일.

76) 강준만, 앞의 책, pp.264~265 참조.

77) 통역의 폐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전까지도 여전하였다. 『조선일보』48년 8월 12일자에 실린 <악질 통역: 건국을 좀먹는 악의 군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밤이 되면 이 집 저 집으로 찻차를 몰고 돌아다니며 뚜쟁이 노릇하기에 분주하여 양쪽에서 몇 푼 안 되는 푼돈이나 얻어먹는 추잡한 통역으로부터 호가호세하여 진주군의 권한을 최대한도로 악용하고 사복을 채우는 통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리 유형을 소개하였다. 강준만, 앞의 책, p.266.

그래서 통역자들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교육받은 지식인들이 대거 몰려들었던 것이다.⁷⁸⁾

그러나 작가는 차마 ‘사바사바’대열에 끼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얻은 안정과 행복은 자신의 것이 아님을 스스로 주지시키고 있었다. 차라리 마지막 남은 옷감 한 벌이라도 팔아서 작가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다. 이후의 빈곤에는 아직 대책이 없었다. 해방 이후 계속된 생필품 부족은 미군 철수에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하면서,⁷⁹⁾ 물품품귀현상은 심각했다. 그리고 끝없는 물가 폭등으로 인하여 발가락이 나와 있는 어린 딸의 신을 제때에 사주지 못하는 작가의 괴로운 심경에서 당대 지식인의 현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런 현실은 대중들에게 끝을 알 수 없는 절망을 안겨 주었고, 그 기회를 틈타 모리배들이 나타났으며, 일부 지식인들에게 직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 가장 순수한 인간적 연대와 애정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절대적인 빈곤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오랜 역사적 전통으로 전해오던 가족의 개념이 유물론적인 가치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문화를 인간 정신 활동의 산물로 보면서도 그 활동을 사회적·물질적 조건과의 연관 속에서⁸⁰⁾ 본다면, 해방공간은 가족과 같은 전통문화의 가치관이 변하는 시기였다. 자신의 경제적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형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전통이 최선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절대빈곤은 가치관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인식도 변화시켰음을 아래의 글에서 알 수 있다.

길거리에서 팔고있는洋絹연等屬장수- 그들을 일컬어 木板장수 라고 한다.
慶尙道 大邱사람으로 어느學校 敎員노릇을 하다가 生活이 안되어 木板장수로

78) 강준만, 앞의 책, p.264.

79) 미하원은 對韓 경제원조 6천 200만 달러 지출안을 1표 차로 부결시켰다. 미국의 원조 순위에서 한국은 서유럽은 물론 중동 국가들보다 하위에 속해 있었다. 강준만, 앞의 책, p.295.

80) 한국 철학사상 연구회, 『문화와 철학』, 동녘, 2001, p.13.

轉向한 사람과 現在 어느 銀行에 勤務하면서 夫人을 시켜서 木板장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⁸¹⁾

40년대 후반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일관되게 한 길을 가는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이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물가는 3년 남짓 동안 33배 이상 올랐고, 대우가 좋다는 교원의 월급이 9천 400원으로 164배가 올랐다고 하나 물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이었다.⁸²⁾ 그나마 대우가 좋다는 교원도 교직으로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좌판을 할 정도로 가난은 지식인을 옥죄고 있었다. 대우가 아닌 서울에 와서 길가에 쪼그리고 앉은 것은 교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모든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질적인 성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양적인 성격에 의한 것이다.⁸³⁾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사회에서는 사회구성원인 개인의 인격이나 가치관이 우선적으로 직업선택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극도로 빈곤한 사회에서, 직업선택의 기준은 이상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위의 작품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작품들은 가난의 양상이 사회계층에 따라 조금씩 달랐으며, 대다수의 대중들이 일상을 지속하기에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작품에서 지식인의 현실인식을 보여 주었다. 작품 속에 나타나는 그들의 생활은 가난으로 인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작가가 처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야기되는 갈등은 당대 사회에서 능동적인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일상을 억누르는 절대빈곤은 전통적인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 끼를 걱정하는 현실 앞에서 가족이라는 혈연적인 공동체의식이 해체되고 개인주의가 싹트고 있었다.

81) 최영수, 自動車와 木板장수와 編輯, 『백민』, 1949년 1월, p.95.

82) 강준만, 앞의 책, p.267 참조.

83) 김덕영, 『논쟁의 역사를 통해 본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4, p.54.

⑤ 난민의 절망적인 삶

해방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환희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러나 한국이 미·소 양국에 의해 분할되어 점령·지배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한국인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⁸⁴⁾ 결국 38선이 그어지면서 한반도는 분할되었고, 북한을 신탁통치 하게 된 소련의 만행을 피하거나, 남한이 고향이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38선을 넘는 과정도 험난했지만, 남한에서의 생활은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현실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삶이 고단한 것은 북한이나 남한이나 별 차이가 없었던 시기에, 이방인으로서 감수해야 했던 그들의 피폐한 삶을 박연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벌써 여러날전에 자리를 잡고 있는 듯 잘해야 먹찌리한장이래도 깔고 그렇지않으면 콩크리트판에 그냥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되는데로 뒹굴고 있다. 기중에는 가족에 빼만싸가지고 숨이있는가를 의심할만치 못되게된 축들이 이루 헤일수가없었다.⁸⁵⁾

연일 내려붓는 장마로인해 갑자기 설사를 이르켜서 똥질만하더니 이지음와선 병으로 지치고말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소위 수용소라구는 하지만 한 천막밑에 열세대나 살고보니, 아이 어른 오십명가까히 들끓른다.⁸⁶⁾

작품에 묘사된 월남 난민의 생활상은 비참하다. 당시 해방과 더불어 새로운 단어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해방, 친일파, 모리배, 사바사바, 토지 개혁, 38선, 전재민⁸⁷⁾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38선은 월남 난민들

84) 고영민, 『정국의 증언 - 어느 혁명가의 수기』, 사계절, 1987, p.31.

이 책은 고영민이라는 공산주의 지식인이 1945년부터 1950년까지 격동의 한국사회에서 겪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증언한 것을 토대로 사계절 출판사에서 펴냈다.

85) 박연희, 앞의 글, p.46.

86) 박연희, 三八線, 『백민』, 1948년 3월, p.24.

87) 해방공간을 연구한 다수의 책들은 월남 난민, 일본이나 북간도에서 귀향한 사람들, 전쟁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통칭하여 전재민으로 부르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들 중 월남 난민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재민이라는 어휘대신 월남 난민으로 표기하였다.

에게 희망의 시작이자 절망의 시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겨주는 이 없는 남한에서의 생활은 죽지 못해 산다는 게 더 옳은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소련군의 만행⁸⁸⁾과 공산주의가 싫어 무작정 왔지만 그들이 머물 곳은 없었다. 남한 정부에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제공한 수용소도 이미 만원을 이루어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수용소에도 못 간 월남 난민들은 빈터만 있으면 모여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구걸로 연명해 나갔다. 월남 난민들의 노숙 생활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였다⁸⁹⁾. 먹거리라도 깔고 앉아 있으면 정말 운이 좋은 것이었다. 실제로 1946년 11월 초의 상황은 노숙을 하는 난민이 약 3800여 명, 주택이 필요한 난민이 10만 세대였다.⁹⁰⁾ 그러나 차가운 기운이 도는 11월을 밖에서 제대로 된 바람막이 하나 없이 지내야 하는 게 그들의 삶이었다. 굶주려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살아 있는 건지 죽은 건지 분간이 안 가는 경우가 허다했음을 작품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 세대가 기거해야 할 수용소의 천막에는 오십여 명이 들끓다 보니 설사는 늘상 있는 일이었다. 이들에게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 남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현실은 그들의 의지나 생활상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월남 난민들에게는 살아나갈 방법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

북한 땅에 친지를 둔 사람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내 식구 겨우 먹고 살기도 힘든 여건 속에서 외의 식구가 자꾸 찾아온다는 것은 무척 곤혹스러운 일이다. 그 결과 친척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한 순간에 서운함으로 변하고, 친척간의 정은 메말라 버렸다. 먼저 와서 운 좋게 자리를 잡은 월남민도 찾아오는 사람들로 곤혹스러운 것은 마찬가지였다.⁹¹⁾ 극심한 가난과 생활대책

88) 소련군은 북한 민중의 공포심과 증오심까지 유발했다. 거지떼 모양의 소련 점령군 일부는 강도와 강간의 길에 나섰다. 아무것도든 빼앗았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병사 개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점령군 조직의 차원에서 북한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착취하기 시작했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 p.55 재인용.

89) 충주에서 영남으로 가는 국도가 지나가는 속칭 용산 다리 밑에 난 약간 도톰한 퇴적지 쪽으로 가마니때기를 깔고 노숙자 가족이 터를 잡았다. 유종호, 앞의 책, p.199.

90) 이병순, 『백민』게재 소설연구, 『해방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1997, p.374.

91) 나만 믿고 친구들이 일곱 명씩이나 고향에서 올 정도였지요. (중략) 그래도 경기가 나쁘니까 여덟 명이 먹을 식량을 벌기도 빠듯했죠. 하루 이틀 굶는 건 보통이었고, 물만 먹으면서 일주일 계속 굶을 때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파란 하늘도 노랗게

이 없는 월남난민은 이미 해방공간의 사회에서 기피와 절망의 상징이었다.

해가 바뀌어도 월남 난민의 수는 늘어만 갔다. 북의 체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당장 입을 옷가지만 들고 남한으로 넘어 왔다. 한국인들에게 고향은 본능과도 같은 것인데, 고향을 버리는 사태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월남 난민의 수가 늘어 난 것은 북한의 공산주의식 통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소련과 북한의 남한 유도 정책의 결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소련군은 공식적으로는 46년 6월 초에 남하금지령을 내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방관했다. 오히려 남하를 막으려고 애쓴 건 미군이었다. 미군 측에서 남하자를 송환하려 해도 소련군 측은 받지 않았다.⁹²⁾ 실제로 김일성은 45년부터 ‘북풍’을 거론했으며, 이는 남하자를 통하여 ‘북풍’을 남한에 불어넣어 38선을 없애겠다는 구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의 의도와는 달리 남하자들이 북한에 대하여 나쁘게 말함으로써 반공의식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⁹³⁾

월남 난민들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주로 의식주의 문제였다. 이 시기 월남 난민들의 문제는 귀향과 실향의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있었다. 귀향은 희망과 이상이었지만, 실향은 좌절과 현실이었다. 그러나 계속 되는 난민의 유입은 남한의 물가폭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으며, 식량 부족에도 압박을 가했다.

이상 해방공간에 나타나는 불안과 빈곤의 문제들을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정책의 혼돈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은 불안하고 빈곤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국민의 생활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권창출에 주력한 이승만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었으며, 미군정의 정책은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수필에는 이런 불신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묘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여덟 명이 대낮이 되어도 방에서 나오지 않고 이불 속에 눈만 말뚱말뚱 뜬 채 누워 있었어요. 먹지 못해 기운이 없으니 에너지 소모라도 줄이자는 생각으로 말이죠. 신동현, 만화가 언론 자유의 선봉이 되다, 『8·15의 기억 - 해방공간의 풍경, 40인의 역사체험』, 한길사, 2005, p.123.

신동현은 1927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다. 해방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월남하였다. 미군들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려 생활비를 벌면서 고학하던 중 ‘코주부’의 김용환 선생을 만나 만화가로 데뷔하였다. 한국 최초의 장편 만화영화 『홍길동』을 제작하였다.

92) 강준만, 앞의 책, p.61 재인용.

93) 강준만, 앞의 책, p.61 참조.

사되어 있었다.

지속되는 빈곤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국민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먼저 전통적인 가족관이 해체되고, 형제애가 물질적 가치추구에 밀려나고 있었다. 살을 에이는 추위에도 내의 없이 견뎌야 하는 절대빈곤과 단칸방에서 어머니, 누이, 형과 함께 새우잠을 자야하는 불편한 생활은 급기야 형을 하늘이 내려준 약재로 여기에 되었다. 그리고 일명 ‘사바사바’로 불리는 모리배들의 전횡이 공공연하였으며, 생존의 본능에 밀려 직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게다가 남한으로 끝없이 내려오는 월남 난민들은 그들의 생활도 피폐했지만, 갑작스런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남한 내의 생필품 품귀현상을 불러왔다. 희망을 안고 남한으로 내려온 그들에게 정부의 실질적인 구호혜택은 없었다, 이러한 난민들의 참담한 생활은 동정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질 수 없는 해방공간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수필을 통하여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작품에서 해방이나 월남이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적 상황도 엿 볼 수 있었다. 작품 어디에도 현실을 극복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희망적 전망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당대의 현실이 작가로 하여금 깊이 있게 현상을 고찰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줄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본다.

2) 교육의 허와 실

일제 36년 동안 행해졌던 교육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일제의 의도대로 황국신민화의 길을 걸었었다.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에 의해 학교에서의 우리말과 우리글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었다. 해방이 되어도 교육의 현실은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데올로기의 논리가 전면에서 떠오르면서 다른 분야보다도 교육은 더욱 더 현실과 괴리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이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었기에, 해방정국에서는 대중의 지지를 받는 독립운동권의 집단보다 미군정과 제휴한 정치집단이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그 결과 서로가 권력 투쟁에 열중한 나머지 교육과 문화 전반에 대한 인

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남한 단독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앞두고, 남한을 신탁통치하는 미군정과 이해 관계에 얽힌 여러 정당이나 단체에서 교육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의식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교육하였을 때, 그들의 권력유지와 권력정당성은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47년 6월 11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공동성명 11호⁹⁴⁾를 발표하고 남·북한에 있는 여러 단체들의 자문을 구하기 시작하며 교육안이 명문화되고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기본 토대로 유치원교육,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교사의 자질, 문맹의 퇴치라는 소주제 하에 수필을 분석하여 민중이 가지고 있던 교육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기독교 선교 중심의 획일적인 유아교육

미군정 하의 교육과정안에는 유아원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해방공간에서는 실제로 유아원이 있었음을 수필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정규적인 교육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유아원에서의 유아교육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園兒 하나를 園에서 미움받지 않고 다니게 해주려면 집에서 거두어 주는 保姆 한 사람이 必要할만큼 수다스럽고 費用도 夥大하다. 집안이 뒤숭숭하게 아침 두어 時間 서둘러서 꼬까옷 입혀서 幼兒園에 보내면 한 時間도 못 되어서 돌아오는 날도 많다. 두어 줄 적어 준 것을 외어오라는 날은 어머니는 꿈 짝 못하고 붙어 앉아 있게 된다.⁹⁵⁾

大體 幼兒園이란 發育이 한참인(작난이 심한)小學校 入學 前 二年 可量 家庭

94) 11호 공동 성명에 들어 있는 공동 결의 6호의 '사'항에 교육안이 채택되어 있다. 이 교육안에는 성년층의 문맹퇴치, 초등의무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심지연, 해방후 중요 정치집단의 교육·문화정책, 김윤식 외, 『해방공간의 문학과 문화의 현실인식』, 한울, 1988, p.35.

95) 마해송, 유아원의 위기, 『편편상』, 사회와 인생, 1949, p.1.

의 손을 덜어 주고, 家庭 各各의 獨善的 保育으로부터 人民的인 健全한 肉體와 情緒의 保育을 위하여 社會가 맡아서 自由롭게 놀게 해주는 兒童 公園 遊戲室 託兒所의 役割을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敎會의 附屬으로 始作된 곳이 많아서 幼年 主日學校의 延長같은 곳이 많았고 그렇지 않으면 넉넉한 집에서 옷자랑 겸 재롱 배워 오는 것을 보노라고 보내었다.⁹⁶⁾

작난이란 곳 生活이요 알고자 하는 本能이요 模倣하며 創造하고자 하는 知能의 發露이니, 이것을 充分히 돌아 주어야 하겠거늘 오히려 누르고 그 뿌리조차 없이하려 드는- 個性의 發展을 무시하고 一律的인 무기력하고 얽전한 아이를 맨글려는 것이 오늘의 幼兒園인 까닭이다.⁹⁷⁾

먼저 작가 마해송은 아이를 유아원에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아원의 기능은 한참 자라는 아동에게 사회성을 길러주고 부모의 품을 떠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 보는 데에 있다. 그러나 유아원을 보내기 위하여 두어 시간을 매달려 아이를 치장하고, 그 아이는 옷자랑을 위하여 유아원에 간다. 이러한 현실을 작가는 유아원을 일부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모만이 보낼 수 있는 제한된 교육으로 보고 있다. 또, 유아원에 간 지 한 시간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혼란스러운 사회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겠지만, 유아원의 교육과정이 완전한 교육안에 의하여 운영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아직 한글을 다 배우지 못한 유아들에게 읽고 외어 오라는 숙제가 있었다는 것도 유아원의 교육이 어느 정도는 강제적인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작가는 유아원의 이러한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 잘못된 교육정책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개성을 잃어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 나타나는 학령전기의 기독교적인 교육에 의한 개성상실을 제대로 된 유아교육 전문가가 없으므로 생기는 부작용으로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방공간에서의 교육은 유아원에서부터 미래를 위한 교육보다 현

96) 마해송, 위의 글, p.2.

97) 마해송, 위의 글, p.2.

제의 실리를 취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워 교육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것과도 연관성이 있다. 그 결과 창의성이 사라지고 성취동기를 느끼지 못하는 아동으로 양성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유아원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이 아니라, 일부 목적을 지닌 단체에 의해 먼저 운영된 데에 있다. 이제 겨우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며 어린 아이를 유아원에 보낸다는 것은 일부 계층 외에는 불가능한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현실을 무시한 유아원의 교육이 실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와 관계가 있었다. 기독교는 구한말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교 방법 중의 하나로 유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930년대 말부터 1943년까지 기독교 산하 유아원은 전국적으로 119개소에 달했다. 그러나 1943년 이후 일제의 극심한 기독교 탄압으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해방이 되자 교단 자체의 정화운동에 힘입어 다시 유아 교육이 활성화되었다.⁹⁸⁾

유아교육의 활성화에는 기독교 내의 교단 정화와 함께 미군정 하의 교육정책을 담당했던 ‘조선교육위원회’ 구성원 11명 중에 기독교인이 6명이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나머지 구성원 5명이 무교인 점을 감안한다면, 해방공간에서의 기독교 산하 유아원이 교육안에 없었는데도 운영된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가 말아서 놀이를 통한 건강과 유희를 통한 정서 함양의 장이 되어야 할 유아원이 교회의 부속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면서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교육이 행해지게 된 것이다.

마해송은 자신의 수필에서 유아교육에 관심을 보이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幼稚園의 危機- 그 責任은 幼稚園 當事者들에게 있다. 또 이런 問題에 無關心한 社會에도 있다.그러면 打開策은 - 商業的이 아니고 政略的이 아닌 幼稚園 研究 協議機關이 생겨서 새로운 시대의 保育 方針의 共同 研究, 交換, 材

98) 이만열, 한국 개신교사, www.naver.com, p.5.

料의 廣範圍한 募集과 頒布 등으로 全國의 幼兒園이 같은 步調로 우리 나라 사람 生活의 必需品이 되도록 向上시키어야 할 것이다.⁹⁹⁾

작가는 유아원이 지닌 문제들의 원인을 한 개인이나 하나의 단체보다 사회 전체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유아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리목적이거나 상업적인 도구가 아닌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유아 교육의 당위성을 펼치며, 그 방법까지 제시한다. 이는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며, 그 교육의 시작은 유아부터 해야한다는 선구자적인 문제의식의 발로이기도 하다.

교회라 함은 일반적으로 가진 자보다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곳이다. 그런데 해방공간에서의 교회는 부유한 아이들이나 자신의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의 연장선상에서 유아교육을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원을 가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녀야 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니기 위해서는 유아들에게 일정한 교리교육이나 단순 반복적인 지식을 주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좋은 의미에서 시행되어야 할 유아교육은 많은 돈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 교육이 되었다. 또, 원래의 교육적 목적이 아닌 유아원 설립의 목적에 따라 개성이 무시되고, 일률적인 사고를 지니도록 교육하는 형태가 되었다.

유아교육이 이런 양상을 띠게 된 이유는 교육이 정치권의 관심밖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각 정당 · 사회 단체는 이합집산을 반복하면서 정치권력의 장악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다.¹⁰⁰⁾ ‘조선교육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었지만, 유아 교육에는 관심이 미치지 못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와 같은 단체에서라도 유아교육이 이루어졌음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교육적인 사명보다는 교회의 이익에 앞서 유아교육이 시행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간단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아원이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해방공간에서 개신교의 힘이 컸기 때문이다. 미

99) 마해송, 앞의 글, p.3.

100) 심지연, 해방 후 중요집단의 교육 · 문화정책, 김윤식 외, 앞의 책, 한울, 1988년, p.33.

군정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시기에 그들과 대화가 가능한 ‘통역’이란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통역정치’의 다른 한쪽엔 ‘기독교 정치’, 특히 ‘개신교 정치’가 있었다. 미군정 치하에서 우대를 받고 미국인들에게 접근하는 데엔 영어 다음으로 개신교가 유리했다는 뜻이다.¹⁰¹⁾ 이는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미국을 다녀오거나 그 곳에서 공부하여 미군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김구, 김규식 등 정부의 중요 인물들의 신앙이 모두 개신교였다는 이유로 일반 대중들에게 교회는 좋은 이미지를 주었다. 그 결과 교회 부설 유아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아교육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못했다.

이상으로 해방공간에 있어서의 유아교육문제의 한 부분을 수필문학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유아교육의 문제는 빈부격차와 교육정책의 부재에 있었다. 유아교육이 사회복지 차원이 아니라 교회의 선교목적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만 아이를 유아원에 보낼 수 있었다. 힘겹게 살아가던 일반 가정에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유아원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다. 교회에서조차 존재하는 빈부격차에서 당대 민중의 삶이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부재로 인한 유아원 교육의 실태를 알 수 있었다. 수필에 나타난 유아교육은 유아기 어린이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 과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작가는 그 결과 유아의 창의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던 유아원의 운영이 교회를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교육 자체의 목적보다 선교목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유아원의 교육은 유희를 통하여 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해방공간에서는 아직 문자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린이에게 주입식의 암기 교육과 일부 계층의 과시욕의 일환으로 유아원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② 일관성 없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101)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2, 인물과 사상사, 2004년, p.269.

미군정과 임시정부는 초등교육의 의무화를 공동성명의 일부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초등학교의 수가 전체 해당연령의 학동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의무교육이라는 안 자체가 비현실적이었다. 해방공간에서는 호적이 없는 사람도 다수였으며, 북에서 넘어 온 난민 가정과 일본·만주 등지에서 귀향한 가정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昨年 九月에 樓上洞서 明倫洞으로 移徙를 하면서 梅洞學校 三年에 在學中인 딸아이를 退學을 식혔드니 于今八個月리 지내도록 轉學을 못한채로 놓고만 있다. 가장 가차운 惠化학교를 차저가서 轉學을 원하니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昌慶學校로 가보란 것이다. 昌慶學校로 찾아가니 역시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孝悌학교로 가보란 것이다. 이렇게 學校만 좇아 다니다간 결국 退學手續을 한 梅洞校까지 巡禮를 할판이라 다시금 제일 가차운 惠化和 慶昌을 번갈아 다니며 사정 사정 해도 결국은 자리가 없다고 되스짜만 마즈니 (중략) 中學校나 大學은 新設도 많은데 國民學校新設하는 사람은 꿈에도 볼 수 없으니 이진 中大 學보다 權威가 없다는것인가, 배울 사람이 없다는것인가. 또 아니면 요새 流行語처럼 된 學園謨利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越南同胞와 시골서 移徙온 部類에 未就學 兒童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렇다고 入學責任까지는 안저도 좋으니 當局에서는 數조나 한번 조사해 볼必要가 있지 않을까.¹⁰²⁾

최인옥은 자신의 수필에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전학을 시켜야 하는데, 갈 학교가 없어 8개월 째 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에는 학교가 부족하여 전학을 하는 경우에 집 근처의 학교로 즉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는 의무교육화의 기치가 올려진 지 3년이 지나가고 해방된 지 5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초등학교 수가 여전히 부족했음을 말해 준다.

한 도시에서 계속 살면서도 이사를 했다는 이유로 아이가 8개월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게 이 시기 초등교육의 문제였다. 그러므로 시골에서 이사 오

102) 최인옥, GOSSIP 程度, 『백민』 5권 3호, 1949년 6월, p.165.

거나 월남한 가정의 아동에게 초등 교육은 비현실적인 이상일 뿐이었다. 그것은 시골에서 먹고살기 힘들어 막연한 기대감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이주민과 북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월남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은 시도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민들에게는 황국신민화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던 일제 강점기 때에 비하여 외형적인 교육 여건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었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는 또 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 입학 정원에 비해 졸업생 수가 터무니없이 적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朝鮮에는 中學校의 좁은 間을 各 新聞이 大書 特書하고 있다. ‘10 배 突破의 競爭’이란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다. 中學까지를 國民의 義務教育으로 制○한 國家는 많다. 義務教育이란, 國民의 義務인 同時에 國家의 義務이기도 한 것이다. 이번에 入學하지 못한 數萬 名의 小學 卒業生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民族의 關心이 아닐 수 없다. (중략)

그러나 이상한 일은 어느 中學을 勿論하고 上級學年에 있어서 學生이 定員에 차지 못 하는 事實 이다. 어떤 學校는 六十 명 定員의 五 學年 教室에 四 五 名이 出席하는 일도 있고, 在籍生은 十 餘 명이나 출석생은 단 한 명인 날도 있다 한다. (중략) 現在의 五 六 學年 教室의 統計를 보아 이미 發布한 學制이지만 그것을 經驗으로서 修正하여 五 六 學年을 廢止하고, 新 入學生을 增募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3)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때, 많은 학생이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그런데 입학 때와는 달리 상급학년으로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한 교실에 사오 명이 출석하는 일도 있었다. 중학교 입학 경쟁이 평균 10대 1이었다니, 해방공간에서의 교육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어려운 현실을 탈피하는 방법으로 교육에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힘겨운 상황에서도 교육에 대한 끈만은 놓고 싶어하지 않았던 당대 대중의 열

103) 마해송, 中學生의 過不足, 앞의 책, pp.20~21.

망을 대변하는 경쟁률이 아닐 수 없다.

위의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문제 중 눈에 띄는 것은 교육의 내용보다 학생 수에 관한 것이다. 유아원과 달리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에 원인이 있었다. 정부차원에서 교육대상 아동들의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된 상황이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 글이 씌어진 1949년에는 역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친일파를 옹호하는 이승만과 반민특위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으며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었다. 이런 정국 하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가 몇 개이며 학생을 몇 명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본다.

그리고 초등의무교육이 오히려 초등교육의 공동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가에서 지속적인 학교 신설이 어려운 사정인 관계로 개인이나 단체에 학교 신설의 기회가 많았다.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받아야 하는 바, 개인이나 단체의 입장에서 초등학교보다 중학교나 대학의 신설에 더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학교가 이익을 먼저 따지는 장사라기보다 국가의 지원이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 온 중학교를 중도 포기한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학제가 6년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한 생활에서 6년 동안의 학업 뒷바라지를 보통 가정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중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닌 관계로 모든 것에 자비가 들어가야 하는 교육과정이었다. 일부 계층 외에 보통의 서민 가정에서 6년 동안 납부금을 부으며, 책을 사 주어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환경을 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스스로 학비를 번다고 해도 나라의 경제 제반 여건이 부실한 상황에서는 그것도 여의치 못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6년이라는 세월은 학생과 학부모를 지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작가 마해송은 작품 中學生의 過不足 에서 학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한번 발포된 국가정책이지만 효용적인 측면에서 수정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이 없는 오류 학년은 폐지하고, 그 수만큼 신입생을 더 모집한다면 초등학교 졸업생의 많은 수가 중학교에 입학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 의견은 실용성이 없어 보인다. 이 글이 창작된 1947년은 소용돌이 직전의 정국이었다. 여운형이 암살당했으며 극우 우익 청년 단체들에 의해 자행되는 테러에 중간파와 좌익 인사들은 ‘테러 공포증’에 시달려야 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절대 다수가 우익이었던 이 시기의 권력층에서 자신들의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좌익의 안으로 개선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¹⁰⁴⁾

위의 작품들을 살펴 본 결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문제는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정책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인하여 교육의 초기과정인 초등학교의 수가 부족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였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에서부터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 중등교육은 비실용적인 학제와 경제여건으로 학생수가 부족하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교육을 받고 싶지만 기회가 없거나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다수 서민의 안타까움을 작품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작가들은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교육의 문제를 제기하며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③ 교사의 자질 문제

해방공간의 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교사의 자질에도 문제가 있었다. 교사와 학생, 교재라는 교육의 삼요소를 생각해 볼 때, 교사의 자질은 교육현장에서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104) 미·소 공위가 제시한 교육안 중에서 중등교육제를 놓고 우익과 중도 진영이 3년제의 중등교육제를 주장하고 좌익 진영은 4년제를 주장했다. 심지연, 앞의 글 참조. 이 때의 중등 과정은 초급중등과 고급 중등으로 교육의 차이는 두되 6년 간에 모두 마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과정안을 제시하고 관철시킨 조선교육위원회는 대표적인 친미군정파였으며, 반대한 단체는 거의가 미군정에 반대했거나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들 반대파는 대체로 좌익계열의 교육정책안을 지지했다. 한준상, 미국의 문화침투와 한국교육, 『해방전후사의 인식』3, 박현채 외, 한길사, 1995, pp.552~553 참조.

某中學校 先生이 國語를 가르키면서 詩人 故 金素月을 黃眞伊와 同時代의 妓生이라고 하셨다니 黃眞伊가 妓生인줄을 안 것은 至極多幸이지만 素月까지 妓生으로 돌리는데는 웃고만 말일이 아니다. 요새 文化當局의 特案으로 敎職員의 肅清工作이 着着 進行이라니 이는 時宜에 가장 適合한 일이라 하겠으나, 思想問題를 標榜하고 속으로는 私感에 치우쳐 멸장한 사람病身 만들어 내모는 일 없어야 할 것이며, 또 既往 肅清하는김엔 思想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제아무리 愛國者라도 人格이 없는 영터리라면 마땅이 此際에 한목 肅清해야 할 것이다.¹⁰⁵⁾

大體 어째서 小學校 兒童에게 學校 掃除를 시키냐는 것이다. 初級 七, 八 歲 어린이들이 冊床 밑을 掃除하고 걸레질하고 琉璃窓을 닦고 便所를 掃除하고 運動場을 掃除하기, 一 週日에 두 번은 한다. (중략) 發育에 不可缺이라는 肉類와 生鮮과 新鮮한 菜蔬는 한달에 한 번 주기가 어렵고, 가난한 配給 生活에서만 자라난 지방 어린이들이 四五時間 工夫하고 宿題를 가지고 오고, 그 지독한 塵埃 속에서 한 時間 以上을 呼吸시키는 것이 試鍊이라고 하면 너무나 지나친 試鍊이 아닐까?¹⁰⁶⁾

위의 글에 제시된 문제는 당대 주요시인조차 알지 못하는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점이다. 그 예로 중학교 국어 시간에 시인 김소월이 기생으로 둔갑한 것에 작가는 우려를 금하지 못한다. 혼자 잘못 아는 것은 자신만의 문제이지만,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적용된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그 교사에게서 배우는 수많은 아이들은 대대손손 잘못된 지식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해방공간에서 교사를 새로 양성하여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제 시대 때부터 교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다. 나이 든 교사가 아니라면 그 교사의 배움이 일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¹⁰⁷⁾ 우리의 문학이나 역사가 제대로 교육되었을 리는 없다.

105) 최인옥, 앞의 글, p.167.

106) 마해송, 小學生과 掃除, 앞의 책, pp.6~7.

107) 중등교원은 양성소를 통하여 약식훈련을 시킨 뒤 교육일선에 충당하거나 일제

그리고 연령이나 어린이가 실제 처한 상황을 배려하지 못하는 교사의 주의력 부족도 작가는 개탄하고 있다.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청소를 도울 형편이 안 되니 학생들이 청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은 청소의 정도에 있다. 화장실이나 운동장 청소는 7~8세 어린이에게는 힘겨운 일이다. 선생님이 도와서 청소를 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어린 학생들만의 힘으로 선생님의 눈에 들 때까지 청소를 한다는 것은 교사의 인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점이다. 제대로 못 먹어 허기진 상태에서 몇 시간을 공부하고, 다시 먼지 속에서 한 시간 이상 청소를 해야 하는 아이에 대한 배려심이 교사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1948년 10월에 구성된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는 관계법과 조직을 정비하여 1949년 1월 5일 중앙청에 사무실을 차리고 반민족 행위자들의 친일행적 조사와 이들에 대한 검거 작업에 착수하였다.¹⁰⁸⁾ 그러나 반민특위 인사들은 우익 단체에 의해 좌익으로 몰려 숙청의 대상이 되었다. 이때 정국을 몰아치던 숙청의 물결이 학교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결과 학교에는 교사 수가 부족하였으며, 임시방편으로 자격이 미달¹⁰⁹⁾인 사람들이 교육과정

시대의 교사들을 재교육하여 상급학교 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이광호, 앞의 글, p.508. 김창흠 선생은 해방 전부터 남산학교에 근무하고 있었고 창씨 성은 도요야 마였다. 유종호, 『나의 해방 전후』, 민음사, 2004, p.158. 해방직후의 교단은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임용하기에는 많은 수의 교사가 부족하였다. 그 결과 임시처방으로 3개월의 양성소 훈련을 마치면 전공불문하고 중등교사로 임용하였다. 그리고 일제 때에 창씨 개명이 앞장섰던 일부 친일 성향의 교사들도 한국이름을 사용하여 일제 때와는 다른 학교로 발령을 받기도 했다.

108) 강준만, 앞의 책, p.213.

109) 사실 해방이 되었을 때 학교선생님들 가운데 사범교육 받은 사람은 얼마 없었어요. 대개 일본이나 만주의 전기학교·기계학교·음악학교에 다니던 사람들이 와서 가르쳤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글을 몰랐어요. 일제 시대에 배운 적도 없고 쓴 적도 없고, 쓸 일도 없었으니까요. 정재도, 선생님요, 표준말 좀 가르쳐주이소, 『8·15의 기억』, 한길사, 2005, p.143. 정재도는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났다. 광주 사범학교 심상과를 졸업하고 울산과 해남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정기자로 활동했으며, 한글학회 사전 편찬을 비롯하여 교과서 심의위원 등 한글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1946년 4월에 학무국은 13개 대학에 설치된 중등교사양성소를 통해 18 개월 동안에 약 2천 명에 달하는 중등교사를 단지 한두 과목을 교육시킴으로써 양성해 내었다. 이광호, 미군정의 교육정책,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96, p.508.

을 수행하게 되었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그래서 작가 최인옥은 사상적 숙청으로 무조건 교사를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격 미달인 교사를 교직에서 제명해 주기를 원한다. 그것은 교육에 있어서 제도나 환경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자질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만큼 오랜 시간과 공이 드는 일은 없다. 또,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수만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정서 함양에도 힘써야 하고, 연령에 맞는 교육적인 환경도 조성해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 단순한 지식전수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품성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방공간의 교사에게 가장 필요했던 자질은 실력과 인성이었다. 교육을 지식의 획득이라는 기본적인 역할에서 볼 때 학생에게 교사의 실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학생에게 정확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했던 이유는 해방공간에서 행해진 교육이 무계획적이었다는 데에 있다. 갑자기 찾아 온 해방이라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리고 미군정은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 정책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 교육의 일선에서는 식민지 하에서 교직을 수행하였던 교사들이 교단에 잔류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정이 그러했으므로 실력과 인성을 갖춘 교사들에 의한 교육은 요원할 수밖에 없었다.

④ 문맹 퇴치의 방법과 문제

해방공간에서의 문맹률은 전 국민의 7할을 넘나들고 있었다¹¹⁰⁾. 문맹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일제의 교육이 일본어 위주였으며, 조선인에게 독립의 싹이 트는 것을 염려하여 한글 교육을 금지한 일본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해방이 되자 국민의 문맹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해결책의 하나로 미군정은 조선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폐지시키고, 한

110) 미·소 공동위원회의 교육 안에 대하여 각 항마다 우익과 좌익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나 문맹퇴치에 있어서만은 한 목소리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심지연, 앞의 글, p.37.

글교육을 의무화 시켰다.¹¹¹⁾

그러나 한자폐지 및 한글교육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小學生은 小學生대로 집에 있는 新聞, 雜誌, 單行本을 가로만 읽으려고 하니 이것 역시 말성이다. 漢字를 廢止하자는 主張이나 意見은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中學을 마친 사람이 新聞도 읽지 못하고 知識人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文盲이 틀림없는 것이다. (중략) 新聞도 못 읽는대서야 世上 돌아가는 것(세계의 움직임)을 어떻게 理解할 수가 있을 것인가. 學校에서 가르키지 않으면 자연히 漢字 廢止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일이고, 漢字같은 것은 家庭에서 가리키라는 생각이면, 심술궂은 일이다. 朝鮮 사람을 무식하게 만들고 文盲을 養成하는 결과 밖에 안 될 것이다.¹¹²⁾

우리나라에서 『工夫한 文盲』을 퇴치하기에는 二千 字 內外의 常用 漢字를 制定하여, 이것만은 小學 六年 동안에 충분히 解得하게 하는 것이 捷徑일 것이다. 新聞이나 雜誌도 이것을 ○행하게 되면 印刷機術上으로 보아도 상당한 能率 增進과 經費 縮減을 볼 수 있을 것이다.¹¹³⁾

위의 글에 나타나는 문제는 한글교육의무화가 오히려 국민의 문맹을 양성시킨다는 점이다. 한자를 폐지하는 것은 좋으나, 신문을 읽지 못한다면 지식인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때의 언론 매체 대부분이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여기서의 문맹은 단순히 글을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을 얻기 위해 필요한 한자를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자 없이 한글만으로는 지식습득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해방공간의 교실에서는 한글만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유종호는 『나의 해방 전후』에서, “1942년부터 총독부에서 아예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배우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취학 전 집에서 천자문을 배웠다. 그 결과 글자는 한자만 알고 한글을 알지 못했고, 그런 사정은 그 시기의 학

111) 한준상, 앞의 글, p.577 참조.

112) 마해송, 文盲의 養成, 앞의 책, p.17.

113) 마해송, 常用漢字, 앞의 책, p.18.

생들이 누구나 겪는 일”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일제 36년 간 한글이 발전하지 못했으며, 일제 말기의 ‘조선어말살정책’으로 한글교육이 제도적으로 차단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글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기보다는, 당장 한글의 대중화가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해방정국의 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빠른 지식습득이 절실한 만큼 한자를 공부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자 교육의 방법으로 작가는 난립된 한자를 정리한 상용한자 제정을 제시하고 있다. 2000자 내외의 상용한자를 제정하여 소학교에서 가르친다면, 국민 대다수가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는 이 글이 쓰여진 1947년에 한자든 한글이든 문자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며, 해방정국의 일각에서는 한자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당대의 상황을 살펴보면 문맹퇴치에 있어서 각 정당이나 단체에 따라 견해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⁴⁾ 이 글에서는 지식의 습득 여부로 문맹을 말하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한글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북조선로동당’에서 문맹퇴치를 위해 한글학교·성인학교·성인중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가 말하는 한문 교육의 필요성은 일반적인 문맹퇴치 방법이 아닌, 지식인의 자질향상의 방법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단체와 정부가 겹쳐서 한 목소리를 내었으나, 내면으로는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교육을 이용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문맹퇴치의 구호는 하나였으나 그 이면의 목적은 정당이나 단체의 이익에 따라 달랐다. 그 이유는 많은 이견을 정부가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에게 적절한 안을 만들어 제시하기보다는 미군정의 의견에 수동적으로 따랐기 때문이

114)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는 문맹퇴치의 목적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성인 및 적령초과 아동에게 단기간 계몽교육을 실시하여 공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남조선로동당은 전 국민의 문맹율이 7할 이상이나 되므로 사회단체가 협조하여 생산활동과 결부 지어 교육할 것을 주장했다. 북조선로동당은 교육의 내용을 우수한 인민적 자질 향상에 두었다. 이는 문맹퇴치에는 좌익과 우익이 목소리를 같이 하고 있으나, 그 목적은 자신들의 이념전파에 있었음을 입증한다. 심지연, 앞의 글, pp.35~36.

다. 그 결과 한자는 알지만 한글을 모르는 사람도 문맹, 한글은 알지만 한자를 모르는 사람도 문맹이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필 작품을 통하여 해방공간의 교육문제를 유아원·초등학교·중등학교 및 교사의 자질과 문맹이라는 주제로 연구해 보았다. 이 시기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는, 미군정 주도 하에 교육정책이 시행되면서 해방공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개인의 창의성이 사라지고 다수의 국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던 것이다. 그 결과 교육은 학생위주로 시행되지 못했고, 잘못된 지식을 배워도 검증할 방법이 없었다. 이는 교육의 주체가 우리 국민이 되지 못하고, 교육환경에 우리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수필의 주제로 쓰였다는 것에서 수필가들의 현실인식이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일제 때와는 다른 문화의 양상

미군의 주둔과 함께 이른바 ‘양키이즘’이 유입되고 환영받으면서 ‘문화의 독’도 서서히 터져 나갔다.¹¹⁵⁾ 커다란 변혁의 혼란 속에서 구질서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가장 먼저 해방공간에서 부유층의 일상을 파고든 것은 ‘춤바람’이었으나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해방과 더불어 서양의 문물, 생활양식, 의상 등을 가장 먼저 수용한 계층은 미군 상대의 접객업소 여성들이었으나, 기존의 질서에 반항하는 이미지로 대중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대중 문화에 변화의 바람이 불자 미군고위층을 접대하는 요정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낙랑클럽’¹¹⁶⁾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사교모임이 미국과

115) 강준만, 앞의 책, p.164.

116) ‘낙랑클럽’은 미군들에게 한국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교모임이다. 멤버는 일제 시대에 외국 유학을 갔다 올 정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잘 살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그런 집안의 부인들을 규합하여 모운숙씨가 만들었다. 미혼은 없었으며, 춤도 출 수 있고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인으로 용모도 아름다워야 했다. 서울에서만 100여 명이 순식간에 모였으며, 주로 미군들의 파티에 가서 함께 춤도 추고 대화도 나누며, 미군들에게 한국인에게도 교양 있는 사람

한국의 관계를 가까이 하는 데에 공헌했을 정도로 서양의 문물은 해방정국에 밀려왔다. 그러나 수필 작품은 일부 특권계층의 삶을 드러내는 것보다 대중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많았다. 본 장에서는 기독교와 다방, 만화 그리고 여성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일제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문화를 분석하여, 당대 대중이 지니고 있던 문화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특권의식의 발로 - 기독교

영어능력이 우대 받던 해방정국에서 개신교는 정치, 사회적으로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많았으며, 해방정국의 고위층에 개신교 신자가 많았던 것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1945년 10월 5일 미군정이 임명한 11명의 행정고문 중에서 목사 3명을 포함한 6명(55%)이 개신교 신자였다. 46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군정청에 의해 임명된 군정 각 부처의 초대 한국인 국장 13명 가운데 7명(54%)이 개신교 신자였으며, 이들 전원이 미국유학 출신자였다.¹¹⁷⁾ 그리고 임정요인에 기독교 신자가 많다고 하여 일반 대중 사이에선 ‘너도나도 예배당을 찾는’ 일까지 벌어졌다.¹¹⁸⁾

이처럼 신앙의 본질도 모른 채 개신교가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대중의 모습을 아래의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때 電車에서 곧 내린 어떤 老人이 작은 트렁크를 들고 뛰어오드니 不問코 앞으로 가서 쓴다. 곧 뒤에서 악을치며 야단이 났다. 여부-차레로 스시오. 그래도 안들으니까 앞사람들이 모여드러 뒤로 가라고 하는데 米兵이 그제야 보고 갓가이 온다. 米兵은 눈을 부라리며 손짓을 하며 뒤를 가르친다. 그러나 老人은 米兵을 싱글-우스며 호주머니에 손을 너트니 무슨 카-드를 내여 본다. 곧 米兵은 크리스트 아렸오 하며 老人을 잡어 제치며 뒤로가라고

이 많다는 걸 알렸다. 진숙희, 낙랑클럽이 한국을 알렸어요, 『8·15의 기억』, p.111.

117) 강준만, 앞의 책, pp.269~270 재인용.

118) 강준만, 앞의 책, p.270 재인용.

큰소리를 낸다. 老人인 하는수없이 물어나스며 십자가를 거린 카드를 흔들며 나는 예수를 믿소. 바쁜 사람이오 했다.¹¹⁹⁾

聖書의 참뜻을 널리 大衆에게 알리기 爲해서는 정말 좋은 翻譯-原文의 아름다운 文章과 깊은 뜻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名譯이 나와야만 우리나라에서도 聖書가 萬사람에게 읽히게 될 것이다. ‘구약전서’ ‘신약전서’式의 從來의 國譯 聖書を 가지고서는 無識한 老人이나 婦女子들에게 理解가 안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冊을 읽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까지 興味를 주지 못하고 말 것이다.¹²⁰⁾

그러나 生命없는 宗教生活은 虛偽로써 꾸며진 疑心性이 있기 때문에 徹底한 信仰心이 發露되지않고 原則的인 修道生活이 될 수 없으리라고 본다. (중략) 또 宗教人은 國家가 悲運에 빠졌거나 統一性を 잃었을때 일수록 가장 값 비싼 指標가되어 自己權利主張으로 萬民을 不幸에 빠뜨리는 宣傳에 속지않는 굳은 信念을 가지고 或은 豫言者로 또는 民族魂을 불리일으키는 先驅者의地位에 놓여질수도 있는 것이다. (중략) 우리 마땅히 神께祈願하여 正常的인 修道生活을 恢復시킴과 同時에 人間으로 가장 아름다운 靈的的使命을 가진 完 全한 社會를 造成할수있는 源泉인 宗教生活로 引導하여 不變의 眞理를 探究하고 人間의 옳은 道理를 지키지 않아서는 안될것이다.¹²¹⁾

노인은 교회에서 통용되는 신자증이 일상에서도 통하는 줄 알고 있다. 당시 민중들 사이에선 최고 권력층과 온 국민이 존경하던 김구마저 개신교 신자임이 알려지면서, 개신교는 일종의 특권처럼 여겨졌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표를 사는 청량리역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새치기를 하는 노인의 모습에서 이를 알 수 있다. 노인은 새치기의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카드를 제시하지만, 미군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카드는 개신교 신자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지만, 개신교를 이제 막 접한 노인에게는 특권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이다.

개신교의 열풍에 힘입어 성서가 이미 기독교신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119) 임서하, 待合室의 主 예수, 『백민』, 1945년 12월, p.17.

120) 박원식, 聖書와 翻譯, 『문예』, 1950년 3월, p.197.

121) 이문희, 신앙생활의 의의, 『들장미』, 청구 출판사, 1955, p.44.

알 수 있다. 성서의 참뜻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좋은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성서가 대중화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48년부터 정국은 예고 없는 잦은 단전¹²²⁾과 종이부족으로 학생들의 교과서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였고, 서울 시민들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시기에 성서를 제대로 번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상은 해방정국에서 개신교의 권위가 어떠했는지 보여준다.

동기야 어떠했던 민중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은 개신교는 힘이 커지며 교회내의 분열이 시작되었다.¹²³⁾ 내부의 분열은 민족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세속화에 대한 저항¹²⁴⁾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군정이 시작되자 이들은 신앙적인 이유만으로 쉽게 친미 우파적 성향을 띠게 되었다.¹²⁵⁾ 힘이 커진 개신교는 기독교연맹모임에서 김구의 연설에 이어 중도좌익으로 알려진 김규식이 연설을 하였을 때, 참석자들이 귀를 막아 김규식이 되

122) 해방 직전의 발전 능력에 있어 남북간 비율은 14%대 86%였으며, 평균 발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8%대 92%로 북한에 편중돼 있었다. 남한 전력 수요 9~10만 킬로와트 중 5~7만 킬로와트를 북한 송전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이런 관계로 남한에는 전력난이 심각하여 서울 시내 국민학교의 47년도 겨울방학이 2주일 간 연장되기도 했다. 강준만, 앞의 책, pp.131~132 참조

123) 노치준에 의하면, 기독교의 분열은 일제시대 신사참배와 관련이 깊다. 장로회의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함으로써 한국의 장로교회는 일제의 강압적인 신사참배요구에 공식적으로 굴복하고 말았다. 북한 지역에서 특히 반발이 심하였다. 이때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은 북한의 교회지도자들 가운데 여럿이 투옥 당했으며 그 중 50여 명이 순교하였다. 해방이 되자 투옥되었던 사람들이 풀려나고 이들은 후에 좌익으로 기울어져 북한에 많이 머물게 된다. 반면, 신사 참배를 하여 투옥을 면했던 사람들은 친일파로 간주되어 우파적 성향을 띠게 되고, 남한으로 와서 영어를 잘할 수 있었던 관계로 미군청에 많이 등용되었다. 일제 강압에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남북한의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이유는, 그것이 십계명의 제 1계명에 저촉되기 때문이었다. 노치준, 해방 후 한국 장로교회 분열과 사회학적 연구, 『해방 후 한국의 사회 변동』, 한국사회사 연구회 논문집 제 5집, 문학과 지성사, 1986, pp.24~26.

124) 노치준, 앞의 글, p.27.

125) 개신교 신자들의 반공태도는 해방 후 직접적인 행동으로 전화되고 종종 폭력까지 동반하는 적극적인 것으로 발전했다. 개신교 신자들의 반공주의는 종교이데올로기의 뒷받침을 받았다는 면에서 ‘성스러운 반공주의’이기도 했다. 공산주의의 ‘관념론적 유물론’과 ‘진투적 무신론’의 측면을 극대화할 때, 반공투쟁은 곧 ‘기독교수호투쟁’이 된다. 또한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대립은 ‘악마와 천사간의 전쟁’으로 발전한다. 강준만, 앞의 책, p.274 재인용.

장하는 사건까지 야기한다.¹²⁶⁾ 이런 개신교의 힘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실의 어려움보다 종교에 대한 외경심이 앞설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작가의 눈에는 기독교 본래의 순수한 신앙심보다 현실타파의 목적이 강한 개신교가 생명이 없는 신앙으로 비치고 있었다. 도를 넘는 권력지향의 신앙 앞에서, 작가는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떠나 철저한 신앙심을 지닌 구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국가가 흔들릴 때 신앙인은 굳은 신념으로 세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교의 원천인 진리를 탐구하고 옳은 도리를 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방정국에서 종교의 이권투쟁보다 더 위험한 건 어쩌면 종교화된 극단적인 반공이었던지도 모른다. 오기영은 개신교가 반공의 최전선에 나선 것을 “그들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나머지 공산주의와 공통되는 것이면 예수의 혁명정신까지도 배격하는 지경에 이르러 있다. 그래서 교도들은 실체에 있어서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비호하는 산하에 들어 있으며 역사의 발전과 예수의 진리에 역행하여 특권계급의 권익을 보수 유지하려는 조선의 바리새와 사두개에게 농락되고 있는 것”¹²⁷⁾이라며 한탄했다. 생활의 빈곤함과 미군정의 많은 규제와 함께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는 민족의 앞날이나 대중의 구원보다 권력과 결탁하여 반대파를 압박하는 성격을 띠었던 기독교는, 해방공간의 또 다른 모순이었다. 그러나 막연한 재래신앙에서 권력이라는 실체로 눈앞에 모습을 보인 기독교에 대중은 경도될 수밖에 없었다.

내일을 생각할 수 없는 격심한 변혁기였던 해방공간에서 기독교 신앙은 일반 대중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그것은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모두 개신교 신자였으며, 남한을 사실상 통치하고 있던 미군정청의 고위 인사들도 개신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제 36년의 압제 속에서 독립의 꿈을 안고 살아왔던 대중들에게 갑자기 나타난 미군들은 놀람과 두려움의 대상이자 새로운 희망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오랜 고통 속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대중들에게 운명이란 어쩌면 순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수 있다. 이는 운명을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

126) 강준만, 앞의 책, p.44 재인용.

127) 강준만, 위의 책, p.277 재인용.

인식하게 된 결과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대중은 좀더 쉽고 좀더 간단하게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되고, 집권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개신교는 해방정국의 대중들에게 권력의 상징으로 인식된 셈이다.

개신교에 대한 열망은 일상에서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열악한 현실 속에서 나를 내보이고 싶은 대중의 욕구에 의해 새로운 종교문화를 형성한 것이다. 기복의 성격을 띤 노인의 신앙 의존적인 모습과 성서번역에 열중하는 작가의 모습에서 해방공간 기독교는 출구 없는 현실의 도피처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의 기능 중에 카타르시스가 있긴 하지만, 이 시기의 기독교는 정서적인 카타르시스보다 끝없는 현실의 고통에 대한 대안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② 인습의 벽을 넘은 문화 - 여성의 삶

해방이 되자 남녀노소 모두 만세를 불렀다. 해방의 기쁨에 거리를 달렸다. 그러나 나라의 해방이 여성에게는 같은 의미의 해방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관습이나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에게 가해졌던 억압의 굴레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창제도였다. 해방정국의 여성운동은 1945년 8월 17일에 결성된 건국부녀동맹에 의해 시작되었다. 여성에 의해 주도된 여성단체는 공·사창제의 폐지를 관철시키며 여성의 권익을 위하여 앞장섰다.

그러나 진정한 여성의 권익은 이러한 정치적 색채가 짙은 단체가 아니라 대중들 사이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국의 원조에 의한 미국 물자가 유입되면서 여성은 제도적인 규제보다 여성본능의 아름다움에 비로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¹²⁸⁾ 아름다움에 눈을 뜨면서 미용학교에는 많은 여성지

128) 해방이 되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서구적인 스타일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의상, 매너 등 폭넓게 그쪽 사람들 문화에 접근하려고 애를 썼죠. 김옥진, 『파마는 특수층의 전유물』, 『8·15의 기억』, p.290.

김옥진은 192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일본에서 공부하던 중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 이후 최초의 미용고등학교인 소정미용고등학교를 1기로 졸업하고 을지로에 허

원자가 물렸다.¹²⁹⁾ 김옥진에 따르면, 미용학교 학생을 뽑는데, 이대나 다른 대학교를 다니거나 경기여고를 졸업한 여성들이 한 100명 가까이 지원했다¹³⁰⁾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시기의 작품들은 혼란한 사회에서 여성이 겪어야 하는 가난은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으나 육체적인 고통도 적지 않았음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가난한 者는 자꾸만 밀려나야만 하구 드디어 平野없는 슬픈 山기슭으로 기어올라야 만 하니.....

더르렁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공연히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야 만다. 그것은 또 어느 女人이 물지개를 지고서 비탈길에서 失手하고 덩구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비탈길에는 水道도 숨이 가빠서 올라오지 않고 女人들에게 勞動만을 强要하는 것이다. 다만 흰 눈만이 저 밑의 市街나 여기 山 기슭이나 한결같이 나린다. (중략)¹³¹⁾

‘틀림 없는 형사다’ 속에서 이렇게 들리는 말이 있어도 그는 더욱 태연해야 할 것 같았다. 되도록 이자의 의심 권외로 빠져 나가야만 자기가 안은 양키 후랏또이십마를 살리는 것이고 또 살려야만 옥순의 혼례를 치러줄수 있고 또 남편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게 되는것이고 남편 이름은 내세우지 않아야 남편 망신 안시키는 것이다. ¹³²⁾

할아버지 밥상은 사랑방에, 學校에 가는 아이들 밥상은 마루에, 그 ○을 치울 때 쯤, 어슬렁어슬렁 돌아 들어오는 아버지 밥상은 안방에, 그것을 치우면, 큰 아들이 일어난다. 큰 아들 ○를 치우면서, 主婦는 부엌에서 한 술 두술, 다섯 술 뜸 사이 없이 심부름에 붙어 난다. 할아버지는 사랑방에서 一年 열 두 달 時在로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과 消日하며. 타구다, 요강이다, 재떨이

바히바 미용실을 열었다. 미용사중앙위원회장을 역임했다.

129) 김옥진, 앞의 글, p.287.

130) 김옥진, 앞의 글, 같은 페이지.

131) 박용구, 비탈길, 『문예』, 1950년 2월, p.179.

132) 손소희, 그림자, 『백민』, 1949년 6월, p.158.

다, 담뱃대다, 담뱃불이다, 主婦가 겨우 아침을 먹고 나면, 點心상이 始作된다. 아버지와 큰 아들은, 밥만 먹으면 다른 집 사랑방을 찾아 간다. 술이 취해 들어오면, 잔소리가 시작 되어 내던지기도 한다. 둘째 아들, 둘째 딸은, 가끔 때어가서 말성을 일으킨다. 그러는 사이에도 主婦는, 돼지도 기르고 마당에 박, 호박, 강냉이도 심는다 하자. 밤에는 바누질, 다르미 질이 기다리고 있다. 男女 平等 八 時間 制 라고 하나, 원통 편편 노는 사람만 많고, 家庭 主婦는 二十四 時間 勞動이다. 할아버지 아버지들이 게으른 탓은 아니다. 지난 四十年 間의 政治가, 우리들에게 바깥일을 못하게 했던 까닭이다.¹³³⁾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해방공간에서는 창으로 서울시가가 한 눈에 보일 정도의 고지대에도 대중은 등지를 틀고 있었다. 이런 곳은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 가장 기본인 물마저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을 길어와야 하는 도시 빈민 가정의 여성이 겪어야 했던 수난이 위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해방공간을 살아왔던 여성들에게 계층적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정책적이며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빈곤국가에서 그들의 빈곤문제는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 중의 하나로 미군부대의 물건을 몰래 빼내어 불법적으로 팔기도 했다. 실제로 밤중에 미군부대의 물건을 빼 내어 오면서 단순히 지나가는 미군을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으로 생각하여 혼비백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양키의 후랏또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를 쓰는 모습에서 당대 여성들이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남편이 있는 여성일지라도 관습의 굴레는 해방정국에서 변함 없이 여성의 삶을 압박하고 있었다. 마해송의 작품에 묘사된 여성의 하루는 시계와 같다. 매일 가족 수만큼 밥상을 차려야 하고, 아침 설거지가 끝나면 점심 상차림이 연이어 시작된다. 그 사이사이에 집안에서 살림하는 주부인 관계로 온갖 허드레 일은 도맡아 해야 한다. 여성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위 가족의 이해와 배려도 그 못지 않다. 그러나 주부는 일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쉽게 바뀔 수는 없었다. 남편은 집안 일을 하지

133) 마해송, 婦, 앞의 책, p.36~37.

않고 빈둥거리며 놀아도 가장이라는 이유로 많은 기득권을 누리며 산다.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주부를 남자들이 돕지 않는 이유를 마해송은 지난 역사의 악습에서 찾고 있다.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의 유지를 위한 노동이며,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남성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성별분업의식 때문이다. 여성은 가정에서 가사를 전담하고, 남성은 직장에서 생계를 담당한다는 사고가 팽배했던 이유는, 여성의 가사 노동이 사회 속에서 불가시적 노동으로 존재하고, 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없는 단순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¹³⁴⁾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여성의 권익을 찾기 위한 움직임은 끊임없이 있었다.¹³⁵⁾ 그 예로, 건국부녀동맹은 조선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여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조선의 문제 또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¹³⁶⁾ 하지만 해방공간에서의 여성 운동은 활발했던 만큼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元來가 洋風이라는건 開化 를 지나치면 狂態妄想의 原子가 된다. 더구나 詛囑을 잘 하지않고 急喰하는 洋風이란 食後에 必有 탈 - 男子도 男子려니와 女子가 날뛰면은 家庭이 흔들리고 傳統이 넘어지고 國家가 어지러운 法- 流行이란 것이 물(色)이 진하게 들면 껍질을 베껴도 바탕이 남는법이니 現代女性은 自覺하여 새로 싹트려는 이땅의 流行을 是正키에 自奮하라! 自奮하라!¹³⁷⁾

시간에 너무신경질인주부도 큰걱정이지만 몇시인지도 모르고 늘신거리는 주부의가정은 일만밀리울뿐이요 정돈되고 알뜰한살림을 할수없습니다 예정생활이라는 것은 꼭경제(經濟)방면에만이 안이고 시간적(時間的)예정생활이 절대적필요하며 날이밝았으니 아침먹고 낮이되었으니 점심때인줄알고 해가서산에

134) 김종숙, 『여성과 사회』, 한국문화사, 2003, pp. 67~72 참조.

135) 한국사회에서 페미니스트들의 활동이 시작된 시기는 일제부터이다, 김종숙, 위의 책, p.14.

136) 강준만, 앞의 책, p.96.

137) 최영수, 앞의 글, p.122.

기우리지면 저녁시작한다는 비과학적 생활이 아니고 주부의일거일동이 시간적으로 움직이고 시간생활이 습관적으로 되기까지 우리주부들은 시간에대한 관심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남편의일하는 방면에 관한서류 자녀들공부하는 책이 어떤것인가쯤 주부는 살펴보십시오.너무소설만 읽고집안일을멀리우게하는 주부도 큰 걱정이지만독서를 등한히하는주부는시대에 뒤떨러지게됩니다. 우리는읽어서 아는주부가됩니다.

내자신은 누구이며 어떤경우의 사람이며 어떻게 하여야 하겠다는 것을 정확(正確)히 판단(判斷)하는 신녀성이 되어야 하겠다. 요지음 신식 여성들은 아무것도 몰고 날뛰기만하지 중년이상의 어른들에게 흔히듣는 말인데 우리는 이런 비평을 왜 듣는 가를 반성하여 보고 가급적 이런말이 없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¹³⁸⁾

저의 記者生活은 즐거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歡迎받었고 사랑속에서 애기記者는 자라났습니다. 고히 고히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十餘年이 넘은 오늘에와서 저는 누구에게 原稿를 부탁하려 갔다가 아주 두말 불일여유도 없이 拒絕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一線에나선 記者도 아니요 무슨 裏面을 控知하려 땡기는 記者도 아니요, 어떤 新聞社와 雜誌社에서 부탁을 받고 中間에서 傳達하려다가 첫마디에 氣分 좋게 謝絶당하였습니다.

제얼굴이 화-끈 하더니 온-몸에땀이 주루루 흘러더니 그만 치가 부들부들 떨리드군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버렸으면 숨어버렸을 것을.....¹³⁹⁾

또한이 기막힌 사실은 조선은 옛날부터 여성정치가가 (善德女王을除하고는) 없었는데 요즘은 自由바람에 또 여자중부라 남편따라서 각각 여정객이 수다한데 恨 흠컨대 내친구들도 흰색 노란색 빨간 색이 수두룩하다.¹⁴⁰⁾

위의 작품을 통해 당대의 여성운동을 바라보는 남성의 사고와 여성의 사고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 볼 수 있다. 또 관습에서 오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의 구별을 떠나 존재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남성은 권익

138) 전희복, 女性手帖, 앞의 책, p.153.

139) 전희복, 女流記者時代의 回想, 앞의 책, p.16.

140) 모운숙, 友人恐怖症 『백민』, 1947년 5월, p.27.

을 찾고자 하는 여성의 움직임은 광태망상에 비유하여, 가정이 흔들릴 수 있으니 자분하기를 바란다. 여성이 유행을 좇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를 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 남성 작가의 생각이다.

이러한 남성에 대항하여 여성들 스스로도 심리적인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시간을 잘 이용하여 과학적인 생활을 하자고 여성 작가는 주장한다. 또, 항상 공부하여 깨어 있는 주부로써 남편과 아이들에게 당당해질 것을 요구한다. 스스로 반성하여 여성의 권익을 찾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남성이 양보하여 누리는 여성의 권익이 아니라,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스스로 갈고 닦아 남성과 사회에 어떠한 트집도 잡히지 않도록 자중하기를 바라는 데에서, 이 시기 여성의 자아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전문직 여성이 느끼는 자괴감과 일부 여성 정치가에 대한 여성의 편협한 사고도 글 속에 나타나 있다. 원고를 청탁하는 여성에게 무안을 주며 거절하는 남성의 태도에서 남녀차별을 근간으로 하는 가부장제에서 파생된 여성 경시 풍조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해방이 되면서 여성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남성중심적 사고는 여전히 지배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수주의자들은 여성의 불평등 상황을 사회구조적 차별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연적인 것으로 본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생물학적으로 열등한¹⁴¹⁾ 존재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고 전문직 여성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화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운동도 좌익·우익에 따라 주장하는 것이 달랐으며, 가입단체에 따라 개개인의 성향도 달랐을 것이다. 모윤숙은 이러한 점을 들어 여성의 정계 진출을 ‘기막힌 일’로 표현했다. 이 시기의 일부 여성들에게 있어, 여성의 정계 진출은 남성을 따라하는 요식적인 행위로 보일 뿐이지 자아실현의 한 방법으로 보이지 않았다. 같은 여성의 입장도 남성과 별 다를 게 없었으니, 혼탁한 정세 속에서 여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는 길은 아직 요원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해방공간의 여성계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공창제도의 폐지를 요구하

141) 한국여성학 연구회, 『여성학의 이해』, 경문사, 1998, p.43.

며, 동시에 여성의 경제적 평등권과 자주성 확립을 정치권에 제시하였다 그 내용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의 경제적 평등권과 자주성 확립’이다. 그 외 내용들도 주로 여성이 감당해야 하는 육아 문제라든가 축첩 및 중혼 금지 등 봉건적인 결혼관에 대한 시정요구였다.¹⁴²⁾ 그러나 수필 작품 속에 나타나는 전문직을 가진 여성의 애환을 볼 때 여성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작품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일부에서는 여성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전문직 여성임에도 자신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작품들을 살펴본 결과 해방공간에서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여성운동이 한 목소리로 지지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랜 세월동안 가부장적 남성의 권위에 눌리어져 있던 여성들이 하루아침에 변모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신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에게 가해졌던 많은 굴레들을 스스로 벗어내고자 했다.

이러한 여성운동에 힘입어 해방공간의 여성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그것은 외적 미에 대한 인식변화였다. 유교이념에 의하여 오랫동안 여성의 외모에 대하여 정형화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땅에서 머리카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한제국말기에 내려졌던 단발령은 전국을 뒤흔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단발령의 부당함을 들어가며 거부했다. 일제 36년을 지내고 해방이 되었다 하더라도 짧은 머리는 무척 생경했을 것이다. 특히 여성의 단발과 파마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해방이 되자 자의든 타의든 외국으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귀국 동포들의 감회도 남달랐겠지만, 귀국동포들이 문화에 미친 영향도 만만치 않았다. 이 때에 귀국했던 동포들의 모습은 낯설, 그 자체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마머리는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된다.¹⁴³⁾

142) 강준만, 앞의 책, p97 참조.

143) 해외동포들이 탄 귀국선은 우리 복식 문화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중절모와 감청색 양복, 야자수 남방, 그리고 구두를 신은 ‘마카오 신사’들이 여성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성들 사이엔 ‘파마머리’라는 낯선 헤어스타일이 해를 넘겨가며 대유행했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1, p.168.

男子의 斷髮에는 그렇게 勇敢하든 先覺者가 女子의 斷髮에 對하여는 그렇게 모른체 하고 緘口를 하는가. 女子의 斷髮은 社會의 遷에 큰 影響이 없다고 생각 한까닭일까? 女子 한 두 사람이 斷髮 할때에 다못 獵奇的 意味로 한두 雜誌에 떠든 일은 있었으나 繼續하여 徹底하게 主張 한다든지 反對 하는사람이 없는 것은 現代의 奇怪한 現象의 하나이다.

이와같이 社會的 으로 是非는 적었지마는 어느사이에 斷髮한 女子의 數는 놀널만치 늘었다. 七,八歲의 少女가 바가지를 쓴 것 같이 도리도리하게 깎은 것 썸은 별서 問題도 되지 않도록 많 거니와 十七,八歲內외의 女子가 제비 썸지 같이 깎은 것도 都會 에서는 눈 거슬리지 않을만치 一般化 되어 있다.

以上에 말한 女子의 斷髮 보다는 더 問題가 되고 더 興味를 끄는 點은 밤에 잘때는 鶴의 썸지와 같이 잘랐든 머리가 아침에 化粧 한뒤에는 언제 斷髮을 하였느냐 하는 듯이 머리가 쪽져져 있는 것이다.¹⁴⁴⁾

요즈음 돌아다니는 편발(編髮)중에는 남자도 좋거니와 파마넨트라는 놈이 또 한 꽤 마음에 드는데, 그놈은 머리를 구불구불 지진 재미보다는 나에게서는 차라리 목덜미께에다 두리두리 감아 붙인 것이 제법 그럴 듯하여서 한층 더 사랑스럽기도 하다. (생략)

나이 이십을 지난 방년의 여성으로서 잘라 놓은 무 토막처럼 싹뚝 단발을 해 버리는 요즈음의 ‘오갑바’들이나, 또는 간지럽게 작은 머리 쪽을 밋을 부린다 고 뒤통수에 딱 붙여 버린 최신행 ‘히사시가미’도 보기에 괴로운 바 있지만,¹⁴⁵⁾

위 글에 나타나는 여성의 변화된 헤어스타일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지식인 사이에서는 여성의 단발이 어느 정도는 용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단발머리나 파마머리를 유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시대가 변했음을 인식했다. 남자의 단발에는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여자의 단발에는 함구하는 사회를 향하여 불만을 토해 보지만, 곧 일상의 일로 받아들였다. 단발보다 오히려 부분 가발에 더 관심을 가졌다. 유행에 따라 단발은 했지만, 자른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어 썼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단

144) 정래동, 女子의 斷髮, 앞의 책, p.76.

145) 김용준, 머리, 앞의 책, p.69.

발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해방정국에서 여성들에게 유행한 것은 옷, 화장품, 단발, 파마 등 외모에 관한 것들이다. 여기에 대한 일부 호의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반응은 그렇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망국론까지 나오며 여성의 머리스타일을 비난하고 있었다.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선전부에서는 ‘외국인 차를 동승’하거나, ‘꿈을 씹으며 길거리를 방황하는 여자’와 함께 ‘괴상한 두발 화장을 하는 여자’를 미풍양속을 혼탁케 하여 민족의 체면을 팔아먹는 천박한 여성¹⁴⁶⁾이라고 성토를 한다. 민족의 체면이나 망국은 머리 스타일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해방 공간의 분위기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뽐내거나 내면에 응어리져 있던 여성들의 자기현시 욕구의 분출을 용인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본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여성 지배 관습에 젖어 있었던 남성들로서는, 여성의 자기목소리를 찾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이 고유의 문화를 훼손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져 인정하기가 힘들었다.

반면에 여성들에게 미용사는 전망의 직업이었다. 당시 미용이란 것은 못 배우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하는 일로 여겨졌지만,¹⁴⁷⁾ 미용고등학교의 인기는 대단했다. 그러나 인기에 비해 사회가 혼란스러운 탓에 미용실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다.¹⁴⁸⁾ 많은 여성은 파마가 아직 뭔지도 모르던 시기였으며, 일부 특권층에서만 유행한 것도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파마머리는 신여성이나 유행을 좀 따르는 사람, 연예계에서 일하는 사람 등 극소수에서만 즐기고 있었다. 보통 여성들은 파마가 뭔지도 몰랐으며, 미혼 여성은 주로 빨간 댕기 드려서 머리를 땀았고, 기혼 여성은 생머리를 틀어 올려서 다녔다. 일반 주부들은 미용실을 이용할 줄도 몰랐다. 파마 한 번 하는 데에 쌀 한 말 값을 지불해야 했으므로, 나이가 젊은 층에서는 파마 대신 단발머리를 선호했다. 그러나 파마머리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미용실 앞에는 긴 줄이 생길 정도로 파마가 유행했다.¹⁴⁹⁾

146) 강준만, 앞의 책, p.169.

147) 김옥진, 앞의 글, p.286.

148) 김옥진, 앞의 글, p.289.

149) 김옥진, 앞의 글, pp.289~293 참조.

비록 나라 전체의 여성들에게 해당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 여성들 사이에서 자신의 취향대로 가꾸고, 외모에 개성을 나타내고자 노력했다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조선을 지나 일제 강점기를 거쳐오면서 여성들에게 질게 드리워져 있던 관습과 억압의 사슬에서 스스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자각이 오늘의 여성계를 일구게 된 원동력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③ 문인들의 사랑방 - 다방

해방공간에서 마땅히 모여 한담을 나눌만한 장소가 없었던 문인들에게 다방은 여러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곳이었다. 극심한 가난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감성이 메마르면, 다방에 가서 소생의 날개를 펼쳤다. 힘이 들 때마다 다방에 가면 이미 그 곳에는 알지 못하는 동족들이 팔을 고이고 앉아 시간을 낚시질하고 있는 모습들이 수필에 자주 묘사되어 있다.

現代人の 生活感情이 가장 感覺的으로 表現되는것에 茶房 이 있다. 비록 한잔의 커피 나 코코아 속에서나마 지긋한 香氣와 그윽한 맛을 取함에서 보담도 食道로 넘어가는 茶水은 마치 押紙처럼 現代人の 懊惱를 吸取하여 버리는것이다. (중략) 茶房에는 그러한 可憐한 族屬들이 마치 노래를 잊은 카나리아 처럼 한잔의 茶水에 默然한 心懷를 吐露削滅하려드는 그런 幽幻의 世界가 構成되고 있다.¹⁵⁰⁾

이렇게 熟眠을 해도 아침이면 몸이 갇든해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한잔의 커피가 또한 없을수없는것이다. 피로와 싸우고 피로를 극복하는 다른 方途를 모르는 나로서는 이素朴하고도 單純한 方法을 되푸리하지 않을 수 없다.¹⁵¹⁾

輓近의 新風俗으로 都市人の 茶房出入이 있다. 서울에도 百을 넘는 茶房이요 地方都市에도 으레 茶房이 있다. 茶房의 由來를 캐거나 그 繁盛의 原因을 찾

150) 최영수, 茶, 『백민』, 1947년 6·7월, p.38.

151) 김삼균, 피로, 『문예』, 1949년 8월, p.176.

을必要도 없이 이것은 亦是 文化人의 文化的 雰圍氣와 文化的 嗜好에 應酬하는 營業體이니만큼 茶房은 文化人의 寵愛아래서 育成되어 마땅하고 茶房의 存在가 文化的으로 寄與하는바 있음을 알수가있다.¹⁵²⁾

작품에는 다방이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다. 해방 후에 다방은 서울에만도 100여 군데가 넘게 성업 중이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시에도 으레 다방이 있었다. 문인들이 한 줄의 글조차 나오지 않아 창작에 막마를 때에도 다방에만 가면 마음이 안정되었다. 문인들이 이처럼 다방을 창작의 산실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손소회, 전숙희, 유부용 세 여류 문인이 ‘마돈나’라는 다방을 운영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해방정국에서 문인이 운영하던 다방은 영업적인 영리목적보다 생활능력 없는 지식인들의 피난처였다. 그래서 커피 한 잔에 불면식의 얼굴과 인생을 논하고, 창작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다.

때문에 가난한 예술인들이 다방을 드나들면서, 민중들에게 대중문화전파의 한 맥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방을 미풍양속을 해치는 건전하지 못한 곳으로 여기기도 했다.

서울의 茶房은 大部分이 일없는 사람이 가서 쉬는 곳으로 되어 있다. 다른 都會는 茶房도 實用的으로 쓰는 곳이 많으나 여기는 아직 完全히 實用的의 場所로만 制限되어 있지 않다. 大概是 單純히 茶房에 趣味를 가지고 단이는 사람 이거나 또는 나서야 갈곳이 없어서 茶房으로 가거나 하는 種類의 사람이 出入하고 있는데 不過하다. (중략) 나가면 거리에서 親知를 만나서 이야기 할수도 없으므로 都會人에겐 何如間會見할 場所 卽 茶房과 같은 곳은 絶對로 必要하다. (중략) 여기 茶房에 出入하는 사람으로 커피의 맛을 鑑賞하기 爲 하야서 다니는 사람은 淸이나 少數이다. 그렇다고 하여서 어느 다방에서나 不斷히 틀고 있는 레코드 音樂을 鑑賞 하려 다니는 사람은 더욱 적은 模樣이다. (중략) 茶房을 하로에 二三回 乃至 四五回式 찾게되며 이 茶房에서 저 茶房으로 도라 다니는 것이다. (중략) 茶房의 門을 뒤로 다치고 나갓자 別 新통한 일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茶房 손님의 大部分이다. 그렇다고 하

152) 최영수, 茶房, 앞의 책, p.121.

여서 老年 들이 모이느냐 하면 決코 그렇지는 않고 그네들은 파리파리 한 青年들이다. 그네들은 기꺼운 듯이 이야기를 하고 큰 氣焰을 뽐내고 있으나 어디인지 憂鬱한 빛이 숨어 있고 大部分은 無聊하게 畫報를 뒤지거나 新聞을 드러다 보고 있는 것이다.¹⁵³⁾

위의 작품에는 젊은 청년들이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다방에서 소일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미래가 불안한 사회에서 사람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의식적일 수만은 없다. 때로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특별히 해야 할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던 해방공간에서 또래끼리 다방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다방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다방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젊은 청년들이 무료하게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작가는 염려한다. 순전히 취미로 별 목적 없이 다방을 드나드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나라의 현실이 어렵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암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다방은 문인들에게 창작의 의욕을 준 재활력의 산실이자, 무료하게 젊은이들이 들어앉아 한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사랑방이라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커피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¹⁵⁴⁾ 감각적이며 자극적이었던 커피의 매혹은 해방정국을 살아가던 지식인들의 오뇌를 덮어 누르듯이 흡수해 버렸다. 이 때의 다방은 유흥업소가 아니라 갈 곳 없는 문인들의 사랑방이요, 사색의 공간이며, 창작의 산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¹⁵⁵⁾ 18 세기 초 서구에 등장했던 ‘커피 하우스’는 대중들의 독

153) 정래동, 無聊한 休憩, 『北京時代』, 평문사, 1949, pp.172~173.

154) 한국에서는 1895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던 고종 황제가 처음 커피를 마셨다. 민간에서는 독일인 손탁이 정동구락부에서 커피를 팔기 시작한 이후 1920년대부터 명동·충무로·종로 등지에 커피점들이 생겨나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 뒤 8·15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미군부대에서 원두커피와 인스턴트 커피들이 공급되어 대중들이 즐기는 기호음료가 되었다. www.naver.com 인용.

155) 최영수의 茶 에 나오는 삽화를 보면, 커피 한 잔을 앞에 놓고 생각에 빠진 신사를 마담과 레지가 낭만적인 표정으로 바라보며 상념에 젖어 있다.

서모임이나 사회적 문제들을 함께 토론하는 공공문화의 장소로 가능했다.¹⁵⁶⁾ 해방공간에서의 다방도 서구의 초창기 커피 하우스처럼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④ 선망의 신홍예술 - 만화

만화가 처음 등장한 것은 일제 강점기였다. 우리나라에서 만화의 시초는 만문만화¹⁵⁷⁾로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주로 신문과 잡지 등의 지면에 발표되었다.¹⁵⁸⁾ 그때의 만화는 일본학생잡지에 주로 실렸었던 까닭에¹⁵⁹⁾ 조선의 학생들은 일부계층 외에는 접하기 어려웠다. 해방이 되자 주로 신문에 만화를 연재하게 되고, 비로소 우리나라에도 만화가 지망생들이 생겨났다. 이 시기의 만화는 시대의 조류에 따라 일상생활, 정치 등에서 소재를 많이 취하였다.¹⁶⁰⁾

해방이 되자 김용환이 미군들이 보는 서울 타임즈 라는 영어신문에 코주부 만화를 영어로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인기에서 따라 올 게 없었다. 김용환 외에도 김규택이라는 만화가가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주로 활동했던 김용환의 발이 넓은 관계로 가장 지명도가 있었다.¹⁶¹⁾ 김용환은 47년도에 『만화뉴스』라는 주간지를 발간하였는데, 시사적인 내용과 일반적인 내용의 만화를 두루 담고 있어서 당시에 많이 팔렸다. 특히 인쇄업이 어렵던 시절에 많이 팔리는 만화는 인쇄문화에도 일조했다.¹⁶²⁾

그러나 작품 속에서의 만화는 민중의 정서를 대변하는 민중예술로, 또 독특한 매력을 지닌 신홍예술로 표현되어 있다.

156) 이동연, 『대중문화와 문화비평』, 문화과학사, 2002, p.12.

157) 만문(漫文)과 만화가 함께 있는 것.

158) 신명직, 『모던 보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p.6.

159) 당시에 일본학생잡지들이 많았는데 왕문사에서 나오는 『형설시대』라는 잡지도 있었고, 삼성당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잡지도 있었어요. 신동현, 앞의 글, 『8 · 15의 기억』, p.120.

160) 네 컷짜리 만화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잡았어요. 주로 정치적이고 시사적인 만화들은 한 컷에 담았죠. 신동현, 앞의 글, p.122.

161) 신동현, 앞의 글, p.126 참조.

162) 신동현, 앞의 글, p.127 참조.

過去와未來의 追憶憧憬을 떠나 現實握把의 銳敏 感覺으로 自然과人生 或은 人間自身間的 交渉諸相을 깊이 穿鑿하는데 使命이있는 것이다. (중략) 유-모어와 넌센스가 또한 漫畫의 主要要素인것은 勿論이다. (중략) 漫畫는 民衆藝術이다. 一切 傳統과過去形式에 拘束을 받지 않고 그 時代의 民衆에 思想 趣味 感情을 端的으로表現하는 民衆과密接한 關係를가지고있다. 政治時事漫畫는 民衆의 代言者라 할수있으며 民衆을 떠나 漫畫의 發達이 있을수없는것이다. 그리고 漫畫의 大部分이 印刷를通하여 그 威力을 發揮하는만큼 社會一般文化發達과도 不可分한 有機的 關係가깊다.¹⁶³⁾

미국의 Singing of FatOers 라는 長篇漫畫에서 人物의模型, 動作, 表情을 따온데對한 不滿도있어 市井的이오, 가장 現實的인 데서의 取材와 넌센스와 유-모어에서만이 아니라 朝鮮人의 悲哀 에 穿觸할수 있는 諷刺를 主題로 하여서의 1 漫畫를 試驗하여본 것이다. 그래서 다만 멍텅구리 하나로서 觀客이 되다싶이된 朝鮮의 漫畫는 强列한 諷刺性을 가지고 새로운 形態로 登場을 하게 된것이다. 여기에 漫畫家崔永秀라고 하는 새로운 漫畫家가 貧困한 世態에 〇〇한 딱지를 붙이고 등장케 된 것이다. 얼간先生 똥단지 下女찢찢이 등의 連載漫畫가 新聞二面을 通하여 그날의 話題를 提供한 것이었다.¹⁶⁴⁾

新興藝術로서의 漫畫의 獨特한 魅力은 오늘날 時事漫畫를 비롯하여 참으로 廣汎한 活動의 舞臺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 簡素味の 諷刺味는 情緒發育이 旺盛한 靑少年들에게 새로운 한 개의 讀物로 登場할만큼 偉大한 魅力을 내포하고 있다. (중략) 解放後 우리나라의 出版界를 一〇해볼대 거기에는 참으로 놀라운만큼 이 新興藝術『漫畫』의 盛行을 찾아볼수있으며, 오늘날 적어도 量的으로는 壓倒的인 全盛을 보게 이르렀으니 그 功罪가 應當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優秀한 그림으로 健全한 내용의 漫畫책도 없는 바 아니다. 大多數는 無名新漫畫家들의 글과 그림을 〇〇한 매우 〇한 그림이 不健全한 內容〇〇 一考를 가하는 同時에 適當한 對策을 講究하지 않을 수 없는 重大問題다.¹⁶⁵⁾

163) 김용환, 漫畫小論, 『백민』1947년 6·7월, p.23.

164) 최영수, 나의 漫畫生活自敍, 『백민』, 1948년 1월, p.164.

165) 양미림, 漫畫是非, 『백민』, 1948년 7월, p.153.

위의 글을 살펴보면 만화는 정통예술장르가 아닌 신흥예술로 인정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유모어와 넌센스가 만화의 주요요소로써, 민중의 관심거리, 취미, 감정 등을 표현하여 민중예술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시기는 종이 가 무척 귀하여 교과서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던 시절이었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았던 관계로, 만화는 시사적인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¹⁶⁶⁾

민중예술로 자리잡은 만화는 문인들에게도 열병을 안겨주었다. 작가는 미국의 잡지에 실린 만화를 흉내내는 것으로 시작하여 해방정국의 만화계에 발을 디디게 된다.¹⁶⁷⁾ 작가는 만화에도 풍자성이 중요함을 주장하며 ‘만화가 최영수’로 변모를 한다. 그러나 만화에 재미를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유모어와 넌센스, 풍자는 한참 자라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유모어와 넌센스에서 오는 소재의 허무맹랑성과 미신적인 요소를 염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민중예술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만화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시대이건 만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드물다. 일제 강점기 동안 언론이 통제된 상황에서 제한된 사람만 만화를 보다가 미군정의 언론자유¹⁶⁸⁾에 의해 많은 신문들이 창간되면서, 자연히 만화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 일상을 다룬 시사에서 소재를 취했다는 말은 만화가 풍자성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작품을 살펴 본 결과, 해방공간의 문화는 양키이즘의 유입으로 일제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 중 기독교가 신앙의 차원을 넘어 권력화 되었다는 게 눈에 띄는 변화이다. 이런 변화는 작품 속에 확연하게 드러나 있었다. 생활고를 오랫동안 겪는 대중들에게 신앙은 일종의 희망으로 가는 통로였던 것이다. 그리고 다방은 단순한 찻집의 기능을 떠나 문인들의 사랑방으로 변모하였다. 만문만화 위주로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었던 만화도 시

166) 신동헌, 앞의 글, p.127 참조.

167) 최영수는 자신의 글이나 문집 곤비의 서에 한 컷 짜리 만화를 많이 삽입하였다. 주로 인물을 위주로 한 캐리커처로 자신을 모델로 하였다

168) 45년 9월 11일 한국 점령군 사령관 존 하지는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언론에 대해 어떠한 간섭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문자 그대로 절대적인 언론자유 보장’을 선언하였다. 강준만, 앞의 책, p.149.

사만화로 탈바꿈하였다. 독자층도 넓어져서 지망생이 늘어났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여성에게서 시작되고 있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하여 여성 단체가 과감하게 설립되었고, 여성 스스로 규제를 벗고 아름다움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해방공간에서 이와 같은 문화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공급과 소비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자본주의가 싹을 내리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즉, 일제 때에는 억눌려 있던 인간내면의 욕망이 미군과 함께 들어 온 양키이즘의 영향으로 분출된 것이다. 일제 때에는 문화말살정책으로 우리의 문화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으나, 조선의 유교관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갑자기 밀어닥친 미군의 양키이즘은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화는 대중정보보다 일부 가진 계층의 전유물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 미군정과 일제잔재

일제 36년의 통치가 끝났지만, 민족의 염원인 자주국가가 이 땅에는 성립되지 못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을 때, 한국사회에서는 하나의 이념 아래 대중을 단결시키고 그들을 독립에의 길로 이끌어 나갈 만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혁명적 주체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¹⁶⁹⁾ 8·15를 맞은 우리민족에게 대중을 이끌어 나갈 만한 혁명적 주체세력이 없었다는 것은 일제의 식민통치와 탄압이 그만큼 철저하고 집요하고 악랄해서 지도에 의한 투쟁이 살아날 여지가 없었다¹⁷⁰⁾는 의미이기도 하다.

해방군으로 들어 온 미군은 무슨 까닭인지 한국민족을 해방민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¹⁷¹⁾ 게다가 하지¹⁷²⁾는 ‘조선총독통치’를 그대로 존속시키려고까지 했

169) 송건호, 8·15의 민족사적 인식, 송건호 외, 앞의 책, p.26.

170) 송건호, 앞의 글, 같은 페이지.

171) 한반도에 들어 온 미군이 최초로 뿌린 뼈라의 내용에 해방을 축하한다는 문구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인 하지의 포고와 명령을 한국인은 무조건 지켜야 하며, 일본인과 미상륙군에 대한 반란행위, 재산과 각종시설의 파괴행위는 처벌될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리고 미군이 상륙할 때, 마치 적국에 침투하는 것처럼 공군의 엄호 하에 완전 무장 상태였으며, 나아가 그들에게 한국민이 접근할 수 없도록 일본 군경을 동원하여 우리 국민들의 외출을 금지시켰다. 일부 시민들이 그

다가 한국민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쳐 그 계획을 수정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공언했듯이 미군정은 한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의존하여 일을 처리해 나갔다.¹⁷³⁾ 그리고 대중의 여론에 상관없이 일본에 동조했던 친일파 인사나 친일파 경찰을 그대로 등용하였다.¹⁷⁴⁾ 결국 우리는 일제와는 모습만 다른 외세 아래 다시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미군정에 의한 통치 아래에서 식민지 36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쉽게 사라질 수는 없었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비하적인 태도에 따른 대중의 외세인식과 일제의 잔재라는 주제로 당대 민중의 외세인식과 탈식민주의적 관점¹⁷⁵⁾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 볼 것이다.

① 한국인에 대해 비하적인 미군인식 비판

해방 당시 한국민은 미군을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준 해방군으

래도 해방군을 환영한다고 나갔다가 일본 군경에 의해 사살되었으나, 미군은 오히려 정당방위로 일본군경을 옹호했다. 그리고 9월 9일 미군정은 총독부 정문에 걸린 일장기를 내리고 태극기 대신 성조기를 게양했다. 송건호, 앞의 글, pp.22~25 참조
 172) 존 하지는 1893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났다. 일본과 싸운 태평양 전쟁에서 유능하고 공격적인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이름을 날렸다. 그레고리 헨더슨에 의하면, 하지가 점령군 사령관이 된 이유는 한국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는 한국에 대해 어떤 사전 지식도 없었던 걸로 알려져 있다. www.naver.com

173) 송건호, 앞의 글, p.22.

174) 유일하게 미군정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었던 것은 일단의 친일파뿐이었다. 이들의 반공주의적 입장은 미군정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었고 미군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어떠한 요구도 내걸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친일청산을 어렵게 만들고, 친일파들이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게 된 이유라고 추측된다. 송건호, 앞의 글, p.22.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돌베개, 1988, p.50.

175) 탈식민이라는 용어의 명백한 함의는 식민주의의 종말 이후에 도래한 시기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차일즈·피터, 『탈식민주의 이론』, 문예출판사, 2004, p.17. 탈식민주의란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이후의 피식민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실제로 연구는 서구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에게 집중되어 있지만, 많은 연구와 분야의 확대로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의 역사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 이론이다. 탈식민 시대에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은 식민군대와 관료제도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문화,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식민지배의 흔적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인이 기대하고 또 생각했던 것과 같은 해방군으로서의 인식보다는 점령군적인 행동이 많았다. 점령군으로 온 이상 그들이 한국의 내부 사정과 한국민의 피폐한 생활을 배려할 필요는 없었다.

한국인을 바라보는 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비하적 인식은 아래의 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八・一五 후 한참 뒤의 일이라 생각된다. 食糧行政處 顧問 美軍人 ○의 말이 조선 사람은 왜 쌀만 먹으려고 그리 야단인지. 不足한 쌀만 달라 하지 말고 쇠고기나 사과를 많이 섞어 먹으면 榮養에도 좋고, 쌀도 節約이 될 터 인데. 云云. (중략)

이것은 決코 美人의 罪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風俗 慣習 民情 民度を 모르고서야 무슨 政治를 할 수 있으며, ○뿌리를 敵에게 겨누고 죽을등살등 싸우는 軍人이, 더구나 外國人이, 별안간 우리 事情을 理解할수 있을 것인가. 萬一 軍政 三年間에 무슨 過誤가 있었다면 그것은 當然以上の 當然이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¹⁷⁶⁾

한번은 차속에서 장승같이큰 美國人 하나가 朝鮮사람의 먹살을쥐고 때리려는 것을 보자 나는 反射的으로 뛰여가서 그 美國人을 걸상에다 빼다박질렀다. 그리고는 유 아 너트 아 젠틀맨!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드니 너는 紳士가 아니라는말이 效果를 나타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 美國人은 그렇게된理由를 나한테 說明을했다. 그 동저고릿바즈람인 朝鮮사람이 英語를 알理致가 萬無한데 자기네가 秘密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들었다는 것이다. 汽車속에서 秘密이야기란 무엇이며 또 英語를 모르는사람이 어떻게 엿듣는다는 말인가. 好奇心에 기웃기웃했겠지. 알고보니 그 美國人은 宣教師였다.¹⁷⁷⁾

176) 이희승, 事情, 『문예』, 1949년 9월, p.218.

177) 김동석, 나의 鬭爭, 조선일보, 1949년 3월 11일, 문화면. 김동석은 경성제대 법과를 다니다가 영문학을 전공하였다. 평론가이면서 수필집인『해변의 시』, 시집『길』, 평론집『예술과 생활』등을 발표한 다재다능의 시인・수필가였으나 6・25이전에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에 나타나는 미군에 대한 인식은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군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며, 다른 하나는 강한 반발심을 내포한 비판적 인식이다. 일제 말기에 전쟁물자조달명목으로 자행된 일본의 수탈은 해방공간에서의 궁핍으로 이어졌다. 이에 미군정은 46년에 미곡수집령을 발포하여 미곡에 대한 전면적 통제에 들어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미군정의 식량정책은 현실적이지 못했다. 그들의 의도는 미곡 자유시장을 폐지하고 강제로 미곡의 수집, 즉 식량을 공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출한 쌀로 배급을 했는데, 배급량은 생존하기에도 부족했다.

실제로 해방공간에서 미군의 물자원조는 풍부했다.¹⁷⁸⁾ 그러나 정작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쌀은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해결해야 했으므로, 미군정과 정부는 미곡공출에 혈안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미군의 정책은 소작농에게 가혹했으며, 그 결과 농민들의 반항이 거세어 공출에 어려움을 겪었다.¹⁷⁹⁾ 끼니마다 밥을 먹어야 하는 한국인의 식생활을 알 리 없는 미군은 쌀을 달라고 아우성 치는¹⁸⁰⁾ 한국민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식민지 36년 간의 국내 식

178) 미군정은 1945년부터 1948년 12월까지 3년 간 4억3천만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식료품, 의복, 일부 의약품, 심지어 과자 류에 이르기까지 구호적 성격을 띤 물자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일면 미국의 잉여상품 처리라는 뜻도 있었으며, 해방과 더불어 시장에는 미국의 각종 상품이 넘쳐흘러 한국의 상업, 식료품공업, 섬유공업 등은 큰 타격을 받았다. 송건호, 앞의 글, p.24.

179) 미곡 수집 과정에서 처벌받은 사람만도 8천 600여 명에 이르렀다. 당시 공출에 저항했던 한 농민의 증언이다. “미군정 당시에 주민들은 군정청에 협조 안 했어요. 예를 들면 공출을 하는데도 돌을 섞어 내거나 안 내기도 하고 물 속에 숨기기도 했죠. 근데 미군정 책임자가 군수를 호송해서 면장도 잡아넣고 직접 나서서 집을 뒤졌어요.” 강준만, 앞의 책, p.202. 1948년도 5·10 선거를 치르고 (중략)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중략) 소작인들한테는 자기가 짓던 논에 해당하는 돈을 몇 년에 나눠서 상환하라고 했고요. 두 마지기 짓던 논은 두 마지기 혜택밖에 못 받고, 열 마지기 짓던 논은 열 마지기 혜택밖에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전까지 자기가 농사짓는 것만으로 생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 자기 몫으로 분배받은 땅을 지주한테 다 팔아버린 거예요. 윤성남, 오죽하면 우물에다 쌀을 숨겼겠어요, 『8·15의 기억』, p.213.

윤성남은 1931년 전라북도 김제에서 태어났다. 익산에서 가족의 농사를 도우며 학교에 다니다가 해방을 맞았다. 해방 이후에 한글교육을 받아서 한글선생을 했으며, 그 이후 농민 운동에 나섰다.

180) 당시 서울역을 이용하는 승객 2만 명의 약 44%가 그들의 가족을 위해 지방으로 쌀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었다. 『전국노동자신문』에 따르면 서대문 체신국과 광화

량 사정을 전혀 몰랐고, 약소민족이 아닌 강대국의 입장에서 상대의 빈곤과 절망을 보지 못했으며, 유산자와 무산자의 생활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회승은 事情에서 미군정의 한국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우리의 탓으로 자책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의 사정을 알 수 없으므로, 미군정의 실책이나 몰이해에서 오는 그들의 오만함을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릴라 간디는 우리와 같은 식민주의 이후 반식민 독립 민족 국가들은 신생국가 출현 초기에 흔히 식민 과거를 망각하려는 욕망이 수반되며, 이 과정에서 기만을 당하거나 실패를 겪는다고 했다.¹⁸¹⁾ 어쩌면 작가의 이러한 사고가 일제 강점의 기억을 잊고자 한 데에서 기인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인이 겪고 있는 극심한 굶주림에 대한 미군의 오만한 말을 문화와 관습의 차이를 들어 이해해 주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한 생각 자체가 오랜 식민지배에서 오는 자기 비하적인 보상심리이기 때문이다.

이회승과 반대로 김동석은 미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매우 적극적인 반론을 펼친다. 한국인을 멸시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는 미군에게 “유 아 너트 쉐틀랜드!!” 이라는 말로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신의 조국과 동포를 대하는 작가의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짙게 배어 있다. 상대의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을 질타하는 작가의 사고에는 민족의 현실에 대한 울분이 깔려 있는 것이다. 나아가 “그 미국인은 宣教師였다.”라는 글귀에서 선교사 본분의 역할과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미군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과 함께 미국과 우리는 동등한 주권 국가라는 의식도 엿볼 수 있다.

턱없이 모자라는 식량 배급으로 쌀 위기는 계속되고, 5일치 분량이라는 게 하루 먹고 나면 그만인 정도였다.¹⁸²⁾ 그런데도 지식인으로서 민족의 궁핍한 현실을 외면하고, 우리의 문화와 관습을 알려고 하지 않는 미군정을 두둔하고 있다는 것은, 일제 36년 간의 식민통치가 이 땅에 남긴 아픈 흔적이라고 할

문국에서는 “쌀 사러 가기 때문에 결근이 매일 혹은 월요일마다 10 명 내지 20 명 이”이 나왔고, 서울중앙우편국의 경우 1개월에 40에서 60명의 결근자가 나왔다. 강준만, 앞의 책, pp.203~204.

181) 릴라 간디, 이영옥 옮김, 식민주의 이후, 『포스트 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 문화연구, 2002, p.16 참조.

182) 강준만, 앞의 책, p.203.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민족이란 정체성 의식이 다른 민족 집단이 가하는 위협에 맞서 독립적인 존재임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민족과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¹⁸³⁾ 누군가 나서서 정체성이 다른 민족의 잘못된 행위를 나무랄 수 있다면, 민족의 힘은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지식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이다.

존 하지는 조선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통해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¹⁸⁴⁾고 했다. 그런 관계로 한국인이 영어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문제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드러냈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유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비밀 이야기를 엿들었다는 선입관으로 무조건 한국인을 때리려고 했다. 미군 선교사들의 이런 행동에는 철저한 한국인 비하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 한국인에 대한 미군의 비하적인 인식을 작품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문학 작품은 역사와 현실의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한 작가 정신은 어떤 역사적 토대나 사회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아로 현실을 왜곡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수필에 나타난 미군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은 정확한 좌표가 상실된 해방공간 수필작가의 혼란한 내면 세계를 보여 주었다.

② 일제 잔재 청산의 문제

일제식민통치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산업 분야 등 우리 민족의 골수에까지 깊은 식민주의적 상처¹⁸⁵⁾를 남겨 놓았다. 그 중에서도 황국신민화정책과 문화말살정책에 의하여 많은 감시와 규제를 받았던 문인들은, 해방공간에서 그들의 민족관과 역사관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증이 필

183) 고부웅, 초민족 시대의 한민족 정체성, 『초민족 시대의 민족 정체성』, 문학과 지성사, 2002, p.133.

184) 송건호, 앞의 책, p.22.

185) 오익환,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송건호 외, 앞의 책, p.111.

요했다.¹⁸⁶⁾

過去 日帝時代に 소위 國民文學 의 第一線에서 活躍 한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면 낮이 화끈 화끈해지는 아침의글도 더러 쓰기도했습니다. 아무리 生活을 爲해서, 自己欺瞞을 한것이기로니, 내 自身 愉快할理없고, 몇몇할까닭이 없습니다. (중략) 또 文學이란 時代와 環境을 벗어날 수 없는것이라고, 자스티화이 하는데로 妥協한것이었습니다. 나는 내 生活이 密着한 現實을 無視할 能力이 없었고, 또 朝鮮民族의 運命이란 것이 그때는 그러하게밖에 놓일수없다는 絶望의 希望 에서 日本의 爲政者앞에 屈했던것이었습니다. 나만 屈服했던가요? 물론 아닙니다. 거의 모든 朝鮮사람이다 그러한 處地에 있었습니다. (중략) 朝鮮의 인텔리겐차여-너그러워지이다-先生이어-나를 恒常 希望과 正道로 인도하여 주소서!¹⁸⁷⁾

바로 八·一五직후 한두어달은 그저집에서나 길에서나 찾아오는 사람이면 붓 들고, 억해서울고 기빠서 잠을 못잘지경이었다. 조선사람이면 다-좋고 그저소중하였다. 그러나 나의 미련한 희망은 하나 둘 부서지기 시작하였다. 독립운동과정에 있어서 피치못할일인지는 모르나 제각급 제당과 부속부대가 있어서 그당이나 ○○에 가치 일흠이 적히지 않으면 죽자살자하든 어쨌날 친구도 헛소리요 친한탓으로 무흠했던 과거의 사사로운단점도 모두들추어내여 속칭 민족반역자 아니면 친일파부류에다 걸치지않으면 모리배나 혹은 악당 공산주의자라며 서로 흘뭇는다.¹⁸⁸⁾

그래 이게 어떤물건인데 바로 사꾸라혼모 노야 사꾸라 혼모 노 朝鮮천지 다 맹겨도 一八덜주고야 턱이 있나, 흥 한잔 벌어케 마시고 사람들 앞에다 팔을

186) 문학인은 적어도 양심 선언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만큼 문학인을 선비 또는 지사적인 정신의 소유자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임화는 이 문제에 있어서, 문인의 자기비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곧 양심문제라고 말한다. 일제시기에 우리 문인들이 가졌던 태도는 친일을 빼고 다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붓을 쥐는 일, 둘째, 골방에서 계속 창작을 하는 일, 셋째, 일본어로 쓰되 최소한의 협력을 함으로써 계속 쓰는 일 등이다.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 - 지식인작가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강만길 외, 앞의 책, pp.453~457 참조.

187) 이석훈, 告白, 『백민』, 1946년 12월, p.39.

188) 모윤숙, 앞의 글, p.28.

쭉쭉 내밀며 목에 핏대를 올리는 그런 職業 그런 生活과는 아무래도 자리를 달리 해야 할 天性인데는 나도 어찌는 수 없다.¹⁸⁹⁾

日本人의 所謂 大東亞戰爭이 續되는사이 원갓物資이 자취를 감추어 至極히 貴하기도 하더니만 포스담宣言에 依해서 할아춤에 獨立이 이곳에 오자 物資는 一時에 洪水같이 터지기 始作했다. 모든 것이 『야미』지만 없는 物件이라곤 없기 때문에 그 豊富한點, 그 高價한點, 그 殺伐한點, 낯선 『外國』이 우리 앞에 문득 날아난 奇觀을 呈하였다. 이제도 오히려 그러하거니와 새나라의 새모습이라기에는 너무도 調和가 없고 어수선하고 亂雜하다. (중략) 요새 電車가 잘 通하지 않는관계로 흔히 걸어다니지만 무엇보담도 顯著히 눈에 띄이는 것은 골목골목에서 放賣(라고 하지만 결코 싸지는않다.)되는 日本人의 家財道具다. (중략) 勿論 오랫동안 物資缺乏으로 不便한 生活을 해왔는지라 個中에는 보는사람으로하여금 욕심을 생기게 할만한 華奢하고 有用한 세간도 없는것은아니나 부르는게 값으로 불어나게 賣買되는 이 때물은 家用品이 處處에 運搬되는 것을 볼때마다 나는 적이 떠오르는 一抹의 哀愁를 拂拭해버릴 수가 없다.¹⁹⁰⁾

위의 작품은 해방을 맞은 친일 문인의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해방 직후부터 문인들의 작가적 양심 복원 문제가 문단의 중요과제로 부각되었다. 즉 일제치하를 살아온 그들 삶의 이력에 대한 공개적인 자기비판이 행해졌던 것이다.¹⁹¹⁾ 그러나 이석훈과 모윤숙은 자신들의 글에서 본인들의 친일행적은 어쩔 수 없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의 지식인이 자신의 행적을 이해하는 너그러움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민족의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펼치는 게 창작이라면, 그 언어에 깃든 얼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은 작가의 역할이다. 그러므로 문인의 소리는 역사 안에서 울려야 하고, 그 역사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해방문단에 있었던 문인들의 자기반성이 이들처럼 자기변명에 머무른다면, 그 상황에서

189) 최인옥, 허육, 『문예』, 1950년 1월, p.240.

190) 김진섭, 國民의 祭典, 『인생예찬』, p.166.

191) 이병순, 채만식의 해방기 소설 연구, 앞의 책, p.302.

나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친일을 했다는 식에 머물러선 안 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작가의 요구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인 것이다.

임화는 문인들이 자기비판에 겸허함이 필요한 이유를, 남은 다 나보다 착하고 훌륭한데 나만이 가장 나쁘다고 긍정할 수 있는 양심의 용기가 있어야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기¹⁹²⁾ 때문이라고 했다. 작가가 남보다 뛰어난 윤리 도덕적 감각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엄연한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지식인이 너그러워지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친일문인들의 한계로 볼 수 있다. 또, 자신의 과거행적을 해방정국의 혼란으로 심화된 좌·우익의 평가됨에 편승하는 것은 너무나 떳떳하지 못한 지식인의 모습이다.

일제의 잔재는 지식인의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관습·일상에서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 지구상에서 식민통치의 기억을 가진 나라 중에서도 우리의 형편은 남달랐다. 프랑스와 알제리, 영국과 인도는 식민지 이전에는 서로 교류한 기억이 없으며, 인종적인 차이도 많았다. 문화와 관습의 격차도 심했으며, 식민통치가 세대간의 기억을 다르게 변화시킬 만큼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과거 일본에게 문화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같은 지역권 내의 인종이었다. 그리고 식민 지배가 36년 만에 끝남으로써 세대간의 역사적 기억 단절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우리말과 우리 글을 빼앗긴 채 살았으며, 그 결과 해방이 되었을 때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였다. 철저한 한글 배제 정책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일본말이 튀어나오는 황당함을 한동안 겪어야 했다.¹⁹³⁾ 급하면 우리말에 일본말이 뒤섞이는 국적불명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최인옥은 아무리 궁색해도 우리말로로는 아직 적절한 어휘를 찾지 못해 할 수 없이 일본말을 섞어야 하는 장사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발길을 돌려버린다. 차라리 굶는 게 낫지 일본말을 섞어가며 돈을 벌고 싶지 않다는 자조 섞인 말에서,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식민지의 그림자

192) 김윤식, 앞의 글, p.456 참조.

193) 일본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나 오랜 관습으로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해 우스운 일이 많이 벌어졌다. 도로 찾은 우리 이름으로 출석을 부르는데 무심코 '하이'라는 말이 나왔다. 유종호, 앞의 책, p.127.

를 볼 수 있다.

일본인들이 두고 간 많은 주택과 세간은 궁핍한 민중들에게 최대의 관심사였다. 미군정은 발빠르게 일본인들의 사유재산 관할권을 발동했지만, 중요 산업 시설을 제외한 사유재산은 매매를 인정하였다. 미군정은 처음에는 적산이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은 인정한다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였다. 이 때문에 사유재산의 개인적 매매 및 처분을 둘러싸고 부정과 경쟁이 치열해졌고, 일본인의 재산권 주장과 한국민의 반발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부정이 있었으며, 특히 일본인의 재산은 미군정과 가까이 있었거나 친일로 기본적인 재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불하되었다.¹⁹⁴⁾ 그리고 김진섭의 작품에 묘사되었듯이 일본인들이 쓰던 가재도구는 골목이나 후미진 동네 한 쪽에서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었는데, 그 가격이 만만하지 않았다. 생필품이 귀한 민중들은 많으나 물건은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기억 때문에 분노하고 힘들어하던 시기에, 일본인들이 쓰던 물건을 서로 사기 위하여 가격상승을 불러왔다는 사실은 해방공간에서의 민족 정체성의 혼돈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 준다.

작품에 나타나는 외세 인식은 그 대상이 미군정과 일제잔재로 나뉘어 있었다. 미군정 하의 미군은 한국인을 비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비추어진 한국인의 모습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주권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일본의 통치 하에 있었던 일본 속국의 인상이 강했다. 그래서 미군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쌀이 없으면 빵과 고기를 먹으면 된다’라는 식의 비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일본 잔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언어와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한 지식인의 반응도 미군옹호와 미군적대감정으로 나뉘어졌다. 일제 잔재에 대하여서는 통탄하고 있으나, 미군의 안하무인격인 행동에 대해서는 울분을 드러내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옹호의 사고를 지닌 일부

194) 이종훈, 미군정경제의 역사적 성격, 송건호 외, 앞의 책, pp.498~508 참조.

작가의 현실인식이다. 이는 무조건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식인이라면 최소한 자기 민족 내부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식민통치에 영합하는 세력을 식별하며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는 자기 스스로의 심령 속에서 봉건 정신과 매판의식을 가려내고 이겨내는 고도의 지적·정서적 단련이 요구되는¹⁹⁵⁾ 것이 지식인이 가져야 하는 비판의식이다. 스스로 과거의 일에 겹쳐한 반성을 하지 못한 일부 문인들이 정체성의 부재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들도 언어에 갇힌 식민지적 잔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일제로부터 우리글과 우리말은 해방되었지만, 우리말과 글에 대한 믿음은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 해방공간 수필의 문체와 표현의 특징

지금까지 해방공간 수필을 주제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시기 민중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그 과정에서 수필의 전형적인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인 문체적인 특성과 표현 방법을 다루지 못했다. 사람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 언어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진다. 이와 같이 수필 작품에서도 작가만의 글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문체라고 한다. 어느 작가가 어떤 문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작품이 주는 느낌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문체는 작가의 개성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체는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개인마다 다르듯이 작가에 따라 문체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한 주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수필도 문학인 이상 표현과 거기에 따른 문체의 논의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해방공간 수필의 문체와 표현의 특징을 앞에서 언급된 작품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195) 성민엽, 『민중문학론』, 문학과 지성사, 1984, p.77.

1) 논설적이며 사실적인 문체

해방공간의 많은 수필들은 논설적이며 사실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문학의 형식에서 보면, 수필에서는 시나 소설이나 희곡에서 보는 바와 같은 어떤 완성되고 일반화된 품이 없다. 그리고 수필은 자기고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해방공간의 급변하는 현실을 글로 표현할 때, 수필의 이러한 특징들이 논설적이며 사실적인 문체를 띠게 된 이유이다. 일반적으로 확립된 품이 없는 글에 화자가 언제나 “내”가 되는 고백문학적 성격이 첨가될 때, 작가의 개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또, 작가의 문체에 따라 같은 제재의 글이라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오늘 朝鮮에는 中學校의 좁은 問을 各 新聞이 大書 特書하고 있다. ‘10 배 突破의 競爭’이란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다. 中學까지를 國民의 義務教育으로 制○한 國家는 많다. 義務教育이란, 國民의 義務인 同時에 國家의 義務이기도 한 것이다. 이번에 入學하지 못한 數萬 名の 小學 卒業生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民族의 關心이 아닐 수 없다. (중략)

그러나 이상한 일은 어느 中學을 勿論하고 上級學年에 있어서 學生이 定員에 차지 못 하는 事實 이다. 어떤 學校는 六十 명 定員の 五 學年 教室에 四 五 名이 出席하는 일도 있고, 在籍生은 十 餘 명이나 出석생은 단 한 명인 날도 있다 한다. (중략) 現在의 五 六 學年 教室의 統計를 보아 이미 發布한 學制이지만 그것을 經驗으로서 修正하여 五 六 學年을 廢止하고, 新 入學生을 增募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6)

작난이란 곳 生活이요 알고자 하는 本能이요 模倣하며 創造하고자 하는 知能의 發露이니, 이것을 充分히 돌아 주어야 하겠거늘 오히려 누르고 그 뿌리조차 없이하려 드는- 個性의 發展을 무시하고 一律的인 무기력하고 암전한 아이를 맨글려는 것이 오늘의 幼兒園인 까닭이다. 197)

196) 마해송, 中學生의 過不足, 앞의 책, pp.20~21.

197) 마해송, 유아원의 위기, 앞의 책, p.2.

이렇게 學校만 좇아 다니다간 결국 退學手續을 한 梅洞校까지 巡禮를 할판
이라 다시금 제일 가차운 蕙化와 慶昌을 번갈아 다니며 사정 사정 해도 결국
은 자리가 없다고 퇴스짜만 마즈니 (중략) 中學校나 大學은 新設도 많은데
國民學校新設하는 사람은 꿈에도 볼 수 없으니 이건 中大 學보다 權威가 없
다는것인가, 배울 사람이 없다는것인가. 또 아니면 요새 流行語처럼 된 學園
謔利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越南同胞와 시골서 移徙온 部類에 未就學 兒
童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렇다고 入學責任까지는 안저도 좋으니 當局
에서는 數조차 한번 조사해 불必要가 있지 않을까.198)

그러나 中學을 마친 사람이 新聞도 읽지 못하고 知識人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文盲이 틀림없는 것이다.199)

某中學校 先生이 國語를 가르키면서 詩人 故 金素月을 黃眞伊와 同時代의 妓
生이라고 하셨다니 黃眞伊가 妓生인줄을 안 것은 至極多幸이지만 素月까지
妓生으로 돌리는데는 웃고만 말일이 아니다. 요새 文化當局의 特案으로 敎職
員의 肅清工作이 着着 進行이라니 이는 時宜에 가장 適合한 일이라 하겠으
나, 思想問題를 標榜하고 속으로는 私感에 치우쳐 멸장한 사람病身 만들어
내모는 일 없어야 할것이며, 또 既往 肅清하는김엔 思想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제아무리 愛國者라도 人格이 없는 엉터리라면 마땅이 此際에 한목
肅清해야 할 것이다.200)

위의 글들은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마해송은 中學生의 過不足 에
서 첫 단락을 모두 6개의 문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문장을 짧게 끊어 한 문장
에 하나의 사건만 나타내어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
다. 작가는 해방공간 중등교육의 문제 중에서 학제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비판
하고 있다. 중학교 학급의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학제개편의 필요
성을 강한 어조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소학

198) 최인옥, 앞의 글, p.165.

199) 마해송, 文盲의 養成, 앞의 책, p.17.

200) 최인옥, 앞의 글, p.167.

교 졸업생 다수가 입학할 수 없는 반면, 졸업생 수는 입학생의 절반도 되지 못하는 현실을 사실적으로 밝히고 있다. 최인욱 역시 교육제도의 불합리성을 강하게 논박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제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계층의 교육현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교사의 자질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해병공간 교육제도의 총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글들은 모두 교육문제라는 소재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작가의 문체에 따라 주는 느낌이 다르다. 마해송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제시하며, 감정이 자제되어 있다. 따라서 작가의 확고한 의지가 글에 나타나 있다. 또, 마해송의 글은 문장 하나하나가 짧아 간결하면서도 건조한 느낌을 준다. 반면,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작가가 제기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을 압축하여 정연한 효과는 지니고 있으나, 뜻을 음미할 수 있는 문장은 아니었다. 반면, 최인욱은 자신이 경험한 문제에 강한 울분과 염려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마해송은 사실적으로 논증을 하며 문제를 제시했고, 최인욱은 논설적으로 사실을 나타내며 작가의 감정 상태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있다.

우리도 그리 늦은 편은 아니었건만 언제들 이렇게 떨어났는지 아직 午正도 멀었을텐데 山은 사람으로 왔다. 아니, 곳에 따라선 벌써 沼沼한 醉興에 허리를 부러치고 꿈당춤〇에 남비 장단이 한참인데도 있었다. 우리 一行도 물이 흐르는 골짜기의 한곳을 擇定하고, 짐을 풀었다. 소고기, 닭고기, 鷄卵, 菓子, 술, 쌀 거기에 이것 들을 料理할 道具一襲이 自轉車로 하나이 실리어 왔다. 논다는 것은 결국 먹는다는 意味가 아닐런지 모른다. 제 아무리 名勝景概를 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享樂으로서의 本意였다면 반드시 먹는 一項이 따라야 그 意義를 지니게 되는 것 같다.²⁰¹⁾

이렇게 熟眠을 해도 아침이면 몸이 갇든해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한잔의 커피가 또한 없을수없는것이다. 피로와 싸우고 피로를 극복하는 다른 方途를 모르는 나로서는 이素朴하고도 單純한 方法을 되푸리하지 않을 수 없다.²⁰²⁾

201) 계용목, 앞의 글, p.54.

202) 김삼규, 앞의 글, p.176.

還進甲을 다넘기신 늙은 어머니를 벌써 三年이나 二層다다미 越冬에서 免캐 해들이지 못한 無能이 自嘲해 봐야 소용 없는 일일뿐더러 그러면 煖房裝置가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기도 않다. 六疊 넓이에 다 큰 사람 넷이 다리를 뻗자니 煖爐놓을 자리도 없거니와 그보다도 燃料를 당해낼 재주가 없는 것이다. (중략) 까닭없이 놀기만 하든 兄이 달라붙어 시굴서 가져온 세간이 들어차 방은 六疊으로 줄어든 것이다. (중략) 不勞徒食하는 兄이 나에겐 눈에 가시인 것이다. 나는 그의 運命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그로 말미암아 집에 들어서기조차 싫은 때가 많다.²⁰³⁾

元來가 洋風이라는건 開化 를 지나치면 狂態妄想의 原子가 된다. 더구나 詛囑을 잘 하지않고 急喰하는 洋風이란 食後에 必有 탈 - 男子도 男子려니와 女子가 날뛰면은 家庭이 흔들리고 傳統이 넘어지고 國家가 어지러운 法- 流行이란 것이 물(色)이 진하게 들면 껍질을 베껴도 바탕이 남는법이니 現代女性은 自覺하여 새로 싹트려는 이땅의 流行을 是正키에 自奮하라! 自奮하라!²⁰⁴⁾

위의 작품은 바뀐 해방공간의 사회상을 나타내고 있다. 계용묵의 貞陵 1일과 김삼규의 피로는 앞의 작품에 비하면 비교적 문장이 긴 편이다. 그러나 내용을 서술하는 형식이나 문장의 길이가 간결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읽을 때 호흡이 짧은 글이다. 간결체의 문장이 짧게만 배열되면 의미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계용묵과 김삼규의 글들은 간결하면서도 의미연결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작가에 따라 변화의 인지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계용묵과 김삼규는 자신들이 누리는 문화적인 혜택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계용묵의 글에서처럼 야유회에 가서 충분한 음식을 챙겨 먹는다는 것은 일부 상류계층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작가는 먹는 일이 제대로 되어야 놀이도 의의를 지닌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김삼규도 피로를 이기는 방법으로 커피

203) 조○○, 天與의 財物과 惡運, 『문예』, 1949년 12월, p.161.

204) 최영수, 앞의 글, p.122.

를 마신다는 주장을 한다. 반면, 최영수와 조○○의 글에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지는 찾을 수 없다. 대신 두 작가의 문체에서는 바뀌고 있는 해방공간의 문화현상을 볼 수 있다. 조○○는 체념하는 투의 글이지만, 최영수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여 비분강개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같은 소재를 취하고 있어도 문체에 따라 글의 느낌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상 작품을 논설적이며 사실적인 문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마해송과 최인옥은 교육의 문제를 강경한 어조로 항변하고 있다. 만연체의 글까지도 작가가 느끼는 현실의 부조리를 직설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까지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문제의 핵심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 사회 문제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도 매우 주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판단으로 문맹을 정의하고 하나의 사실만으로 유아원의 교육이 창의성을 없앤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해방공간 유아원의 교육이 일률적이며 기독교 교리 중심의 교육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다룬 바 있다. 그러나 위의 글에서처럼 하나의 사실만으로 결과를 확정짓는 것은 작가가 매우 주관적인 사고로 글을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사회에 만연하는 불신의 이유를 보는 관점에서도 일부 수필이 제재를 통한 주제의 객관화에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문제가 직설적인 표현으로 수필작품 속에 드러남으로써 문학적인 성격보다 논설적이며 사실적인 수필이 되어 있었다.

조○○와 최영수의 글들은 주제가 구체화되어 쉽게 찾을 수 있는 작품들이다. 특별한 설명이나 감상의 시간이 없어도 읽으면서 주제를 바로 알 수 있다. 주제를 은유나 풍유 또는 환유의 기법으로 상징화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해방공간의 수필들이 일차적인 현실의 반영을 통하여 당대 사회의 문제들에 접근은 했으나, 문학성이 결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제가 단순하고 명료하면 글의 통일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수필 작품이 다른 장르의 문학작품과 차별화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관조와 은유에 의한 주제의 객관화이다. 수필의 문학적 효용성이 작가의 체험을 독자의 생으로 의미 있게 전환시키는 것이므로²⁰⁵⁾ 주제의 직접적인 노출은 문학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2) 문예적인 표현

해방공간의 수필을 문체와 표현이라는 면에서 살펴볼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문예적인 표현이다. 문예성이 강한 수필들은 대체적으로 문장이 길거나 작가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어찌하야 우리 朝鮮에 昔日에는 볼수 없었든 憎惡와 角逐이 문득 솟아났는지 알수 없거니와 事實은 이미 있었든 그와 같은 心的要○가 建國의 基礎工事を 契機로 하고 表面에 滲透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중략) 文字 그대로 畫中之餅이라 할까. 目豐口凶이란 感想을 지니지 않고 길거리에 벌려 놓여 있는 雜然한 百貨속에서 단한가지 物件인들 흥정할 수는 없을것이니 彼此에 敵이 아니고서야 朝鮮에서 生産되는 物件을 그렇게 비싸게 팔수는 없겠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流行性精神病의 性格을 띠우고 憎惡에 의한 市民戰爭이 오로지 自己一個人의 利益을 위하여 모든 秩序와 모든 道德을 無視하고 마치 中世紀의 黑死病처럼 猖獗을 機하고 있는反面에는 雪上加霜으로 어느때 이 곳에 큰 地震이 일어났다는 것인지 모든 사람은 (중략)²⁰⁵⁾

現代人の 生活感情이 가장 感覺的으로 表現되는것에 茶房 이 있다. 비록 한잔의 커피나 코코아 속에서나마 지긋한香氣와 그윽한 맛을 取함에서 보담도 食道로 넘어가는 茶水는 마치 押紙처럼 現代人の 懊惱를 吸取하여 버리는것이다. (중략) 茶房에는 그러한 可憐한 族屬들이 마치 노래를 잊은 카나리아 처럼 한잔의 茶水에 默然한 心懷를 吐露削滅하려드는 그런 幽幻의 世界가 構成되고 있다.²⁰⁷⁾

저의 記者生活은 즐거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같이 歡迎받았고 사랑속에서 애기記者는 자라났습니다. 고히 고히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十餘年이 넘는 오늘에와서 저는 누구에게 原稿를 부탁하려 갔다가 아주 두말 불일여유도 없이 拒絕을 당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一線에나선 記者도 아니요 무슨 裏面을 控知하려 댕기는 記者도 아니요, 어떤 新聞社와 雜誌社에서 부탁을 받고 中間에서 傳達하려다가 첫마디에 氣分 좋게 謝絶당하였습니다. 제얼굴이 화-끈 하더니 온-몸에땀이 주루루 흘러더니 그만 치가 부들

205) 박양근, 『좋은 수필 창작론』, 수필과 비평사, 2004, p.67.

206) 김진섭, 『市民戰爭』, 『人生禮讚』, 현대문화사, 1947, p.170.

207) 최영수, 『茶』, 『백민』, 1947년 6·7월, p.38.

부들 떨리드군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 버렸으면 숨어버렸을 것을.....²⁰⁸⁾

위의 글들은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되 걱정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김진섭의 市民戰爭 을 살펴볼 때, 글의 주제는 현실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으나 문체가 호소력을 띠고 있다. ‘畫中之餅’이라든가 ‘目豐口凶’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함으로써 문제제기의 수위를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우 민감한 사회문제를 소재로 택했는데도 앞에서 살펴보았던 논설적이며 사실적인 글들에 비해 고발적인 성격이 약하다. 최영수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방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면면이다. 암울한 현실을 피하여 다방에 앉아 커피의 맛과 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노래 잊은 카나리아에 비유하고 있다. 해방공간 수필 다수가 직설적인 어법인데, 최영수는 비유법을 써서 작품의 분위기가 한결 밝고 가볍게 느껴진다. 전희복은 여성수첩 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앞의 글들과 달리 신변잡기적인 성격이 강한 글에서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어 글의 품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글의 흐름은 큰 무리가 없으나 우유체 문장에서 범하기 쉬운 감정의 노출을 자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백문학의 특성이 강한 수필에서, 작가가 인지한 사실들이 고뇌의 과정을 거쳐 은유적인 방법으로 형상화될 때 문학성을 띠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수필이 선형적 기억들을 문학의 형상으로 나타낼 때 꼭 필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경험한 일이 하나의 의식으로 전환하여 글로 표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수필은 경험의 진리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주관에 배제되는 과정을 거쳐 또 다른 하나의 실체가²⁰⁹⁾ 드러날 때 비로소 탄생되는 문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수필은 작가가 살아 온 삶의 궤적인 동시에 작가의 강렬한 희망이기도 하다. 해방공간의 수필들은 다수가 이러한 수필의 본 모습을 잃지 않고 지니고자 애쓴 흔적을 남기고 있다. 문학은 결코 삶보다 우위에 있을 수

208) 전희복, 女流記者時代의 回想, 앞의 책, p.16.

209) 선형에서 탄생되는 이 실체는 철학적 사유를 거쳐 삶의 본질을 탐구하는 수필이라고 생각한다. 즉, 제재나 소재는 작가 자신의 경험에서 취하되, 작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선형을 바탕으로 하는 사유체계에 의하여 창작되어진 ‘究竟의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²¹⁰⁾ 그래서 수필은 작가 자신의 삶을 드러내지만 그 방법은 매우 은유적이며, 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다. 때로는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 현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자연과 더불어, 또는 삶의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글들에는 사회제반의 문제들에 대한 현실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논설적이며 사실적인 글들에 비해 문예성은 보이고 있으나, 당대 현실의 암울한 일상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 수필을 살펴 본 결과 표현의 특징은 논설적이며 사실적인 글과 문예성이 강한 글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논설적이며 사실적인 글들은 주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비유가 거의 없는 게 특징이었다. 이는 작품들이 창작된 해방공간의 사회상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급변하는 혼란의 사회에서 감상적인 글보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글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묘사보다 서술이 중심으로 쓰이고 있었다. 작가가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비유나 수사보다는 논리성이 강조되는 글이 호소력이 있다.

해방공간에서 창작된 수필 중 논설적이며 사실적인 글들이 전체 331편 중 145편이었다. 145편의 글들은 당대 사회현실에 대하여 논리적이면서도 걱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이 작품들이 해방공간의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를 나타내는 데에 적절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논설적인 작품의 특징들이 문학성은 떨어뜨렸으나, 직접적인 사회현실 묘사와 사회문제들을 반영하여 당대 사회역사적 시대상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사건들이 수필의 특성인 사색과 관조의 단계를 거쳐 은유적으로 형상화되지 못하고 사회성을 강하게 띠게 된 것은 작품의 제재를 지나치게 일상에서만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작품의 현실성은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으나, 제재를 통한 주제의 객관화가 부족하여 감동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는 해방공간의 삶이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의 연속이었던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반면 문예적인 성격이 강한 글들은 186편으로 작품 수는 많았으나, 대체적으

210) 박양근, 앞의 책, 2004, p.19.

로 주제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작가 자신의 현실 상황을 탄식하거나 비껴가는 특징이 있었다. 논설적인 글들에 비하여 문예성이 있다고는 하겠으나, 현실을 정확하게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공간의 수필들은 완벽한 문학성은 갖추지 못했으나, 일상적인 것들에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일상의 경험이 허구의 짜임 없이 객관화의 과정을 거쳐 독자에게 동감을 얻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수필은 문학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해방공간 수필은 문체에 있어서 대중의 삶을 직설적이며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볼 수 있었던 반면, 독자의 가슴에 여운을 남기지는 못했다.

VII. 결 론

해방공간의 수필을 사회·역사적 연구방법으로 해방의 기쁨과 좌절, 교육의 허와 실, 일제 때와는 다른 문화의 양상, 미군정과 일제 잔재, 해방공간 수필의 문제와 표현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학이 사회·문화적인 의미와 효과를 가진다는 인식 하에서, 수필 작품을 앞의 주제로 분석하여 해방공간을 살았던 일반 대중의 일상을 연구하였다. 문학작품은 그것이 창작되는 시기의 사회나 문화적 요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던 작가의 이념이나 철학이 작품 속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과거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먼저, 해방공간에 나타나는 기쁨과 좌절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수필에 나타난 해방의 풍경은 희망과 환희였다. 비록 이억만리 타향에서 태극기를 보고 눈물 흘리지만, 해방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면에 숨겨진 민족의 불행은 해방의 기쁨에 가리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정책의 혼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은 불안하고 빈곤은 극에 달하고 있었다. 국민의 생활고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정권창출에 주력한 이승만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었으며, 미군정의 정책은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이 시기의 정책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행복이나 불행 같은 삶의 기본 조건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다. 지속되는 빈곤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대중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 먼저 전통적인 가족관이 해체되고, 형제애가 물질적 가치 추구에 밀려나고 있었다. 그리고 일명 ‘사바사바’로 불리는 모리배들의 전횡이 공공연하였으며, 생존의 본능에 밀려 직업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게다가 남한으로 끝없이 내려오는 월남 난민들은 그들의 생활도 피폐했지만, 갑작스런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남한 내의 생필품 품귀현상을 불러왔다. 이러한 불안과 가난에 대해서 수필은 대중의 곤궁함을 대변하고 있었다. 즉, 모든 현실은 역사적이며 현실문제의 밑바닥에는 경제적 토대의 문제가 있음을 문학 작품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해방공간의 교육을 유아원·초등학교·중등학교의 제도적인 문제 및

교사의 자질과 문맹이라는 측면에서 연구해 보았다. 이 시기 교육의 총체적인 문제는, 미군정 주도 하에 교육정책이 시행되면서 해방공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개인의 창의성이 사라지고 적절한 시기에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교육은 학생위주로 시행되지 못했고, 잘못된 지식을 배워도 검증할 기구 하나 없었다. 이는 교육의 주체가 우리 국민이 되지 못하고, 교육환경에 우리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이다. 수필 속에는 이러한 교육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제 제기만으로 그치지 않고 해결방안까지 제시하는 사회 참여적인 글이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당대의 교육문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또, 해방공간의 문화도 양키이즘의 유입으로 일제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그 중 기독교가 신앙의 차원을 넘어 권력화 되었다는 게 눈에 띄는 변화이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여성에게서 시작되고 있었다. 여성의 권익을 위하여 여성 단체가 과감하게 설립되었고, 여성 스스로 규제를 벗고 아름다움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해방공간에서 이와 같은 문화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자본주의가 싹을 내리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방은 단순한 찻집의 기능을 떠나 문인들의 사랑방으로 변모하였다. 만문만화 위주로 일부 계층에만 국한되었던 만화도 시사만화로 탈바꿈하였다. 독자층도 넓어져서 지망생이 늘어났다. 일제 때에는 억눌려 있던 인간내면의 욕망이 미군과 함께 들어온 양키이즘의 영향으로 분출된 것이다. 일제 때에는 문화말살정책으로 우리의 문화가 더 이상 발전되지 못했으나, 조선의 유교관은 어느 정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갑자기 밀어닥친 미군의 양키이즘은 과거와는 다른 방향으로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문화는 대중정보보다 일부 가진 계층의 전유물이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즉, 해방공간에서 공급과 소비의 시장이 문화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확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수필은 사회 변혁기의 문화가 어떤 양상으로 변할 수 있는가를 보여 주었으며, 수필을 통하여 변화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수필에 나타나는 외세 인식의 대상은 미군으로, 미군옹호와 미군 적

대감정으로 나뉘어진다. 미군정 하에서 미군은 한국인을 비하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그들에게 비추어진 한국인의 모습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주권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일본의 통치 하에 있었던 일본 속국의 인상이 강했다. 그래서 미군들은 한국인들에 대해서 ‘쌀이 없으면 빵과 고기를 먹으면 된다’라는 식의 비현실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에 대한 지식인의 반응도 미군옹호와 미군적대감정으로 나뉘어졌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옹호의 사고를 지닌 일부 작가의 현실인식이다. 이는 무조건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최소한 급변기 사회의 지식인은 자기 민족 내부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식민통치에 영합하는 세력을 식별하여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지식인의 비판의식은 자기 스스로의 심령 속에서 봉건 정신과 매편의식을 가려내고 이겨내는 고도의 지적·정서적 단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비판은 곧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잔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언어와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일제 36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 그 동안에 일본의 문화나 언어는 우리 고유의 것들과 뒤섞였던 것이다. 수필은 외세인식의 형상화를 통하여 당대 지식인의 양면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사회 변혁기에 지식인이 가져야 하는 사회인식과 책임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방공간 수필의 전반적인 특성을 문체와 표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수필의 제재가 다양하지 못했다. 이 시기의 사회적인 상황이 빈곤과 불안이라는 양대 축에 의해 대중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었던 데에 원인이 있다고 보지만, 주제가 지나치게 일상적인 문제에 치우쳐 문학성이 결여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즉, 사회문제가 직접적으로 수필에 드러남으로써 문학적인 성격보다 사회고발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문체와 표현의 또 다른 특징은 주로 만연체의 글이 많았으며, 강건체를 함께 띠고 있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작품들이 문학성은 떨어지는 반면, 현실인식은 강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 즉, 감상적인 글보다 현실문제를 제기하는 논설적인 성격이 강했다. 표현에 있어서는 주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비

유가 거의 없는 게 특징이었다. 이는 작품들이 창작된 해방공간의 사회상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급변하는 혼란의 사회에서 감상적인 글보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글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예성을 떠는 작품들도 표현의 미숙함으로 문학성이 결여된 채 신변잡기적인 글이 되어 있었다.

수필 작가들은 혼란의 시기에서 현실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그 결과 해방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였으나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현실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던 데에 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봉건제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희망이 현실 속에서 좌절감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필작가들은 수필 속에 현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해방공간의 당대의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다.

참 고 문 헌

1. 기본 자료

- 계용목, 『상아탑』, 우생 출판사, 1950.
김진섭, 『생활인의 철학』, 선문사, 1949.
——, 『인생예찬』, 현대문화사, 1947.
——, 『백설부』, 범우사, 2003.
김용준, 『새근원수필』, 열화당, 2004.
마해송, 『편편상』, 사회와 인생, 1954.
정래동, 『북경시대』, 평문사, 1949.
이문희, 『들장미』, 청구 출판사, 1955.
진현중, 『두땃집』, 청우 출판사. 1954.
최영수, 『곤비의 서』, 덕여서림. 1949.
홍영의, 『사라수초』, 동국 출판사, 1952.
전희복, 『거울 앞에서』, 문예사, 1950.
『문예』, 1948년 8월 창간호부터 1950년 4월호까지.
『백민』, 1945년 12월 창간호부터 1950년 5월호까지.
<조선일보> 1947년 4월 2일부터 1950년 6월 19일까지.

2. 논문.

- 김현주, 1930년대 수필개념의 구축과정, 민족문학사학회, 2003.
박향옥, 한국현대수필문학의 주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오병일, 한국현대수필문학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오창익, 1920년대 한국수필문학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오현봉, 해방공간수필의 사회현실연구, 『한국언어문학』제28집,
한국언어문학회, 1990.

이만열, 한국개신교사 , www.naver.com,
 이병덕, 현대수필의 문체연구 ,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이윤희, 이양하 수필연구 ,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장기순, 한국현대수필문학 연구 ,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정주환, 한국 근대수필의 문학사적 연구 , 우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최영숙, 피천득 수필문학연구 ,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 국내외 단행본

강내희, 『문화론의 문제설정』, 문화과학사, 1996.
 강만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96.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 인물과 사상사, 2005.
 ———, 『한국 현대사 산책 2』, 인물과 사상사, 2004.
 고부웅, 『초민족시대의 민족 정체성』, 문학과 지성사, 2002.
 고영민, 『해방정국의 증언 - 어느 혁명가의 수기』, 사계절, 1987.
 김덕영, 『논쟁의 역사를 통해 본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4.
 김윤식 외, 『해방공간의 문학운동과 문학의 현실인식』, 한울, 1988.
 김종숙, 『여성과 사회』, 한국문화사, 2003.
 김찬호, 『사회를 보는 논리』, 문학과 지성사, 2004.
 박갑동·이철승, 『건국 50년, 대한민국 이렇게 세웠다』, 계명사, 1999
 박명림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6』, 한길사, 1996.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돌베개, 1988.
 박양근, 『좋은 수필 창작론』, 수필과 비평사, 2004.
 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95.
 성민엽, 『민중문학론』, 문학과 지성사, 1984.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1』, 한길사, 1995.
 신명직, 『모던 쏘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신상철, 『수필문학의 이론』, 삼영사, 1990.
 심원섭·김광길, 『문학비평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양은경 외, 『문화와 계급 - 부르디외와 한국사회』, 동문선, 2002.
 유종호, 『나의 해방전후』, 민음사, 2004.
 윤재천, 『수필작품론』, 세손, 1996.
 이동연, 『대중문화연구와 문화비평』, 문화과학사, 2002.
 이병순, 『해방기 소설연구』, 국학자료원, 1997.
 이선영, 『문학비평의 방법과 실제』, 삼지원, 2003.
 이우용, 『해방공간 문학연구』, 태학사, 1990.
 이효재, 『분단시대의 사회학』, 한길사, 1985.
 조동일,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2002.
 정목일, 『한국현대수필의 탐색』, 신아 출판사, 2003.
 최장집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97.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여이연, 2001.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2002.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 5집, 『해방 후 한국의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986.
 한국여성학 연구회, 『여성학의 이해』, 경문사, 1998.
 한국여성학 연구소, 『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2000.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문화와 철학』, 동녘, 2001.
 KBS, 『8·15의 기억 - 해방공간의 풍경, 40인의 역사 체험』, 한길사, 2005.
 릴라 간디, 『포스트 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2.
 에드워드 H 카,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03.
 리차드 팔머,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 2001.
 폴 헤르나디, 『비평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1998.
 폴 쉘르트르, 『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2004.
 존 스토리,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1999.